

돌봄노동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 시 _ 2006년 11월 14일 (화)

오후 2시 - 4시 30분

장 소 _ 한국여성개발원 2층 국제회의장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지속되는 가운데,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논의가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정책아젠다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돌봄노동의 가치정립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돌봄과 돌봄노동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밝혀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동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1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 명 선

■ 행사일정

13:30-13:50	등 록
13:50-14:00	사 회 이 상 원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인 사 말 서 명 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14:00-15:00	주제발표 발 표 1: 장애아동 돌봄과 정책방향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2: 아동 돌봄과 정책방향 홍 승 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발 표 3: 노인 돌봄과 정책방향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15:00-15:10	휴 식
15:10-16:00	토 론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한 우 진주국제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최 은 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류 양 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장

■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
-------------------	---

제 2 장. 장애아동 돌봄과 정책방향	11
----------------------------	----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제 3 장. 아동돌봄과 정책방향	51
-------------------------	----

홍 승 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제 4 장. 노인돌봄과 정책방향	93
-------------------------	----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제1장. 연구개요

본 토론회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6년도 수행과제로
장혜경 · 홍승아 · 이상원 · 김영란 · 김고은의 「돌봄노동
실태조사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준비한 것이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Esping-Andersen(1999, 2002)은 최근의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지구화와 탈규제화된 노동시장, 가족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영역에서는 지구화로 인한 자본 이동성의 증가, 서비스부문의 변화, 임시직 등의 불안정 고용의 증가, 여성노동력,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가족영역에서는 일인 소득자 가족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이인 소득자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사회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어머니/아내/딸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돌봄노동¹⁾의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개별가족에서 충족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Mahon, 2002; Leitner, 2003; Daly & Lewis, 2000). 그 결과, 전통적으로 가족영역에서 수행되어 오던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욕구가 눈에 띄게 중요하게 되었으며, 각 국가에서 정치 아젠다의 수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선진 서구국가들의 변화와 위험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훨씬 심각하다. 우선 지구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고용의 불안은 여성에게 더욱 가중되어 취업여성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임금차별 등의 고용차별을 더욱 극명하게 하고 있다.²⁾ 가족의 변화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인 남성소득자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표준가족”의 모델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인 소득자가족의 확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형태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개별가족에서 여성의 책임으로 수행되어 오던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문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구학적 변화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와 맞물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부담의 증대로 이어져 사회적으로나 개별 가정의 입장에서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이나 노인부양의 물질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취업여성은 물론, 전업주부 역시 무급의 “종일노동자”로서 돌봄노동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더 이상 개별가족이나 여성

1) 현재 care의 의미는 ‘돌봄’과 ‘보살핌’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 용어를 채택하였으며, ‘care policies’를 ‘돌봄정책’으로 사용하였다.

2) 우선 전체 임금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남성임금의 57.4%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두고 각각을 비교하면 정규직 여성은 남성의 66.7%를, 비정규직 남성은 남성의 56.3%를,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36.9%를 받는 수준이어서,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별이 가장 극심하다(이주희, 2003 참조).

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으며,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1,006,842명으로 0~4세 752,633명이고 5~6세가 254,209명이다. 특히 0~4세의 경우는 31.7%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³⁾ 노인 부양의 경우에도 노인인구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 2.9%, 1970년 3.1%에 지나지 않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14.3%의 비율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된다(2006 고령자통계). 따라서 노년부양비가 2000년 10.1이며, 2006년 13.2%, 2020년에는 21.8로 추정되어 노인 부양에 대한 돌봄과 경제적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구성이나 형태는 핵가족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등, 노인부양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가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결국 인구고령화, 노동시장과 가족의 돌봄자원과 기능의 감소 등은 종래의 돌봄노동 책임과 수행에 있어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으며(“care crisis”)(Daly & Lewis, 2000), 이러한 위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의, 책임과 역할의 재개념화를 근본적으로 요구하며, 동시에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과 공공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역사는 인구학적 변화 및 여성경제활동참여 증대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감소라는 양면적 사회상황에 처하게 된 1980년대 이래 가족내 돌봄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돌봄노동에 대해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과 여성지위와의 관계, 가족정책과 관련한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녀양육과 노인 부양 및 간병 등은 그 활동의 주요 부분이 가족을 통해, 그리고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분화되어 대상별로만 접근되는 한계를 지지고 있다. 앞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노동력 비중이 점차 증가되면서, 한국가족은 남성 일인 생계부양자체제에서 이인 부양자 구조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기혼여성 비중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노동인력으로서의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동안 여성이 전담해온 돌봄노동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장혜경외(2005)는⁴⁾ 보육정책과 노인수발보장정책이 점차적으로 가

3) 여성가족부, “0-4세 보육통계자료”, 2006.6; 2005년 통계청 인구조사.

4)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2005),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을 포함한 가족내 돌봄노동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돌봄의 주체와 구체적 활동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욕구들을 규명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선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의 결과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그 지원을 위한 예비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 실제 가족 내에서 돌봄제공자들의 돌봄상황 및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과 돌봄시간에 대한 총량적인 파악,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부담 및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을 후속연구로 요구하였다.⁵⁾ 2006년에는 아동과 장애아동, 허약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가구의 가족 내 돌봄실태 및 돌봄시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7년도에는 시장 및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실태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두 연구결과는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 및 돌봄노동 가치 정립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시발점이 됨으로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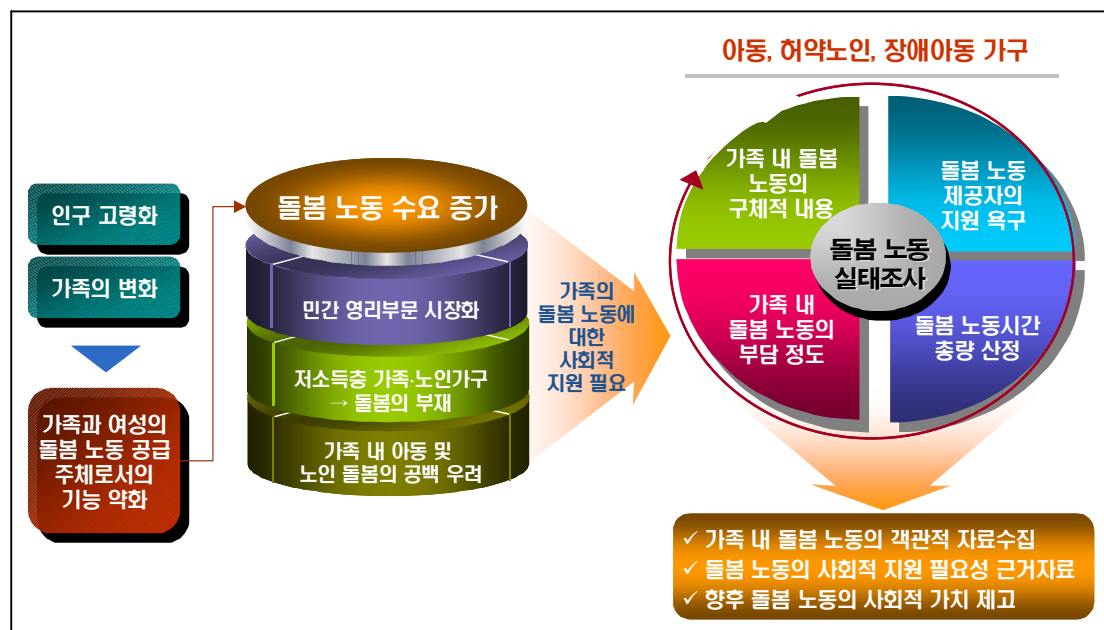
이에 2006년 본 연구는 장혜경외(2005)의 연구⁶⁾를 기초로 돌봄제공자 및 돌봄노동의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 돌봄제공자를 중심으로 돌봄의 구체적 내용과 돌보는 시간의 총량, 그리고 돌봄의 부담 및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다. 돌봄대상에 있어서 장혜경외(2005)의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그 유형과 등급이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돌봄조사는 예산이나 연구기간, 그리고 대상자체의 어려움이 커서 장애아동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과 장애아동, 그리고 노인이 중심으

5)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1999, 2004)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약 12,750가구의 만 10세이상 가구원(약33,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실제 행위로 드러난 행동에 대한 조사이다. 그런데 돌봄노동의 정의상 생활시간조사의 보살피기 행동은 그 개념이 매우 다르다. 돌봄노동은 “시간(실제적인 시간+대기시간)+노력+기술+사회적 기술+감정이입+스트레스(돌봄대상자에 대한 스트레스+관찰자나 규제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의되는데 즉 돌봄노동은 돌봄행동 그 자체 이외에 관계적인 측면과 일상적인 노동의 범주와 다른 정서적 노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제공자의 면접조사결과,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노동은 24시간 신경을 써야 하는 행동이라는 진술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들의 실제 행동자체는 돌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의 설계에 의하면 돌봄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잠자면서도 노인의 기척에 신경을 쓰게 되며, 또 유아의 경우에는 한밤 수유나 기저귀 갈기 등 잠을 자면서도 아이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 시간들이 잠자기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시간조사는 행동으로 하지 않는 돌봄노동 시간이나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6) 주요내용은 (1)돌봄노동의 사회적 이슈화의 배경과 특성 및 사회적 지원정책 유형, (2) 외국의 가족내 돌봄노동지원정책, (3) 한국 가족내 돌봄노동 현실 및 관련 정책 현황, (4)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안 등이다.

로. 본 연구의 결과는 2007년에 수행될 ‘시장과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가치계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내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직무 및 근로조건 등의 인력정책수립을 도모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범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2. 돌봄노동 정의와 지원정책 유형

가. 돌봄노동의 정의

돌봄노동 = 시간 (실제적인시간+“대기시간”) + 노력 + 기술 + 사회적기술 + 감정이입 + 스트레스 (돌봄대상자에 대한 스트레스+관찰자나 규제자에 대한 스트레스)*

* Standing(2001)

나. 돌봄 지원 정책유형

	비공식 돌봄	공식 돌봄
전통적 형태	관계에 기반(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 대상자의 집에서 수행 무급	전문적 돌봄 대상자의 집/ 공식시설에서 수행 유급
돌봄정책의 변화	현금지급제도 도입 (돌봄수당/간병수당/양육수당/보육수당) 세액공제제도(tax credit) 바우처(특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크레딧 시스템 조세감면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보편적 이용권리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질문지 및 시간일지조사: 2006년 8월 1일 - 9월 28일

1) 질문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아동	허약노인	장애아동
배경 특성	가구원 현황	○	○	○
	주돌봄자 특성 및 가족관계	○	○	○
	돌봄대상자의 가족관계	-	○	-
돌봄 상황	돌봄대상자의 특성	○	○	○
	불편 상황	-	○	○
	돌봄비용 현황	○	○	○
	서비스와 시설 이용현황	○	○	○
	교육시설 이용현황	○	-	○
	유급도우미 현황	○	○	○
	부돌봄자 현황	○	○	○
	가정교사 현황	-	-	○
	가족 및 친척의 지원 현황	○	○	○
	돌봄으로 인한 갈등	○	○	○
돌봄 스트레스	돌봄지원 정책욕구, 만족도	○	○	○
	돌봄 스트레스 척도	○	○	○

2) 시간일지의 돌봄코드 내용과 세부분항수

구분	아동		장애아동		허약노인	
	돌봄코드	문항수	돌봄코드	문항수	돌봄코드	문항수
1	위생	7	개인위생	8	개인위생	7
2	식사	11	배변	7	이동	6
3	가사활동	6	식사	6	식사	4
4	정서	5	취침	3	배설	5
5	취침	3	이동	6	가사활동	9
6	배설	6	교육	11	외출	8
7	외출	6	문제행동대처	4	치료 및 재활	11
8	의료·간호	5	의료·간호	6	정서적 활동	5
9	교육	7	정서적 활동	6	그 외 감시관련	3
10	기타	-	가사활동	5	기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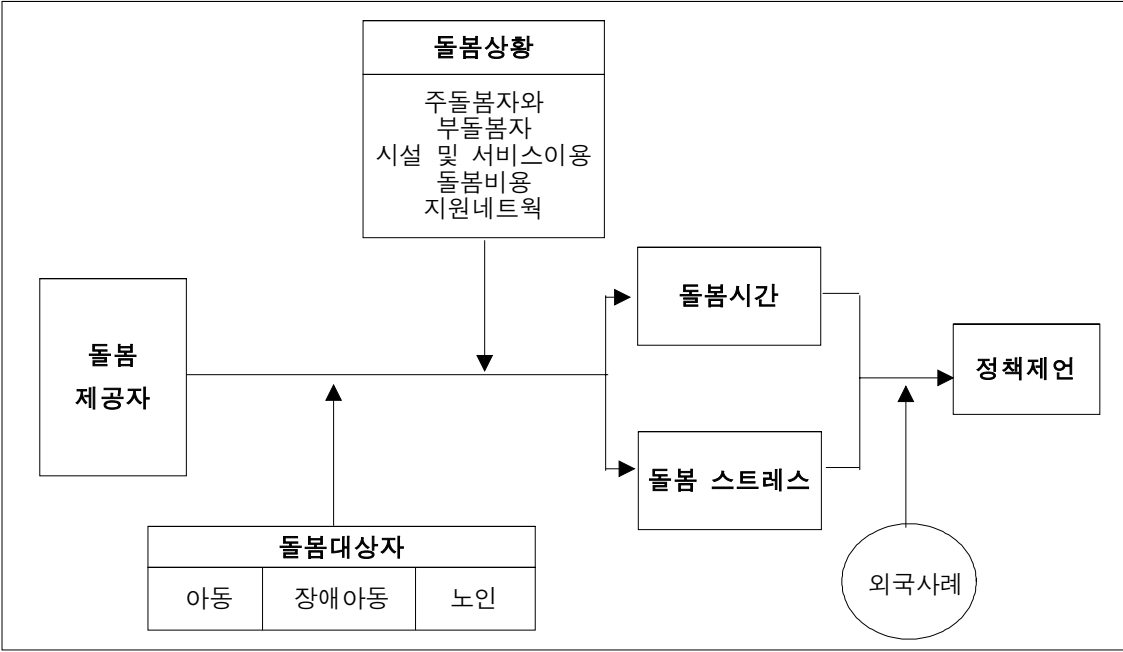
3) 표본 설계

구 분	전체 표본수	아동	장애아동	허약노인
서 울	500명	200명	100명	200명
경 기	500명	200명	100명	200명

4) 주요국가의 관련 연구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 영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5)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흐름도



제2장. 장애아동 돌봄과 정책방향*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본 글은 장혜경 선임연구위원과 김고은 위촉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제1절. 연구배경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의 출현은 그 가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 내 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며 장애자녀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장애자녀의 특수성에 따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는다. 특히 가족 중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Primary care give)이 있게 되는데 이 역할은 주로 어머니가 맡고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책임까지 져야하므로 장애아동 출현은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일반양육이외에 자녀의 장애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여타 가족원과의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족현실에 직면하게 됨을 말해준다.

장애아동 가족은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장기간의 의존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출생은 그 부모와 가족들로 하여금 특수하면서도 지속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갖게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반응결여와 발달지체로 인한 실망감, 좌절 등의 심리적 불안정, 양육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장애로 인한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자녀 돌보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등이다. 더욱이 장애아동 부모들은 양육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훨씬 심각한데 자녀들을 돌보는데 되풀이되는 수면부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돌봄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돌봄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가족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되고 있어 돌봄제공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아동 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장애아동 돌봄상황과 돌봄제공자의 구체적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수는 장애아동이 있는 200가구의 돌봄 제공자이며 돌봄대상 장애아동은 만9세까지로 하였다. 이는 각 연령별 과업이 다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족의 생활주기에서 오는 위기가 다르다는 가족생활주기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기는 사회통합을 시작하는 시기로서의 독특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들의 부담감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에 기반하여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장애기준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아동일 경우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다운), 1~3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6급 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영·유아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반적 발달장애(PDD)나 발달장애(DD)라는 범주로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하였다. 돌봄제공자에서 주돌봄자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부돌봄자는 남편, 시어머니, 이웃 등 주돌봄자 다음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고려하였으며 유급도우미는 부돌봄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①만0~3세(영유아기)가구 ②만4~6세(학령전)가구 ③7~9세((저학년)가구)로 구분하여 각 70명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4개의 장애유형(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뇌성마비, 지체장애)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취업 중인 주돌봄자, 교육기관이나 시설 이용 여부에서 학령 전·후로 기관이나 시설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유급도우미 이용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시점에서 방학 중인 장애아동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의 어려움

장애인 관련 단체나 학회 등에서 장애현황에 관련된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 응답자들의 부담이 컸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강하게 나타나 조사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 특히 장애 장애등급이 낮은 아동의 부모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장애아동의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로 인해 너무 많은 돌봄활동들이 드러나 돌봄코드 작성에 어려움이 컸으며 장애아동을 돌보면서 돌봄자들이 시간일지를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3. 조사도구

가. 설문지

구성	문항
돌봄제공자특성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소득, 자녀수
장애아동특성	장애진단명, 진단시기, 등록카드 발급여부, 장애종류, 장애정도, 일상생활도움정도, 주관적 장애정도,
돌봄상황	장애자녀의 정규기관이나 시설/비정규기관이나 시설 이용현황 유급도우미 현황, 부돌봄자 현황, 가정교사 현황, 장애자녀 양육비 현황 장애자녀 돌봄의 지원네트워크 주돌봄자의 돌봄현황(돌봄갈등, 생활만족도, 취업변화)
지원정책	장애자녀 돌봄 지원정책 욕구조사
돌봄 스트레스	신체적 부담감, 정서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나. 돌봄코드와 시간일지

돌봄코드는 선행연구 및 일본 厚生労働科学研究所の「新しい要介護認定方法開発のための基礎的研究」의 장애자를 위한 “케어코드 일람”(2004)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장애아동 돌봄코드는 10개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코드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	① 세수시키기 ② 머리감기 ③ 목욕시키기 ④ 양치질 시키기 ⑤ 얼굴정돈 시키기 (로션바르기 등) ⑥ 옷입히기 ⑦ 옷벗기기 ⑧ 기타 개인위생	교육 • 교육에 함께 참여 • 교육참관 및 상담 • 교육 중 기다리기 • 가정에서의 주돌봄자의 직접 교육	① 정규교육 ② 조기교실 ③ 방과후교실 ④ 작업치료 ⑤ 언어치료 ⑥ 놀이치료 ⑦ 심리(음악)치료 ⑧ 물리치료 ⑨ 기타치료 ⑩ 체육, 미술, 음악 등의 개별활동 ⑪ 기타 교육
배변	① 배설시 이동 ②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③ 소변관리 ④ 대변관리 ⑤ 기저귀갈기 ⑥ 배설처리 ⑦ 기타배변	문제행동대처	① 문제행동 발생시 대응 ② 문제행동 예방 대응 ③ 문제행동 예방 훈련 ④ 기타 문제행동 대처

(계속)

식 사	① 식사준비 ② 간식준비 ③ 간식먹이기 ④ 밥먹이기 ⑤ 설거지 및 치우기 ⑥ 기타 식사	의료, 간호	① 약물치료 ② 약물투여 ③ 병원데려가기 ④ 예방접종 ⑤ 간호하기 ⑥ 기타 의료, 간호
취 침	① 취침준비 ② 아이 재우기 ③ 기타 취침	정서적 활동	① 노는 것 지켜보기 ② 아이와 대화하기 ③ 아이와 놀아주기 ④ 기타 애정 관련 행동들 ⑤ 아이 관련 행사 참여 ⑥ 기타 정서적 활동
이 동	① 가정 내 이동 ② 체위변경 ③ 실외이동(학교, 학원, 복지관, 병원 등 이동) ④ 교회, 성당, 절 ⑤ 문화행사관람 ⑥ 기타 이동	가사활동 관련	① 청소하기 ② 빨래하기 ③ 장보기 ④ 정리정돈(장난감 및 자녀물품정리 포함) ⑤ 기타 가사활동

제3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돌봄자(장애아동의 어머니)의 특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응답자 200명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44.0%, 대학교 졸업이 43.5%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혼인형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아동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연령이 30대가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어머니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업모는 15%였으며, 비취업모 중 77%가 취업경험이 있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중단율이 높았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총소득은 151-300만원이하가 51.5%, 150만원이하가 23.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응답가구의 소득이 높지 않았다.

〈표 2-1〉 돌봄자(장애아동 어머니)의 특성

구분			빈도 (명)	비 율 (%)
연령	20대		15	7.5
	30대		141	70.5
	40대		42	21.0
	50대 이상		2	1.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7	7.0
	고등학교 졸업		88	44.0
	대학졸업		87	43.5
	대학원 졸업 이상		11	5.5
혼인형태	배우자 있음		193	96.5
	이혼		5	2.5
	사별		1	0.5
	별거		1	0.5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	1.5
	나쁜 편이다		36	18.0
	보통이다		81	40.5
	좋은편이다		74	37.0
	매우 좋다		6	3.0
취업여부	취업모		30	15.0
	비취업모	취업경험 있음	154	77.0
		취업경험 없음	16	8.0
가구 총소득	150만원 이하		47	23.5
	151-300만원		103	51.5
	301-450만원		42	21.0
	450-600만원		2	1.0
	601만원 이상		6	3.0
전체			200	100.0

나. 장애아동의 특성

1) 장애아동의 개인적 특성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자 아동의 비중이 여자 아동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장애아동 연령의 경우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30.0%, 만 4-6세 아동이 34.5%, 만 7-9세 아동이 35.5%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집과정에서 고려한 것에 기인한다. 형제서열상으로는 첫째가 53%로 가장 많았다(<표 2-2> 참조).

〈표 2-2〉 장애아동 특성

구분		빈 도 (명)	비 율 (%)
성별	남자	135	67.5
	여자	65	32.5
연령	만 3세 이하	60	30.0
	만 4-6세	69	34.5
	만 7-9세	71	35.5
형제서열	첫째	106	53.0
	둘째	76	38.0
	셋째 이상	18	9.0
전체		200	100.0

2) 장애관련 특성

장애아동의 장애관련 특성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정신 지체아동이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자녀의 장애정도는 중증 49%, 보통 40%, 경증 1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가 심한정도로 나타났다. 조사된 장애아동 중 96.5%가 장애인등록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장애인등록카드의 장애등급은 장애아동의 70% 이상이 1급과 2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표 2-3〉 장애아동의 장애관련 특성

구분		빈 도 (명)	비 율 (%)
장애유형	정신지체	68	34.0
	발달장애	53	26.5
	뇌병변장애	61	30.5
	지체장애	17	8.5
	무응답	1	0.5
장애정도	경증	22	11.0
	보통	80	40.0
	중증	98	49.0
등록카드 발급여부	예	193	96.5
	아니오	7	3.5
장애등급 (N=193)	1급	85	44.0
	2급	60	31.1
	3급	36	18.7
	4급	5	2.6
	5급	4	2.1
	6급	2	1.0
	무응답	1	0.5
전체		200	100

2. 돌봄상황

가. 가족 내 주돌봄자와 부돌봄자

1) 주돌봄자(장애아동 어머니)

장애아동의 주돌봄자는 장애아동의 어머니이다.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어머니 주도의 자녀돌봄형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과 의존성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여전히 주돌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주돌봄자의 취업관련 사항들을 보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취업모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취업모는 30명이었는데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들의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근무지나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가 60%였다. 직장생활에서의 변화는 근로시간 단축 72.2%였으며 직종변경이 33.3%, 집근처로 직장을 이동한 경우가 11.1%로 나타나고, 이들 중 76.7%가 현재 직장생활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돌봄자의 직장생활 지속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표 2-4〉 장애아동 취업모의 취업상황변화

구분		빈도 (명)	비율 (%)
근무지나 근무조건 변경여부(N=30)	있음	18	60.0
	없음	12	40.0
직장생활의 변화 (N=18, 복수응답)	근로시간 단축	13	72.2
	직종변경	6	33.3
	집근처로 직장이동	2	11.1
	근무시간 변경	1	5.6
	간병 휴직	1	5.6
직장생활중단 고려여부 (N=30)	있음	23	76.7
	없음	7	23.3

나) 비취업모 현황

비취업모 170명 중심으로 이들 중 90.6%가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직장중단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직장생활 중단 시기에 있어서 결혼 전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과 직장양립이 여성에게 어려운 현실을 일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응답의 20%이상이 장애자녀 출산 후와 이후 양육에 직장을 그만두어 장애자녀돌봄이 어머니의 직장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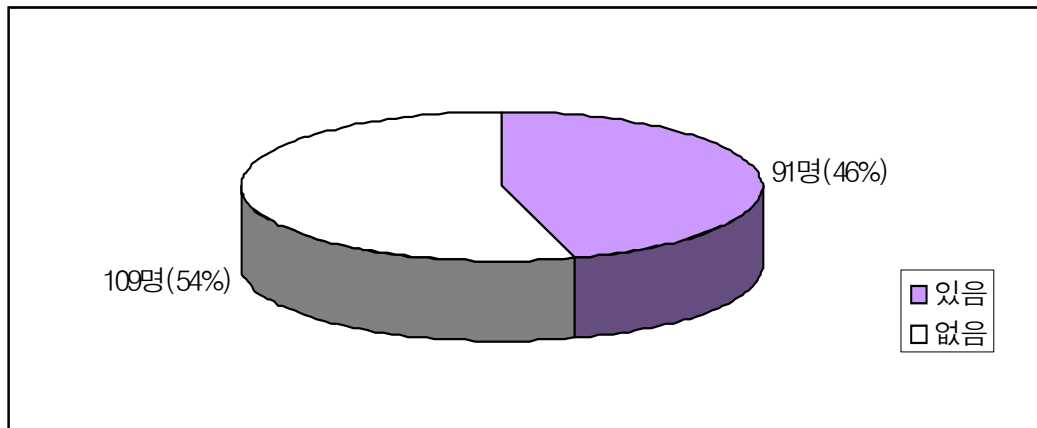
〈표 2-5〉 비취업모의 직장생활 현황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장생활 경험여부 (N=170)	있음	154	90.6
	없음	16	9.4
직장생활 중단시기 (N=154)	결혼전	67	43.5
	비장애자녀 출산전	13	8.4
	비장애자녀 출산후	13	8.4
	장애자녀 출산전	23	14.9
	장애자녀 출산후	26	16.9
	장애와 상관없음	6	3.9
	장애발견 후	2	1.3
	장애아 취학후	1	0.6
	장애자녀 입학시	2	1.3
	무응답	1	0.6

2) 부돌봄자

가) 부돌봄자와 주돌봄자와의 관계

장애아동가족의 부돌봄자는 주돌봄자인 어머니를 제외한 남편이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웃이나 주위사람들을 지칭하였다.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5.5%였다(<그림 2-1>). 부돌봄자들을 보면 남편이 81.3%로 가장 높았으며 친정어머니가 8.8%, 시어머니가 6.6% 그리고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이모가 1.1%였다(<표 2-6>). 주로 남편이 부돌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주돌봄자에게 남편의 지원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림 2-1〉 부돌봄자 이용비율

〈표 2-6〉 부돌봄자와의 관계

구분		빈도 (명)	비율 (%)
부돌봄자 (N=91)	남편	74	81.3
	시아버지	1	1.1
	시어머니	6	6.6
	친청어머니	8	8.8
	친정아버지	1	1.1
	이모	1	1.1

나) 장애아동과 주돌봄자의 주요 특성별 부돌봄자 상황

만3세이하 아동의 55%가 부돌봄자가 있었으며 만4-9세아동에 비해 부돌봄자 이용 비율이 높았고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아동이 부돌봄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일수록 부돌봄자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장애가 심할수록 돌봄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애특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부돌봄자의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부돌봄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모들은 그 특성상 부돌봄자의 돌봄이 있었으나 응답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취업모들이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돌봄자의 역할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장애아동과 주돌봄자의 주요특성별 부돌봄자 상황

구분		있음		없음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91	45.5	109	54.5	200(100.0)
아동연령 (N=200)	만 3세 이하	33	55.0	27	45.0	60(100.0)
	만 4-6세	32	46.4	37	53.6	69(100.0)
	만 7-9세	26	36.6	45	63.4	71(100.0)
장애유형 (N=200)	정신지체	28	41.2	40	58.8	68(100.0)
	발달장애	22	41.5	31	58.5	53(100.0)
	뇌병변장애	33	54.1	28	45.9	61(100.0)
	지체장애	8	47.1	9	52.9	17(100.0)
	무응답	0	0.0	1	100	1(100.0)
장애정도 (N=200)	경증	12	54.5	10	45.5	22(100.0)
	보통	42	52.5	38	47.5	80(100.0)
	중증	37	37.8	61	62.2	98(100.0)
모 취업여부 (N=200)	취업모	17	56.7	13	43.3	30(100.0)
	비취업모	74	43.5	96	56.5	170(100.0)
가구 총소득 (N=200)	150만원 이하	21	44.7	26	55.3	47(100.0)
	151-300만원	40	38.8	63	61.2	103(100.0)
	301-450만원	25	59.5	17	40.5	42(100.0)
	450-600만원	2	100.0	0	0.0	2(100.0)
	601만원 이상	3	50.0	3	50.0	6(100.0)

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1) 기관이용

가) 정규교육기관 이용

정규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초등학교 완전통합, 부분통합,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조기교육실, 사설조기교육기관, 특수어린이집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8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아동의 94.3%가 정규교육기관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장애정도 면에서는 경한 아동이 90.9%, 보통인 아동이 90%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고 중증인 아동은 7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8〉 장애아동 특성별 정규교육기관 이용율

(단위: %)

구분		이용하고 있음	이용하고 있지 않음	계
전체		166(83.0)	34(17.0)	200(100.0)
아동연령 (N=200)	만 3세 이하	39(65.0)	21(35.0)	60(100.0)
	만 4-6세	60(87.0)	4(13.0)	69(100.0)
	만 7-9세	67(94.4)	4 (5.6)	71(100.0)
장애유형 (N=200)	정신지체	57(83.8)	11(16.2)	68(100.0)
	발달장애	50(94.3)	3 (5.7)	53(100.0)
	뇌병변장애	45(73.8)	16(26.2)	63(100.0)
	지체장애	14(82.4)	3(17.6)	17(100.0)
	무응답	0(0.0)	1(100)	1(100.0)
장애정도 (N=200)	경증	20(90.9)	2 (9.1)	22(100.0)
	보통	72(90.0)	8(10.0)	80(100.0)
	중증	74(75.5)	24(24.5)	98(100.0)

정규교육기관별 이용율을 장애아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만3세이하의 아동들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의 이용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아동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조기교육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4~6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7~9세의 경우는 학령기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율이 25.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장애특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장애 모두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이 많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경증, 보통인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중증아동은 특성상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표 2-9〉 정규교육기관별 이용율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복지관	사설조기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특수 어린이집	초등학교 완전통합	초등학교 부분통합	특수 학교	계
전체		45(27.1)	4(2.4)	66(39.8)	14(8.4)	20(12.0)	12(7.2)	5(3.0)	166(100.0)
아동 연령 (N=166)	만 3세이하	21(53.8)	0(0.0)	15(38.5)	3(7.7)	0(0.0)	0(0.0)	0(0.0)	39(100.0)
	만 4-6세	16(26.7)	3(5.0)	34(56.7)	5(8.3)	1(1.7)	0(0.0)	1(1.7)	60(100.0)
	만 7-9세	8(11.9)	1(1.5)	17(25.4)	6(9.0)	19(28.4)	12(17.9)	4(6.0)	67(100.0)
장애 유형 (N=166)	정신지체	14(8.4)	0(0.0)	21(12.7)	3(1.8)	9(5.4)	7(4.2)	3(1.8)	57(100.0)
	발달장애	11(6.6)	3(1.8)	22(13.3)	4(2.4)	4(2.4)	5(3.0)	1(0.6)	50(100.0)
	뇌병변장애	18(10.8)	1(0.6)	16(9.6)	6(3.6)	6(1.8)	0(0.0)	1(0.6)	45(100.0)
	지체장애	2(1.2)	0(0.0)	7(4.2)	1(0.6)	4(2.4)	0(0.0)	0(0.0)	14(100.0)
장애 정도 (N=166)	경증	6(30.0)	0(0.0)	10(50.0)	0(0.0)	3(15.0)	1(5.0)	0(0.0)	20(100.0)
	보통	16(22.2)	2(2.8)	37(51.4)	3(4.2)	7(9.7)	6(8.3)	1(1.4)	72(100.0)
	중증	23(31.1)	2(2.7)	19(25.7)	11(14.9)	10(13.5)	5(6.8)	4(5.4)	74(100.0)

나) 비정규기관 이용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규기관학교 이외에 장애 개선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정규기관으로 병원클리닉, 사설치료실, 장애인복지관 개별 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일반학원 등이 있다. 장애아동들의 비정규기관의 이용율은 78.5%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과 주돌봄자의 특성별로 비정규기관이용실태를 살펴보면, 3세미만의 이용율이 83.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장애유형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아동이 지체장애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중증에 비해 경증 및 보통의 아동들의 비정규교육기관 이용율이 높았는데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기관이 부족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족의 이용율이 낮았는데 비용부담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0〉 비정규교육기관 이용율

(단위: 명, %)

구분		이용하고 있음	이용하고 있지 않음	계
전체		157(78.5)	43(21.5)	200(100.0)
아동연령 (N=200)	만 3세 이하	50(83.3)	10(16.7)	60(100.0)
	만 4-6세	55(79.7)	14(20.3)	69(100.0)
	만 7-9세	52(73.2)	19(26.8)	71(100.0)
장애유형 (N=200)	정신지체	56(82.4)	12(17.6)	68(100.0)
	발달장애	43(81.1)	10(18.9)	53(100.0)
	뇌병변장애	51(83.6)	10(16.4)	61(100.0)
	지체장애	7(41.2)	10(58.8)	17(100.0)
장애정도 (N=200)	경증	18(81.8)	4(18.2)	22(100.0)
	보통	67(83.8)	13(16.3)	80(100.0)
	중증	72(73.5)	26(26.5)	98(100.0)
가구 총소득 (N=200)	150만원 이하	28(59.6)	19(40.4)	47(100.0)
	151-300만원	87(84.5)	16(15.5)	103(100.0)
	301-450만원	35(83.3)	7(16.7)	42(100.0)
	450-600만원	2(100.0)	0(0.0)	2(100.0)
	601만원 이상	5(83.3)	1(16.7)	6(100.0)

다. 돌봄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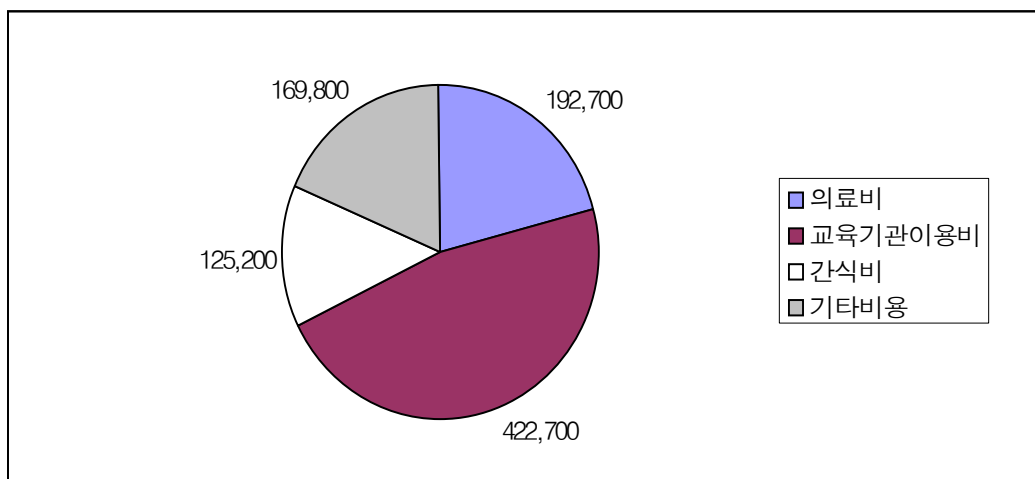
1) 비용지출 여부 및 지출비용 정도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한 지출비용을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료비는 192,700원, 간식비 125,200원, 교육기관 이용비 422,700원, 기타비용 169,800원이었다. 유급도우미와 가정교사 이용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의료, 기관이용 등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장애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월평균 지출비용은 777,300원이었다. 이들 가정의 전반적 가구소득을 고려해 볼 때 장애자녀관련 지출비용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2-11〉 장애아동 돌봄비용

(단위: 원)

항 목	평 균
의료비(N=163)	192,700
교육기관 이용비(N=153)	422,700
간식비(N=191)	125,200
기타비용(N=137)	169,800
도우미 이용비(N=4)	660,000
가정교사 이용비(N=16)	122,800
6개월 기준 월평균 비용	777,300



〈그림 2-2〉 장애아동 돌봄비용

2) 비용부담정도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의료서비스나 교육, 재활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장애아동 가족의 평균 가구 총소득액을 2,407,500⁷⁾원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한 달 총 양육비용인 777,300원은 장애아동가구 총 소득의 3분의 1로 매우 높다. 또한 교육기관이용비는 가구총소득의 17.6%를, 의료비는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한국 가구의 가계수지와 비교해 보면 그 부담정도를 매우 큼을 말해준다. 통계청의 2006년도 현재 전가구 가계수지 기본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가구의 총 소득은 3,056,825원이고 총소비지출액은 2,082,998원이었다. 총소비지출 세부영역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기타소비지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교육비는 202,651원으로 소득의 6.63%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비는 109,613원으로 소득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장애아동가족의 지출비와 비교해보면 교육비는 3배정도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가계수지조사가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 장애자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과 그로 인한 고용상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아동의 돌봄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표 2-12〉 가구소득별 지출비율

(단위: 원, %)

	장애아동가족	한국 전가구
가구 총소득	2,407,500	3,056,825
교육비	422,700(17.6)	202,651(6.63)
보건의료비	192,700 (8.0)	109,613 (3.58)

자료: 2006 통계청

라. 지원네트워크

장애아동가족의 지원네트워크는 앞의 91명의 부돌봄자 현황과 동일하였으며 지원망은 남편과 부모형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의 지원은 시간적으로는 평균 1주일에 4.53일, 1일 3.78시간정도였다(부돌봄자들에게 비용지불은 여섯 경우가 있었는데 평균 60만

7) 조사가구의 평균총소득액은 가구소득의 각 중간값 ×빈도수 / 총인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4천원의 지불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장애아동의 주돌봄자인 어머니가 일반가사와 양육이외에도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 돌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망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지원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아동의 돌봄과 관련하여 가족 및 친인척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서 200명중 12명만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여 장애자녀를 둔 가족과 주돌봄자의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

3. 장애아동 돌봄노동 시간

가. 돌봄코드별 주돌봄자 및 부돌봄자의 주중/주말 시간

1)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돌봄시간

<표 2-13>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전체 돌봄시간은 13시간 16분이고 주중 돌봄시간은 13시간 4분, 주말 돌봄시간은 13시간 39분이었다. 전체 돌봄시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식사활동으로 3시간 39분이었고 장애자녀의 이동활동으로 인한 돌봄이 2시간 13분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를 위한 정서적활동이 1시간 38분, 교육활동이 1시간 33분으로 나타났고 개인위생활동, 취침활동, 배변활동, 의료간호활동, 문제행동대처 순이었다. 문제행동 대처시간은 장애특성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돌봄자들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발생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는 식사나 위생활동, 이동 등 생활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전체 문제행동대처시간은 9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장애아동들의 평균시간차원에서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장애특성상 돌봄자들에게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돌봄자의 문제행동대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돌봄시간조사 중 문제행동대처 시간과 관련하여, 6세의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를 보면 돌봄시간을 통해 나타난 실제상황은 보다 명백하다. 이 사례의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인 틱행동⁸⁾, 소리지르기, 상동행동 등으로 많은 돌봄시간을 문제행동 대처에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시간 7시간 중 아이의 틱행동으로 인해 자가 깨다를 반복하며 2시간가량을 아이가 소리를 못 지르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제지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하루 일과 중에도 잠시 아이를 보지 않는 사이, 가

8) 틱(tic)은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반복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동적 근육의 움직임이나 발성을 뜻한다. 여기에는 뚜렛장애,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일과성 틱장애가 있다. 뚜렛장애는, 다양한 운동 틱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는, 동시에 1-3개의 근육군이 틱을 보이거나 음성 틱이 적어도 1년 이상 있는 경우이다. 일과성 틱장애는, 단일의 또는 다양한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하루에 여러번 거의 매일같이 최소 4주 이상 12개월 이내로 지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스레인지 불에 다가가거나 대소변으로 장난을 하고 물장난을 하는 등의 문제행동에 대처하고 식사시간이나 수퍼 혹은 식당이용시에는 떼쓰는 행동을 제지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야외놀이를 할 때 돌봄자가 아파서 잠시 약을 먹는 사이 아이가 없어져서 찾으러 다니느라 3시간 반가량을 소요하였다.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아동을 둔 다른 사례들에서도 계속 울거나 떼쓰는 행동이 심하여 주 돌봄자가 기운이 없어서 방치하는 시간들도 있었다. 또한 장애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코드 장난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행동, 물장난, 물건 던지는 행동 등 산만하여 통제가 안되는 것 등에 대해 대처하는 소요시간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에서도 간식이나 밥을 먹을 때에 편식이 심하거나 뱉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어 돌봄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대소변처리에 대처하는 시간 등이 많이 기록됨으로써 잠시라도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세부 활동에는 그 한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개인적인 시간활용이 어렵거나 신체적, 정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문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13〉 주돌봄자(어머니) 돌봄시간

	전체	주중	주말
개인위생활동	59분	59분	58분
배변활동	20분	19분	22분
식사활동	3시간 39분	3시간 26분	4시간 7분
취침활동	43분	43분	46분
이동활동	2시간 13분	2시간 13분	2시간 8분
교육활동	1시간 33분	1시간 33분	56분
문제행동대처	9분	9분	8분
의료, 간호활동	20분	22분	16분
정서적 활동	1시간 38분	1시간 20분	2시간 13분
가사활동	1시간 42분	1시간 41분	1시간 46분
평균돌봄시간총량	13시간 16분	13시간 4분	13시간 39분

본 연구에서의 돌봄시간총량 13시간 16분은 이한우(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인 10시간 59분보다 많은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한우의 연구에서 비교한 한국근로자가족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인 7시간 35분보다 두 배에 가까웠다. 이한우의 연구에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은 조리 및 설거지, 청소주

생활관리, 세탁의생활관리, 자녀돌보기, 가족돌보기, 부모친척관련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장애자녀돌보기만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도 전체 가사노동 시간보다 두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의 영역별로 세부 조사한 결과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장애자녀의 돌봄에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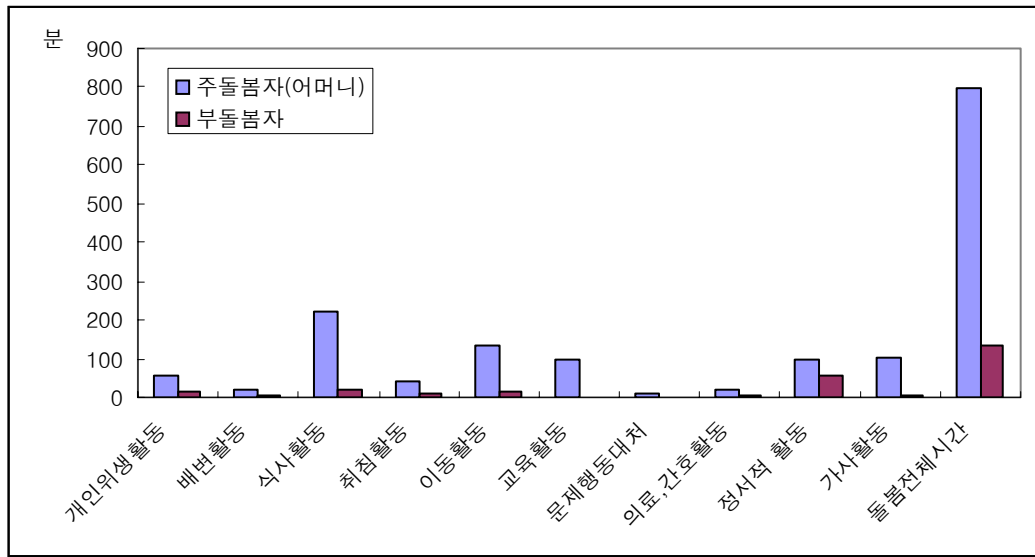
또한 보통의 경우, 주말의 자녀돌봄은 남편과 함께 하거나 다른 가족이 도와주기 때문에 주중보다 시간이 적은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는 주중보다 주말이 더욱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의 돌봄이 장애자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로 주돌봄자인 어머니들이 전적으로 돌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겠다.

2) 부돌봄자의 돌봄시간

부돌봄자의 총돌봄시간량은 2시간 15분이었으며 주중 1시간 44분, 주말 3시간 17분이었다. 주말돌봄시간은 정서적활동과 이동활동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났고 교육활동이나 문제행동대처, 의료간호 활동의 돌봄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되어 부돌봄자의 역할의 한계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돌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편의 도움도 주중과 주말 1시간 30분정도의 차이에 불과해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표 2-14〉 부돌봄자의 돌봄시간

	전체	주중	주말
개인위생활동	13분	11분	18분
배변활동	3분	3분	4분
식사활동	20분	20분	22분
취침활동	12분	10분	16분
이동활동	18분	14분	25분
교육활동	1분	1분	1분
문제행동대처	1분	1분	1분
의료, 간호활동	4분	4분	4분
정서적 활동	57분	36분	1시간 41분
가사활동	4분	3분	5분
돌봄전체시간	2시간 15분	1시간 44분	3시간 17분



〈그림 2-3〉 주돌봄자와 부돌봄자의 돌봄시간비교

나. 주요 변수별 돌봄시간 비교

1) 장애아동 연령별 비교

장애아동의 연령이 올라가도 총돌봄시간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장애특성상 계속적으로 돌봄자의 도움이 요구되며 그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사활동 시간과 취침활동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15〉 장애아동 연령별 돌봄시간 비교

구 분	장애아동 연령별 비교			F
	0-3세 (N=60)	4-6세 (N=69)	7-9세 (N=71)	
개인위생활동	58분	1시간	59분	.072
배변활동	27분	18분	17분	2.247
식사활동	4시간 7분	3시간33분	3시간 23분	5.900**
취침활동	55분	39분	35분	6.981**
이동활동	1시간 59분	2시간18분	2시간 19분	2.079
교육활동	1시간 26분	1시간26분	1시간 48분	2.233
문제행동대처	6분	13분	6분	1.072
의료, 간호활동	27분	20분	13분	2.801
정서적 활동	1시간 38분	1시간35분	1시간 40분	.142
가사활동	1시간 46분	1시간30분	1시간 55분	2.924
돌봄전체시간	13시간49분	12시간52분	13시간 11분	1.919

**p<.01

2) 장애유형별 돌봄시간 비교

지체장애아동의 돌봄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었고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는 비슷하였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 대처시간이 많이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 아동은 의료, 간호활동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배변활동, 이동활동, 정서적 활동, 가사활동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16〉 장애유형에 따른 비교

구 분	장애유형에 따른 비교				F
	정신지체 (N=68)	발달장애 (N=53)	뇌병변장애 (N=61)	지체장애 (N=17)	
개인위생활동	1시간	55분	1시간2분	55분	.978
배변활동	23분	9분	23분	27분	10.777***
식사활동	3시간51분	3시간24분	3시간46분	3시간9분	2.317
취침활동	44분	38분	45분	43분	.620
이동활동	2시간15분	2시간23분	2시간15분	1시간30분	3.539**
교육활동	1시간29분	1시간45분	1시간38분	1시간5분	1.402
문제행동대처	14분	11분	4분	1분	1.148
의료, 간호활동	18분	12분	29분	18분	1.961
정서적 활동	1시간29분	1시간59분	1시간30분	1시간39분	3.165*
가사활동	1시간59분	1시간37분	1시간35분	1시간15분	3.142*
돌봄전체시간	13시간41분	13시간14분	13시간25분	11시간3분	3.302*

* p<.05 ** p<.01 *** p<.001

3) 장애정도별 돌봄시간 비교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장애정도에 따라 특정 영역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배변활동과 이동활동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17〉 장애정도에 따른 돌봄시간 비교

구 분	장애정도에 따른 비교			F
	경증 (N=22)	보통 (N=80)	중증 (N=98)	
개인위생활동	50분	58분	1시간2분	2.148
배변활동	10분	15분	27분	5.144**
식사활동	3시간48분	3시간27분	3시간47분	1.647
취침활동	33분	39분	47분	2.295
이동활동	2시간17분	2시간27분	2시간	4.499**
교육활동	1시간36분	1시간37분	1시간30분	.261
문제행동대처	10분	7분	10분	.231
의료, 간호활동	27분	16분	21분	1.083
정서적 활동	1시간49분	1시간41분	1시간32분	1.090
가사활동	1시간42분	1시간40분	1시간44분	.065
돌봄전체시간	13시간42분	13시간9분	13시간20분	.122

** p<.01

4) 가구총소득별 비교

가구총소득 301-450만원이하의 집단의 돌봄시간이 13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았다. 601만원이상 집단은 도우미나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을 경제적 여유로 교육이나 정서적 활동에 돌봄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총소득에 의한 차이는 교육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18〉 가구 총소득에 따른 돌봄노동시간 비교

구 분	가구 총소득에 따른 비교					F
	150만원 이하 (N=47)	151-300만원 이하 (N=103)	301-450만원 이하 (N=37)	451-600만원 이하 (N=7)	601만원 이상 (N=6)	
개인위생활동	57분	59분	1시간2분	55분	51분	.363
배변활동	24분	20분	17분	15분	10분	.544
식사활동	3시간43분	3시간38분	3시간50분	3시간10분	3시간5분	.764
취침활동	46분	44분	36분	27분	58분	1.270
이동활동	1시간51분	2시간19분	2시간28분	2시간11분	1시간49분	2.594
교육활동	1시간6분	1시간36분	1시간51분	1시간55분	2시간15분	3.323**
문제행동대처	12분	7분	10분	7분	16분	.290
의료, 간호활동	18분	23분	14분	16분	21분	.591
정서적 활동	1시간22분	1시간45분	1시간36분	1시간21분	2시간6분	1.693
가사활동	1시간53분	1시간43분	1시간37분	1시간23분	56분	1.822
돌봄전체시간	12시간31분	13시간34분	13시간41분	12시간1분	12시간4분	.524*

* p<.05 ** p<.005

5) 부돌봄자 이용별 돌봄시간 비교

부돌봄자를 이용하는 하는 경우 13시간3분과 이용하지 않는 경우 13시간 26분을 비교 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 부돌봄자의 이용은 주돌봄자의 시간 축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사활동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돌봄자들이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시간보다 그 외의 가사활동시간에 더욱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19〉 부돌봄자 이용여부별 돌봄시간 비교

구 분	부돌봄자 이용여부에 관한 비교		t
	부돌봄자 이용 (N=91)	부돌봄자 비이용 (N=109)	
개인위생활동	58분	59분	-.305
배변활동	21분	20분	.340
식사활동	3시간34분	3시간44분	-.863
취침활동	44분	41분	.636
이동활동	2시간12분	2시간13분	-.170
교육활동	1시간31분	1시간36분	-.456
문제행동대처	11분	7분	1.009
의료, 간호활동	18분	21분	-.489
정서적 활동	1시간36분	1시간39분	-.378
가사활동	1시간37분	1시간47분	-1.328*
돌봄전체시간	13시간3분	13시간26분	3.1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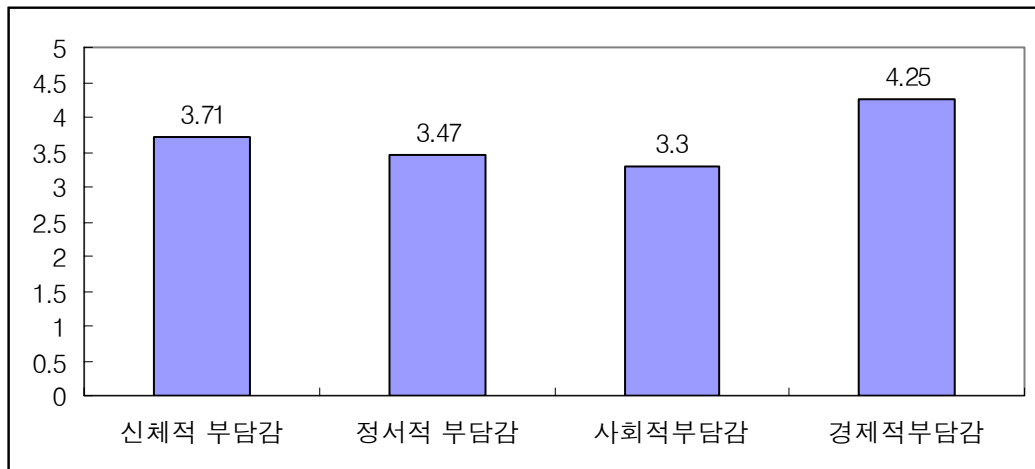
#p<.01 *p<.05

위의 논의를 요약해 볼 때 전반적으로 돌봄노동시간 총량은 주요 특성들 중 아동의 장애유형과 부돌봄자 이용여부, 그리고 돌봄비용 등이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책수립 시 고려해 보아야 부분이다.

4. 장애아동돌봄의 심리정서적 부담정도

심리정서적 부담감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그림 2-4>와 같다. 전체 돌봄부담감은 3.61점으로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부담감 중 경제적 부담감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부담감이 3.71점, 정서적 부담감이 3.47점, 사회적 부담감이 3.3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 돌봄에 있어 경제적 문제의 절실함을 나타내주며 전반적인 높은 부담감은 주돌봄자가 신체적, 정신적 휴식과

사회활동참여의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2-4〉 장애아동 돌봄부담정도

주돌봄자의 특성, 장애아동 특성, 돌봄상황의 주요 변인들과 장애아동 돌봄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2-20>과 같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이 돌봄부담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담감과 사회적 부담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가구총소득은 전체부담감과 경제적 부담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동의 장애정도는 전체돌봄부담감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정도가 중증인 집단일수록 부담감이 높았으며, 아동의 장애유형은 사회적 부담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발달장애 아동이 가장 부담감이 높았다. 이는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상 상동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돌봄자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20〉 각 영역별 심리적 돌봄부담정도

구분		신체적 부담감	정서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전체 부담감
연령	20대	3.94 (.71)	3.49 (.93)	3.54 (.91)	4.43 (.64)	3.77 (.63)
	30대	3.60 (.85)	3.41 (.74)	3.19 (.96)	4.19 (.78)	3.51 (.70)
	40대	4.04 (.68)	3.69 (.73)	3.63 (.84)	4.44 (.61)	3.88 (.61)
	50대	3.33 (1.89)	3.71 (.00)	3.25 (1.06)	3.40 (.28)	3.41 (.83)
	F값 (P)	3.722 (.012)	1.647 (.180)	2.793 (.042)	2.461 (.064)	3.599 (.015)
가구 총소득	150만원 이하	3.75 (.79)	3.54 (.68)	3.39 (.84)	4.45 (.59)	3.69 (.59)
	151-300만원	3.81 (.78)	3.49 (.78)	3.40 (.95)	4.34 (.68)	3.68 (.68)
	301-450만원	3.41 (.92)	3.45 (.81)	2.97 (1.01)	3.95 (.90)	3.36 (.78)
	451-600만원	3.40 (.98)	3.06 (.79)	3.01 (.87)	3.89 (.32)	3.27 (.53)
	601만원 이상	3.89 (1.12)	3.45 (.57)	3.45 (.93)	3.60 (1.21)	3.57 (.82)
	F값 (P)	1.925 (.108)	.617 (.651)	1.755 (.140)	4.541 (.002)	2.101 (.042)
아동 연령	만3세 이하	3.84 (.80)	3.49 (.79)	3.30 (.93)	4.24 (.82)	3.63 (.66)
	만4-6세	3.71 (.78)	3.42 (.71)	3.19 (.97)	4.35 (.58)	3.57 (.65)
	만7-9세	3.61 (.91)	3.52 (.78)	3.42 (.92)	4.17 (.81)	3.62 (.76)
	F값 (P)	1.311 (.272)	.326 (.722)	1.005 (.368)	1.062 (.348)	.165 (.848)
장애 정도	경증	3.07 (.93)	3.40 (.92)	2.69 (1.04)	3.97 (.91)	3.18 (.82)
	보통	3.41 (.83)	3.25 (.78)	2.95 (.89)	4.18 (.77)	3.34 (.68)
	중증	4.11 (.60)	3.68 (.64)	3.74 (.75)	4.38 (.65)	3.92 (.51)
	F값 (P)	29.027 (.000)	7.680 (.001)	25.801(.000)	3.526(.031)	24.674(.0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3.72 (.78)	3.43 (.67)	3.34 (.80)	4.28 (.62)	3.61 (.56)
	발달장애	3.62 (.95)	3.53 (.89)	3.48 (.96)	4.20 (.82)	3.65 (.80)
	뇌병변장애	3.86 (.70)	3.50 (.76)	3.23 (.93)	4.32 (.74)	3.63 (.65)
	지체장애	3.38 (1.03)	3.43 (.66)	2.85 (1.28)	4.04 (.92)	3.32 (.90)
	F값 (P)	1.666(.159)	.166(.956)	2.017(.094)	.808(.521)	1.131(.343)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3.54 (.83)	3.37 (.60)	3.17 (1.00)	4.11 (.86)	3.47 (.70)
	비취업	3.74 (.83)	3.50 (.78)	3.33 (.93)	4.28 (.72)	3.63 (.69)
	t값 (P)	-1.243(.215)	-.857(.393)	-.857(.392)	-1.172(.242)	-1.201(.231)
부돌봄자 이용여부	이용	3.55 (.85)	3.39 (.74)	3.11 (.93)	4.21 (.81)	3.47 (.70)
	비이용	3.85 (.80)	3.55 (.76)	3.47 (.91)	4.28 (.68)	3.71 (.66)
	t값 (P)	-2.483	-1.509	-2.639	-.692	-.996 (.320)

전반적으로 돌봄부담은 아동의 장애정도, 돌봄비용, 가구총소득, 부돌봄자 이용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5. 정책지원 욕구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욕구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장애자녀돌봄에 대한 수당지급(41.5%)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원욕구가 강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시설확대(35%), 가정교사 및 도우미 파견서비스(10%) 등 장애아동의 재활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2순위로는 장애아동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31%), 돌봄비용 관련 소득 감면혜택(16%),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수당지급(15%), 가정교사 및 도우미 파견 서비스(12.5%),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일시휴식 서비스(8%), 장애아동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확충(7.5%) 등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가정교사 및 도우미 파견서비스(15.0%), 돌봄비용관련 소득감면혜택(14.5%), 돌봄관련 수당지급(13.5%),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12.5%), 장애아동 가족원을 위한 일시휴가서비스(11.5%)였다.

〈표 2-21〉 정책지원욕구

항 목	1순위(N=200)	2순위(N=199)	3순위(N=195)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수당지급	83(41.5)	30(15.0)	27(13.5)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	70(35.0)	62(31.0)	25(12.5)
가정교사 파견 서비스	20(10.0)	25(12.5)	29(14.5)
돌봄비용 관련 소득감면혜택	9(4.5)	32(16.0)	30(15.0)
장애아동 가족원을 위한 일시휴식 서비스	5(2.5)	16(8.0)	23(11.5)
장애아동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확충	7(3.5)	15(7.5)	21(10.5)
장애아동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2(1.0)	3(1.5)	12(6.0)
장애아동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0(0.0)	0(0.0)	5(2.5)
의료용품 보조 및 대여서비스	1(0.5)	8(4.0)	10(5.0)
장애 및 돌봄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2(1.0)	7(3.5)	9(4.5)
기타	1(0.5)	1(0.5)	4(2.0)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 교육과 치료에 관련된 시설확대 및 프로그램 확충과, 가족활동을 위한 지원 및 휴식서비스 등이 장애아동돌봄가족과 돌봄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돌봄시간충량을 고려해 보면 돌봄노동량 및 부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돌봄정책의 방향설정과 입안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요약 및 소결

이상에서 장애아동의 주돌봄자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상황과 구체적인 돌봄시간과 총량, 그리고 돌봄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돌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하루 평균 13시간 16분에 달하였다. 이는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장애자녀의 돌봄에 소요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신체적 부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애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 부담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취업중단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사적 활동이나 직장생활 등에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장애아동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돌봄자인 어머니 이외의 부돌봄자의 지원이 대단히 빈약하고 저조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아동 돌봄에 있어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가 43%로 나타났고 대부분 남편이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부돌봄자의 지원 시간이 2시간 15분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돌봄자 지원여부는 어머니의 돌봄시간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돌봄의 영역 중 특히 가사활동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 1) 먼저 부돌봄자의 지원이 빈약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의존성으로 인해 주돌봄자인 어머니 이외의 남편이나 가족들이 장애아동을 돌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돌봄자와 부돌봄자의 돌봄시간 비교에서도 장애아동의 돌봄 중 교육활동시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 장애아동의 돌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장애아동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어 가정교사 이용여부가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돌봄자의 정책 요구 중 가정교사 파견 서비스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2) 다음으로, 부돌봄자의 이용이 가사활동에 유의미한 시간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애아동의 주돌봄자인 어머니가 일반가사일과 양육이외에도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추

가돌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망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해 가사활동 등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돌봄자의 가사지원활동이 어머니에게는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가족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 3) 마지막 측면은 장애아동 부돌봄자의 지원시간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전체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장애아동의 전체가족들이 장애아동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장애아동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비용 이외에 장애로 인한 치료와 교육 등에 더욱 많은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조사된 가구의 돌봄비용은 월평균 777,300원으로 소득의 1/3가량을 장애아동 돌봄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장애와 관련된 추가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에게 있어 의료적 처치나 재활치료 등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이 충분한 의료적, 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책지원욕구에서도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수당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아동 돌봄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과 그로 인한 고용상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아동의 돌봄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넷째,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조기개입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시설이용은 하지 않는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3세 이하의 어린 연령의 정규기관 이용율과 비정규기관 이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발생한 초기에 부모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장애치료나 재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시설의 부재나 정보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됨을 말한다. 또한 장애의 심한 정도와 상관없이 돌봄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의 경중을 떠나 장애발생 여부만으로도 돌봄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장애가 심할수록 돌봄부담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기관이

나 비정규기관의 이용율이 낮았고 부돌봄자의 지원도 가장 낮아서 돌봄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애가 심할수록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합율이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매우 낮고 복지관이나 사설치료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복지관이나 사설치료실에서는 무료 보육,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음이다. 따라서 장애 초기의 영아기와 중증의 장애아동의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 및 의료, 재활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는 돌봄자들의 주된 정책욕구로서 장애아동 돌봄시간이나 부담의 감소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제4절. 외국의 정책동향 및 국가 사례

장애아동 돌봄 지원은 아동 돌봄의 경향처럼 전반적으로 개별 양육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양육수당, 보육수당 등)를 발달시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애아동 돌봄은 각각의 장애 아동이 가진 발달상의 특수성과 장애의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돌봄의 기술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역할과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장애아동 돌봄의 문제는 장애를 가진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급수별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가구소득, 장애정도, 보육시간 등에 기초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급여수준도 우리나라 금액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 호주의 장애아동수당은 16세미만과 16-21세의 학생인 경우 75.10달러(2002)이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돌봄자수당(Children Disability Allowance: CDA)과 거택간호급여(Domicillary Nursing Care Benefit: DNCB)가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2주당 82달러, 2001). 그리고 장애아동 보육에 따른 추가적 요구를 아동보육지원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장애아동은 매달 주정부 사회복지부로부터 장애아동수당(Child Disability Benefit)과 1달사용 약값에 대한 지급액을 받는다. 장애아동수당은 17살 때까지 1달에 700~900달러씩 나오고, 부양가족은 연간 7000~9000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장애정도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장애인 보호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205~665유로(25만원~80만원)의 장애부양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으로 16세 이하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14.20~53.55파운드가 지급되고 전반적 장애아동수당은 20.40파운드이다. 영국은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조집단모임 프로그램(parents/toddler groups, drop in center, opportunity groups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자격인증을 받은 부모들이 자신의 집에서 5세 이하 혹은 학령기 아동들을 방과 후나 휴일에 보호해주고 있다. 일본은 20세미만의 장애정도와 거택상황에 따라 장애아복지수당(1만4160엔, 2001), 특별장애아수당(월 26,680엔, 2001), 특별아동부양수당(4,330엔~5만1,550엔) 등이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미국은 보충보장소득으로 월평균 53달러(2005)를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함과 함께 장애아동 및 이들 가족을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돌봄자를 위한 가정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비장애아동이나 노인과 달리 장애특성 및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통합적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파악이 가능한 캐나다, 그리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장애조기 개입서비스와 미국의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은 장애아동의 예방 및 조기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1.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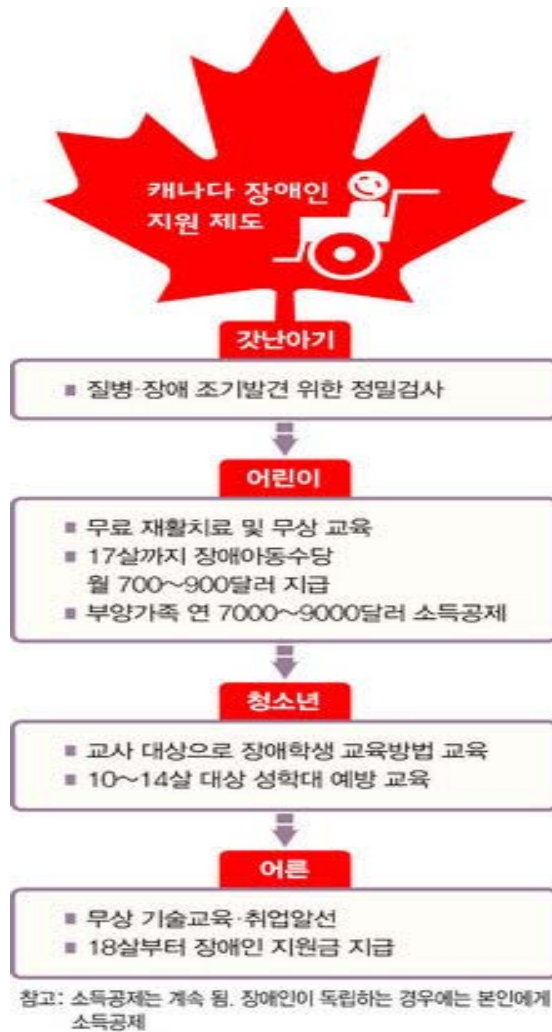
캐나다는 2004년부터 장애아동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ct: FSCD)을 시행하였다. FSCD는 장애아동의 욕구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족의 욕구를 인식한 것이다. 동 법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중재와 통합을 중요시하였고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욕구에 충족되는 계획과 결정 과정에서 가족을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되면서도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주요 돌봄자로서 가족의 능력과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가족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FSCD는 장애아동가족의 잠재력을 돕기 위한 가족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장애아동 돌봄에 드는 추가비용도 보조하고 있다.

FSCD는 가족지원서비스와 아동중심서비스로 구분된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아동

을 돌보는 가족의 욕구를 바탕으로, 초기 아동의 장애진단에서부터 장애아동 돌봄의 전반을 지원한다. 장애아동관련 정보제공, 연계, 옹호와 지지를 비롯하여 추가되는 상담비용, 의복비용, 여행비용, 병원이용, 일시보호(Respite service), 병원이용시의 숙박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별히 장애아동 돌봄자에게 일시적 휴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이 있다. 장애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상담(1년 20시간), 의류와 신발지원(1년 4000불), 진료를 위한 제반 이동 비용, 일시적 휴식 제공(연간 240시간 까지) 등이다.

아동중심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정확한 진단과 장애 각각의 개별욕구에 맞춘 진단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정도에 맞는 일시보호의 범위, 응급지원, 아동돌봄지원, 건강관련지원,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주의 무료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시 이 번호를 통해서 가족들은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와 전문가 연결 등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휴식기간, 도우미 파견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캐나다는 장애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기까지 사회적지원이 일률적으로 제공된다. 장애인이 최대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캐나다의 노력은 신생아 무료 정밀검사에서 시작된다. 장애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해마다 7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 27종목의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재활치료는 어린이병원에서 무료로 이뤄지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치과와 안과 치료도 장애인에게는 무료다. 6살 미만 장애어린이들은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다음 <그림 2-5>는 캐나다 장애인지원제도의 통합시스템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2-5〉 캐나다 장애인 지원 제도

2. 미국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서비스를 결합하고 있다. 1994년의 장애아동가족지원법(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PL 103-382) 제정은 장애아동 개인에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구축을 지향하려는 공공정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 법에서 ‘가족지원’은 “현금보조금(discretionary cash subsidies), 수당(allowances), 지불보증전표(voucher), 혹은 배상제도(reimbursement systems), 저금리 대출, 및/혹은 신용카드(lines of credit)를 포함하는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동 법의 주 내용은 이 법에 의한 모든 지원은 가족유지, 가족중심, 가족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또한 장애자녀를 위한 지지, 보육,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는 장애아동

가족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찾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용지원을 언급하여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다양한 가족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PL 99-457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원을 명료화한 법령 중 하나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즉 가족의 요구, 가족의 장점, 지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가족과 전문가간의 협력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가족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계획이다. 가족들은 IFSP를 통해 장애에 관련된 교육 및 재활, 전문적인 상담을 비롯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 시간, 특별한 관심 등에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사회적 기술 등 모든 일에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의 목적은 가족이 선택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들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에게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하고 가족과 아동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처럼 연방법원에 의해 확립된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각 주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플로리다의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 즉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참여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환경에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치료와 재활에 중심을 둔 의학적 모델과는 달리, 장애아동이 일반인이 생활하는 환경과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보호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따라서 개별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관심사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케이스매니저(Service Coordinator)를 지정하여 그를 중심으로 모든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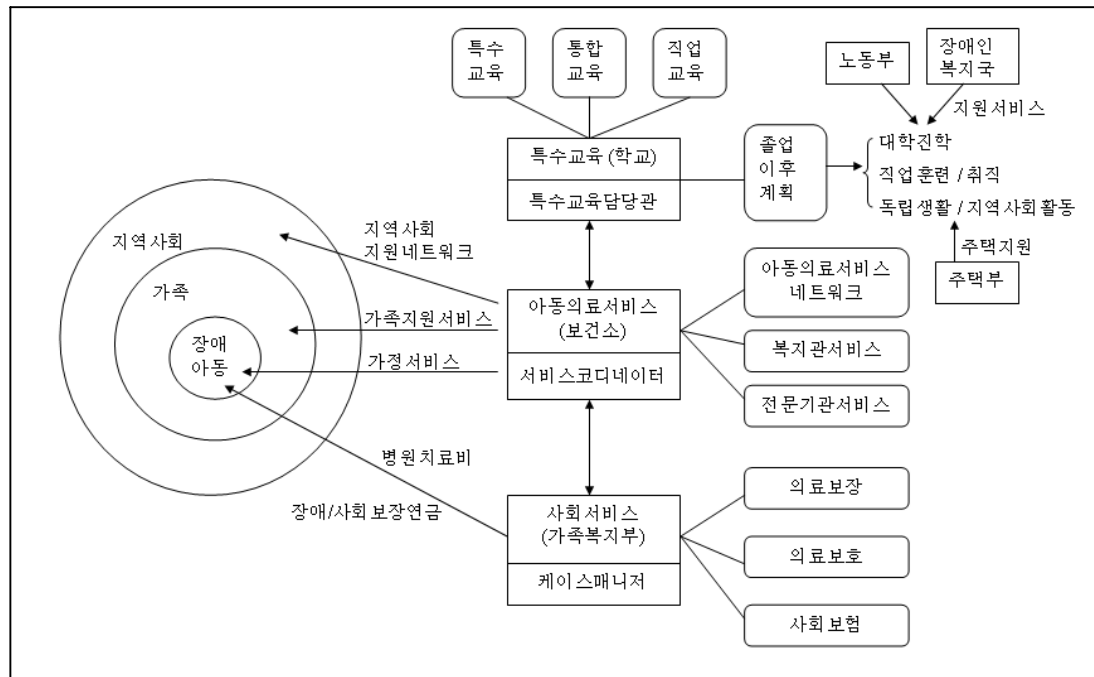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는 크게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2살이 될 때까지는 이 두 서비스를 통합한 조기개입 프로그램(Early Step)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3살부터 17살까지는 교육서비스로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성인이 되면 장애인복지기관(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전담 케이스매니저가 지정되어 대학진학, 직업훈련, 취직, 독립생활, 지역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0-17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2세 장애아동을 위한 Early Step은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하여 제반 발달이 지체될 수 있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일반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이 주관하여 모든 관련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주요 가족 서비스는 전담 케이스매니저 및 필요한 서비스인력(언어/물리치료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발달 정도를 진단, 평가한다. 또한 가족 및 보호자가 직업훈련, 간병스트레스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는 임시 단기보호서비스를 회당 최대 2개월, 연간 최대 3회까지 제공한다. 친척이나 이웃이 아동을 보호할 경우 시간당 \$6(플로리다 최저임금 및 일반보육비에 준함)를 지급한다. 복합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하루 3-6시간씩 주 5회 주간교육서비스를 지역복지관에서 교통편과 함께 제공한다. 그외 서비스로는 정기적인 의료진단, 영양관리, 신체기능/물리/심리 치료, 일대일 및 집단상담, 수화, 통역 등이 있다.

3세에서 17세 아동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은 4세, 저소득 및 장애아동은 3세부터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취학 전에는 하루 4시간, 유치원부터는 7시간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 특별한 복합장애아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각 학교에서는 기본과목은 일반교사가 일반학생과 같이 교육하고, 장애종류별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교사가 진행한다. 14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기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교육서비스가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의 주관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교통편과 함께 제공됨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아동(3017세) 의료서비스(Children's Medical Services)는 보건국이 주관하여 전담 케이스매니저(간호사)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장애종류별로 전문 의료기관이 보건국에 등록되어 있어, 케이스매니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보장(Medicare)에서 통원치료비는 80%를 지원하며, 입원치료비는 60일까지 전액, 150일까지 부분 지원한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평생동안 매달 \$600 정도의 장애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국가사회보장에서 지급된다.

다음 <그림 2-6>은 플로리다 장애인 서비스 흐름도이다.



<그림 2-6> 플로리다 장애인 서비스 흐름도

3. 외국정책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사회변화와 함께 선천적, 후천적 장애 발생의 증가는 장애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관련성에서 규명되어야 할 사회문제임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 및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조기대책이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은 각각의 장애아동이 가진 발달상의 특수성과 장애의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발달을 보장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Krauss(1993)는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심리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게 되며,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지원의 장점과 요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가족과 아동의 기능과 발달에 효과적이게 대처할 수 있게 함을 강조하였다. Belsky(1984)도 가족지원은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며,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원조를 해주고,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장애아동 정책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적 초점은 장애아동의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서 장애아동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다.

위에서 논의한 외국의 사례들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소득정책이 확대 및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장애아동 관련 수당 제도를 통해 장애급수별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가구소득, 장애정도, 보육시간 등에 기초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비용 이외에 장애로 인한 치료와 교육 등에 더 많은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아동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지원수준도 낮아서 추가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제외국의 사례들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지급대상 확대문제와 실질적인 부담비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돌봄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것이다. 장애아동은 장애특성으로 인해 가족지원이 어려우며 주로 돌보는 어머니의 몫으로 돌봄자의 부담이 매우 높아 돌봄자 및 가족지원서비스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자의 돌봄시간을 지원해주고 돌봄자 휴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과 캐나다의 가정에서의 장애자녀 돌봄 및 가사활동을 원조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및 부모의 휴가를 위한 단기, 장기적인 단기/일시휴식 서비스 시행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캐나다의 장애아동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일시 혹은 단기보호 서비스(respite service) 제도 확립 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의 문제는 그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돌봄자인 부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장애아동 돌봄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복지와 안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이 통합적인 모색되어야 하는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비스 흐름도 사례는 부처 간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제5절. 한국의 장애아동 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제언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을 위한 법적 지원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다. 경제적 지원차원에서 장애아동부양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장애아동 1인당 7만원을 지급)과 장애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급 등이 있지만 수당제공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공수준이 낮아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06년도에 계획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만원씩 2천 700여명(수급권자, 장애1급)에게 지급하던 것을 중증은 월 최대 20만원씩, 경증은 10만원씩 약 2만 2천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급권자 가정의 장애1급 아동에게만 월 7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내년부터 수급권자 중증장애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되며 차상위 중증 아동은 월 15만원, 차상위이하 경증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에 있는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14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4000명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상보육서비스와 종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확충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갖도록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틀에 맞추기 위한 공시나 계획 등에서 한정되고 실정이고 장애아동 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해 교육, 재활, 치료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어머니의 돌봄시간과 부담은 매우 높았으나 그에 대한 대책들은 미흡한 것은 장애아동 돌봄의 문제가 장애를 가진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돌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본 장애아동돌봄 실태조사와 외국정책사례의 함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우선적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소득정책의 확대 및 강화이다.

외국의 사례들에서 장애아동 관련 수당 제도를 통해 장애급수별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가구소득, 장애정도, 보육시간 등에 기초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비용 이외에 장애로 인한 치료와 교육 등에 더 많은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아동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지원수준도 낮아서 추가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제외국의 사례들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지급대상 확대문제와 실질적인 부담비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동 돌봄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다.

장애아동은 장애특성으로 인해 가족지원이 어려우며 주로 돌보는 어머니의 몫으로 돌봄자의 부담이 매우 높아 돌봄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중요한 과제이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활동과 돌봄수행의 병행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아동 돌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자의 돌봄시간을 지원해주고 돌봄자 휴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과 캐나다의 가정에서의 장애자녀 돌봄 및 가사활동을 원조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및 부모의 휴가를 위한 단기, 장기적인 단기/일시휴식 서비스 시행은 여성가족부의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장애아가족 지원서비스를 위해 2007년 추진될 레스파이트 도우미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캐나다의 장애아동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일시 혹은 단기보호 서비스(respite service) 제도 확립 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아동가족 돌봄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체계의 구축이다.

장애아동의 문제는 그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돌봄자인 부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더욱 절

실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적으로 장애아동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교육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아동가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조차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그에 따른 관련서비스 제공도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노력 없이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이 매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특히 본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장애에 대한 정보나 교육에 대한 정보, 의료 및 교육 지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장애발견 초기 조기개입으로 아동의 재활, 치료적인 측면과 가족전체에 대한 서비스, 장애아동 부양 수당 제도가 일원화되어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서 간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두어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부담에 도움이 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장애아동 돌봄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복지와 안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이 통합적인 모색되어야 하는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비스 흐름도 사례는 부처 간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아동 돌봄과 정책방향

홍 승 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제1절. 아동돌봄노동 실태

1. 선행연구 검토

가. 가사노동시간 조사

가사노동연구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성들의 가족내 노동을 가시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가사노동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대부분의 가사노동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부의 취업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자녀의 수와 연령, 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에 의하여 가사노동의 실질 소비 시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이정수, 1984; 한경미, 1987; 임정빈·임혜경, 1992; 문숙재·정지영, 1997; 문숙재, 1991; 조성은·문숙재, 1991; 채로·이기영, 2004).

주요연구들에서 조사된 가사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주부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서울 9.1시간, 부산 8.8시간으로 평균 일일 8.9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조사 시점이 1988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사회변화와 문화변화, 기술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사노동 시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보다 최근 시점의 시간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04년 생활 시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취업여성은 4시간 58분, 미취업여성 7시간 19분으로 나타난다. 1988년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도구의 차이가 기존연구들의 각기 다른 차이를 낳게 될 수 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없이 결과적으로 산출된 시간만을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3-1〉 우리나라 주부의 1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

가사 노동 분류	연구		이정수 (1984)	이정수 고경애* (1985)	김애실* ¹ (1985)	최명숙* ² (1987)			문숙재·정영금 (1988)			생활시간조사 보고서(2004) (단위: 시간, 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균	서울	부산	평균	취업 여성	미취업 여성
식생활관리	4.7	5.1	3.7	3.4	3.8	3.6	3.2	3.6	2.7	2.7	2.7	1.36	2.11
주생활관리	1.7	1.9	1.1	1.0	1.2	1.2	1.1	1.2	1.7	1.7	1.7	1.12	1.25
의생활관리	2.1	2.4	1.4	1.1	1.2	1.3	1.0	1.3	1.5	1.5	1.5	0.41	0.51
가족관리	1.9	2.4	3.3	3.2	3.2	1.2	0.9	1.2	1.4	1.3	1.1	1.11	2.25
경영 및 장보기	2.4	2.7	1.0	0.8	1.0	1.1	0.8	1.1	1.8	1.7	1.7	0.58	1.07
계	11.8	13.4	10.4	9.4	10.4	8.5	6.8	8.2	9.1	8.8	8.9	4.58	7.19

*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1. 자녀돌보기와 자녀교육을 모두 비신체적 관리로 보았으며, 가계부정리도 장보기에 속한다고 보았음.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에 차이가 있음

자료: 문숙재(1991),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그러나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조사와 돌봄노동 조사와는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가사노동을 광의의 돌봄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돌봄노동조사에서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사노동에 포함시켜서 조사할 경우 “가족돌보기” 등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어 과소 측정(underestimate)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가사노동 시간 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역분류는 식사관리, 주택관리, 의복관리,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의 문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돌봄 등과 같은 가족돌봄의 영역은 가족관리의 하위영역으로 편입되어 과소 조사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주분류에서는 아동돌봄의 영역이 포괄적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 생활시간조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1999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04년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2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10세이상 31,634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의 활동내용을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시간자료를 수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루 24시간의 시간소비를 9개 문항으로 대분류하여 50개 중분류, 137개 소분류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9개 문항의 대분류에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돌봄관련 영역은 가족보살피기의 대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우리나라 20세이상 기혼여성의 가족 보살피기로 측정된 노동시간은 취업여성의 경우 32분이 소요되었고,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1시간 23분이 소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58분으로 측정되었다. 전체 생활시간 중에서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총 57분으로 개인유지(10시간 29분), 교제 및 여가활동(4시간 50분), 가정관리(3시간 18분), 일(2시간 43분), 이동(1시간 22분)의 순으로 사용시간이 나타난다.

〈표 3-2〉 20세이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2004)

	전체	미취업여성	취업여성
개인유지	10시간 29분	10시간 44분	10시간 14분
일	2시간 43분	10분	5시간 19분
학습	1분	1분	0분
가정관리	3시간 18분	3시간 56분	2시간 39분
가족 보살피기	57분	1시간 23분	31분
참여 및 봉사활동	3분	4분	2분
교제 및 여가활동	4시간 50분	6시간 12분	3시간 28분
이동	1시간 22분	1시간 14분	1시간 32분
기타	16분	17분	15분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가족보살피기는 다시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등의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가족돌봄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표 3-3〉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가족 보살피기 시간

	전체	비취업여성	취업여성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36분	57분	16분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3분	15분	11분
배우자 보살피기	4분	5분	2분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2분	2분	1분
그 외 가족 보살피기	3분	4분	2분
전체	58분	1시간 23분	32분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다시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문항은 신체적 돌보기, 책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등 4개 문항으로 세분되어 있다.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은 1일 36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신체적 돌보기(19분)가 가장 시간사용이 많고, 다음으로 책읽어주기, 놀아주기(14분), 기타 보살피기(2분), 간호(1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 4개 문항으로만 분류한 것은 분류의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돌봄노동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주요행동과 동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주행동 위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돌봄노동이 비가시화되어 과소측정되는 문제도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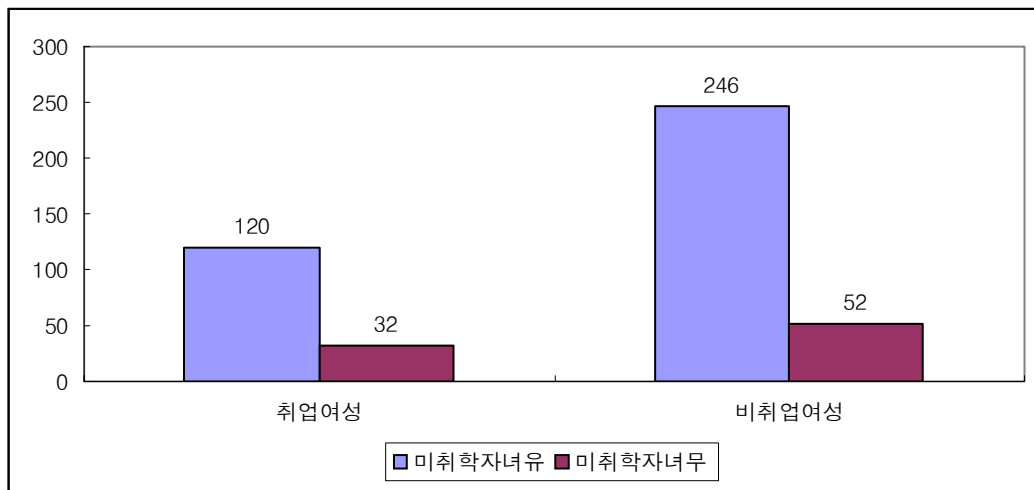
〈표 3-4〉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전체	비취업여성	취업여성
신체적 돌보기	19분	30분	9분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14분	22분	5분
간호	1분	1분	0분
기타 보살피기	2분	3분	1분
전체	36분	57분	16분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한편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미취학자녀의 유무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2시간이 사용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미취학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32분이 소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시간 6분, 미취학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5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가족보살피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취학자녀의 유무,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예컨대 수면 중에 일어나서 아이 수유를 한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하는 돌봄행동은 주행동인 수면으로 기록된다.



〈그림 3-1〉 취업·비취업여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단위:분)

선행연구들은 시간조사(Time Use Survey)나 가사노동 시간조사 등을 통하여 돌봄노동에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들 조사를 통하여 돌봄노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돌봄노동 분류 자체가 한정적으로 정의되고 있어서 돌봄노동의 영역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아동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연구는 돌봄노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분석으로서는 전무하다. 다만 가사노동 시간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2. 조사설계

가. 조사설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 아동돌봄노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 4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연령을 취학전 아동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어머니의 돌봄노동 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노동의 집중도와 강도 역시 높기 때문에(Zick, 1996; 여성가족부·통계청, 2005; 장혜경외, 2005) 아동돌봄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조사대상은 조사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였는데¹⁰⁾, 표본할당은 조사목적에 따라 다음

10) 조사지점은 서울의 경우 25개구를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총 50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였고, 경기의 경우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총 50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을 기준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을 고려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각각 150명, 250명으로 할당하였고, 돌봄대상 아동의 연령도 첫째아의 연령이 만2세 이하인 가구 150가구, 첫째아 연령이 만3,4세인 가구 100가구, 첫째아 연령이 만5,6세인 가구 150명으로 할당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 150가구, 중산층 250가구로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은 돌봄노동에 대한 질문지 조사와 시간일지 기록하기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 및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돌봄 시간 및 부담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시간일지와 질문지 조사, 그리고 심층면접 혹은 스트레스 측정 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사방법으로 질문지 조사, 스트레스 측정, 시간일지 조사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 후 조사내용을 응답받는 형식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일지 조사는 면접원이 시간일지 작성방법을 알려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24일~9월 24일까지 두달간 진행되었다.

나. 조사도구 및 내용

1) 질문지

우선 돌봄노동 조사를 위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질문지는 돌봄자(어머니) 특성, 돌봄상황, 돌봄스트레스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돌봄자 특성에서는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대상아동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돌봄상황에 관한 질문의 주요 내용은 가족내 혹은 부부간 돌봄의 분담실태, 돌봄관련 시설 및 유급 도우미 사용실태, 그 외 부돌봄자 등의 돌봄지원 형태, 아동돌봄 관련 비용, 아동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변화, 아동돌봄으로 인한 부부갈등 유무, 아동돌봄 정책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돌봄노동이 주는 역할과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돌봄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은 소수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들은 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일반아동의 어머니가 갖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김기현·강희경, 1997).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의 부모역할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한국 문화에 맞게 번안, 개발한 김기현·강희경(1997)의 한국형 부모역할 스트레스 개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타인양육 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4가지로 구성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조사대상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타인양육 스트레스는 시설이용 어머니들에게만,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시간일지 작성하기

시간일지도 미취학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시기가 돌봄노동의 강도가 가장 강하고 물리적 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집중적인 관심과 돌봄이 요구되는 시기이어서 돌봄노동이 가시화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되기 때문이다. 시간일지는 휴일(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을 포함하여 주3일을(일월화/ 목금토) 10분 단위의 시간일지에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하루일과 중 아동돌봄과 관련된 일들을 돌봄코드에 기반하여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하루의 행동을 10분 단위로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록해 나감으로써 돌봄노동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록된 시간일지는 조사원이 재방문하여 기입결과를 확인하고 점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간일지 작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경우 모든 시간의 일지를 작성하였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 전후로 아동돌봄에 참여한 시간만을 조사하였고, 휴일에는 하루중 아동돌봄에 참여한 시간을 조사하였다. 아버지의 돌봄시간 조사는 어머니 외 부부간 아동돌봄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시간배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간조사와는 달리 돌봄시간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시간일지의 작성을 위하여 돌봄코드(Care Code)를 개발하였다¹¹⁾. 돌봄코드에는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행동영역들을 위생관련, 식사관련, 가사활동 관련, 정서관련, 배설관련, 외출관련, 의료·간호관련, 교육관련, 기타 등의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항목에는 세부항목으로 보다 구체적인 행동들을 구성함으로써 돌봄노동에 대한 기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이 작성한 돌봄코드를 미리 제시하여 본인의 돌봄노동을 기록하되, 돌봄코드에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피면접자 스스로 돌봄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동까지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조사가

11) 선행연구에서도 시간일지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로 케어목록(Care Inventory)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Crowe et al., 2006). 본조사에서도 케어코드를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완성하였다.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면접자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돌봄노동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돌봄노동자가 생각하는 돌봄노동의 정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5〉 아동돌봄코드

위생 관련	몸단장하기 옷입히기 세수시키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기 목욕시키기 기타 위생 관련	배설 관련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대변관리 소변관리 대소변 치우기 기저귀 갈기 기타 배설 관련
	식사관련	외출 관련	동네 산책하기 외출 준비하기 외출시 데려가기 친구집 데려다주기, 데리고 오기 학원 데려다주기, 데리고오기 기타 외출관련
의료 · 간호 관련		예방접종 약먹이기 병원 데려오기 간호하기 기타 의료 · 간호 관련	
가사활동 관련		교육 관련	공부지도 숙제 봐주기 학교수업 준비물 챙기기 아이관련 행사참여 아이관련 교육참여 행사 및 교육 데려가서 기다리기, 데려오기 기타 교육관련
	정서관련		
노는 것 지켜보기 놀아주기 대화하기 TV/DVD 봐주기 기타 정서관련			
취침	취침준비 아이재우기 기타 취침관련		

3.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돌봄자(어머니)의 특성

가) 개인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 돌봄자는 모두 어머니이다. 그 외 돌봄자로 조사한 대상은 아버지와 가족 및 기타 관계로 연결되는 부돌봄자이다(유급도우미 제외). 그 외 아버지의 돌봄참여와 돌봄노동 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가족내 부부의 돌봄노동을 지원해 주는 부돌봄자가 있는지, 있다면 이들은 어느 정도로 돌봄노동을 완화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돌봄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후에서는 주돌봄자를 어머니로 통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 3-6〉 돌봄자 특성

구분				사례수	%
돌봄자 특성 (n=401)	연령	20대		84	20.9
		30대		302	75.3
		40대		15	3.7
	혼인상태	기혼		391	97.5
		이혼		8	2.0
		별거		1	0.2
		미혼모		1	0.2
	학력	고졸		176	43.9
		대졸		209	52.1
		대학원 이상		16	4.0
	취업 여부	취업		148	36.9
		비취업		253	63.1
		비취업*	취업경험 없음	13	5.1
			취업중단	240	94.9
	건강	매우 나쁘다		3	0.7
		나쁜 편이다		24	6.0
		보통이다		139	34.7
		좋은 편이다		200	49.9
		매우 좋다		35	8.7

* 비취업주부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임

우선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로는 30대가 75.3%, 20대가 20.9%, 40대가 3.7%로 나타난다. 이들의 혼인상태는 이혼 2%, 별거와 미혼모 각각 0.2%를 제외한 97.5%가 유배우 상태의 기혼자들이다. 또한 36.9%가 취업주부이고 나머지 63.1%는 비취업 상태이며, 비취업주부의 94.9%가 취업경험이 있으나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을 거치면서 취업을 중단한 경우로 나타났다¹²⁾.

한편 취업주부의 직업분포, 주평균 근무일, 일일 근무시간, 월평균 소득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대상자 중 취업주부는 36.9%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직종분포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44.6%), 다음으로 서비스직(21.6%), 생산/판매직(15.5%), 전문관리직(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51-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35.8%), 50만원 이하도 21.6%, 그 외 101-150만원 이하가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7〉 취업주부의 특성

구분			사례수	%
취업주부 특성 (n=148)	직업별	전문/관리직	7	4.7
		사무직	66	44.6
		서비스직	32	21.6
		생산/판매직	23	15.5
		자영업	17	11.5
		기타	3	2.0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32	21.6
		51-100만원 이하	53	35.8
		101-150만원 이하	30	20.3
		151-200만원 이하	13	8.8
		201만원 이상	20	13.5
	1주 평균 근로일수	2일	5	3.4
		3일	9	6.1
		4일	2	1.4
		5일	74	50.0
		6일	50	33.8
		7일	8	5.4
	평균(표준편차)	5.21일/주 (1.04)		
	1일 평균 근무시간	2-3시간	11	7.4
		4-5시간	24	16.2
		6-7시간	15	10.1
		8-9시간	56	37.8
		10시간 이상	42	28.4
	평균(표준편차)	7.74시간/일 (2.54)		

12) 자세한 취업중단 경로는 3절 참조.

이들의 근무실태를 살펴보면,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5.21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5일(50.0%), 혹은 6일(33.8%) 근무를 하고 있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7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은 8-9시간(37.8%), 10시간 이상(28.4%)도 상당히 나타나 아동돌봄과 병행하기에는 상당히 긴 근무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족상황

〈표 3-8〉 가족상황

구분			사례수	%
가족 상황	가족원 수 (n=395)	2명	8	2.0
		3명	228	56.9
		4명	142	36.9
		5명	12	3.0
		6명	2	0.5
		7명	3	0.7
	가족형태 (n=401)	부부+자녀	380	94.5
		한부모+자녀	10	2.5
		조부모+부부+자녀	9	2.2
		기타	2	0.8
	가구소득 (n=401)	100만원 이하	27	6.7
		101-150만원	113	28.2
		151-200만원	50	12.5
		201-250만원	63	15.7
		251-300만원	42	10.5
		301-350만원	34	8.5
		351-400만원	26	6.5
		401만원 이상	46	11.5
	배우자 학력 (n=401)	고졸	4	1.0
		대졸	121	30.2
		대학원이상	240	59.9
		배우자없음	36	9.0
	배우자 직업 (n=391)	전문/관리직	38	9.7
		사무직	140	35.8
		서비스직	65	16.6
		생산/판매직	35	9.0
		자영업	83	21.2
		무직/기타	30	7.7

* 기타: 삼촌, 여동생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94.5%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로 살고 있으며, 3세대 가족은 2.2%에 불과하였다. 그 외 한부모가족도 2.5%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상태를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1만원-150만원 소득계층이 28.2%, 201만원-205만원 소득계층이 15.7%, 151만원-200만원 소득계층이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11.5%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59.8%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30.2%가 대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35.8%로 가장 많고, 자영업 21.2%, 그리고 전문/관리직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돌봄대상 아동의 특성

연령별로는 만2세이하가 36.4%, 만3-4세가 25.7%, 만5-6세가 37.9%로 나타났다. 아동수별로는 1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59.1%, 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 37.9%, 3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 3.0%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이 한자녀 혹은 두자녀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아가 52.7%, 여아가 47.3%로 나타났다.

〈표 3-9〉 돌봄대상 아동의 특성

구분			사례수	%
아동 특성	연령별 (n=401)	만 2세 이하	146	36.4
		만 3-4세	103	25.7
		만 5-6세	152	37.9
	아동수별 (n=401)	1명	237	59.1
		2명	152	37.9
		3명	12	3.0
	성별 (n=577)	남	304	52.7
		여	273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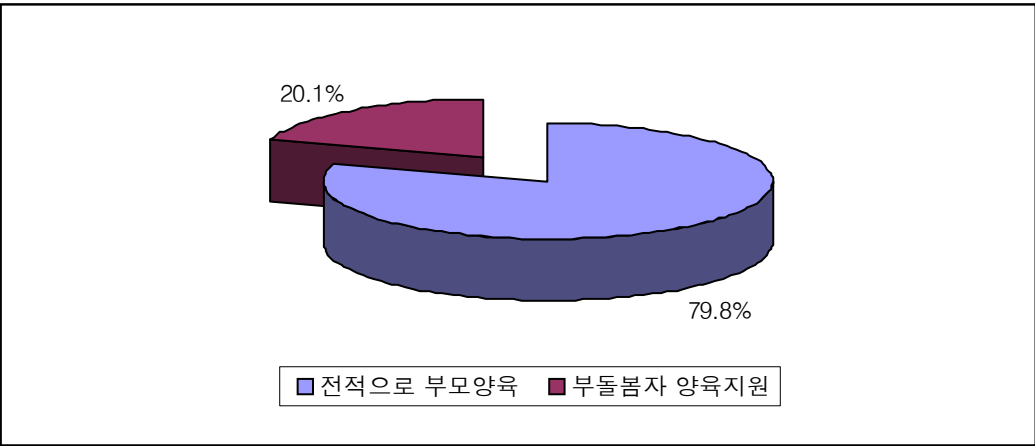
나. 돌봄상황

아이들은 어떤 가족형태 속에서 누구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는가? 가족내 아동돌봄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가족의 돌봄노동은 얼마나 사회화되고 있는지

(시설이용 여부), 개별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은 얼마나 혹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아버지의 돌봄참여, 부돌봄자 유무, 유급도우미 이용 여부 등), 아동돌봄으로 인한 개별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돌봄으로 인한 가족내 갈등은 없는지 혹은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내 아동돌봄: 주돌봄자와 부돌봄자

대부분의 경우 핵가족 속에서 부부와 부돌봄자의 조력없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 아동돌봄이 수행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79.8%가 주돌봄자인 어머니와 부돌봄자 없이 아동을 돌보고 있었으며, 부모와 부돌봄자의 양육지원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0.1%로 나타났다.



〈그림 3-2〉 가족내 아동돌봄 현황

한편 부돌봄자로는 주돌봄자의 부모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모 중에서도 친정어머니가 56.9%, 시어머니가 30.6%로 나타나 친정어머니 의존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주돌봄자와 부돌봄자의 관계(n=72)

구분	사례수(%)
친정어머니	41(56.9)
시어머니	22(30.6)
형제, 자매	7(15.7)
친척	1(1.4)
이웃	1(1.4)
계	72(100.0)

부돌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34.6%가 비용을 지불한 반면, 65.4%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는 응답자들의 비용지불 방식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82.1%,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17.9%로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비용지불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불하는 한달 평균금액은 423,910원으로 나타났다¹³⁾.

〈표 3-11〉 부돌봄자 비용 지불 현황

구분		%
비용 지불 현황(n=81)	지불하고 있음	34.6%
	지불하지 않음	65.4%
비용 지불 방식(n=28)	정기적으로 지불함	82.1%
	비정기적으로 지불함	17.9%
지불 금액(평균/표준편차)		423,910원/238,780원

2)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가) 시설이용

미취학 아동들은 주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는가? 앞서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응답자의 약 80%가 주돌봄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의 경우 핵가족 속에서 부부의 부돌봄자의 조력없이 아동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중에서 약 70%는 가족 내에서만 아동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보육관련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아동돌봄의 상당부분을 사회화시키고 있었다. 즉 조사대상 미취학아동 중에서 시설이용을 전혀 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29.4%에 불과하다. 즉 미취학 아동의 약 70% 가량은 어떠한 형태든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수는 한 기관이 가장 많고(59.1%), 두 기관(9.6%), 세 기관(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2세이하의 아동들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64.3%이며, 만 3-4세 이하의 아동들은 24.3%, 만 5-6세 이하의 아동들은 3.3%로, 아동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적으로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을 시설에 맡기는 비율은 아동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한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13) 부돌봄자의 관계분석과 비용지불 분석에서 사례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석시 무응답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표 3-12〉 아동돌봄 실태

(단위: 명, %)

아동 나이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시설 이용			전체
		한 기관	두 기관	세 기관	
만 2세 이하	83(64.3%)	45(34.9%)	1(.8%)	0	129
만 3-4세 이하	25(24.3%)	72(69.9%)	5(4.9%)	1(1.0%)	103
만 5-6세 이하	5(3.3%)	110(72.4%)	31(20.4%)	6(3.9%)	152
전체	113(29.4%)	227(59.1%)	37(9.6%)	7(1.8%)	384

또한 아동들이 만 2세에서 만 3세가 될 때,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기 영아기인 만2세까지는 전적으로 부모(주로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영아기 시설이용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즉 시설의 서비스 제공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가족내 부모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영아기 돌봄은 시설이용보다는 부모의 돌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영아기 아동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은 시설이용에 크게 중요한 변수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과 상관없이 아동들은 보육 및 교육시설의 이용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이들 시설에 대한 서비스 욕구 또한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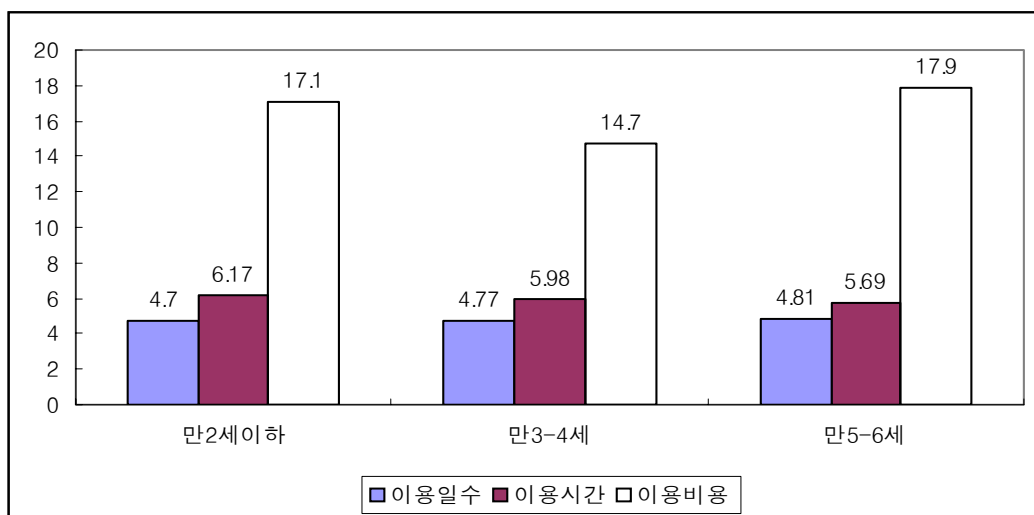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및 교육관련 시설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만2세 이하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놀이방, 선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 3-4세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순으로 나타나 이 시기부터 이미 교육기관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만 5-6세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순으로 나타나 역시 교육기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아동연령별 보육 및 교육관련 시설이용 아동 수(중복응답)

(단위: 명, 수)

이용기관 아동 나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	기타	전체
만 2세 이하	3 (4.8)	33 (52.4)	15 (23.8)	0 (0)	5 (7.9)	7 (11.1)	63 (100.0)
만 3-4세 이하	15 (11.9)	82 (65.1)	7 (5.6)	3 (2.4)	11 (8.7)	8 (6.3)	126 (100.0)
만 5-6세 이하	71 (35.9)	62 (31.3)	1 (0.5)	2 (1.0)	45 (22.7)	17 (8.6)	1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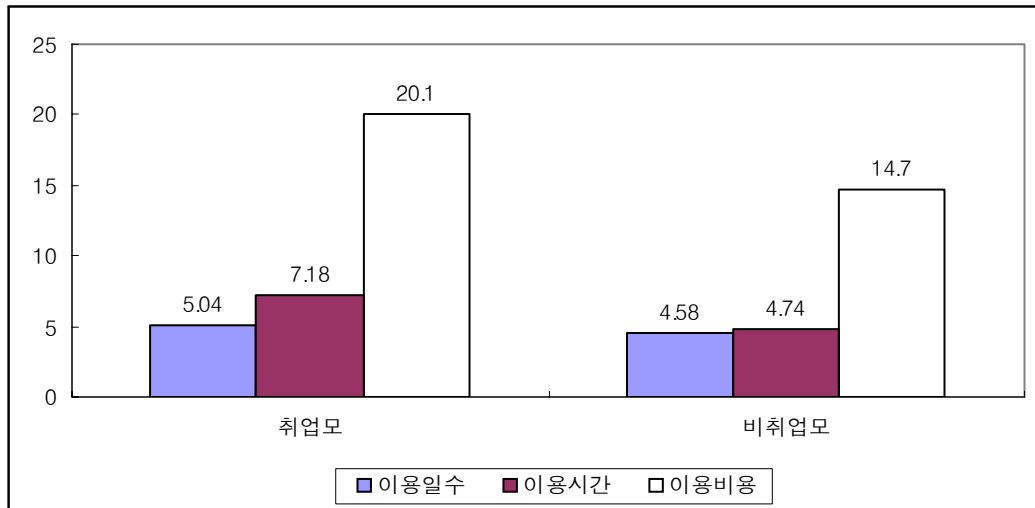
조사대상 아동의 시설 이용의 현황은 1주일에 4.78일, 1일 이용시간은 5.85시간, 월평균비용은 1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세이하 연령층 아동은 1주 이용일수 4.7일, 1일 이용시간 6.17시간, 월평균 이용비용 171천원, 만 3-4세 연령층 아동은 1주 이용일수 4.77일, 1일 이용시간 5.98시간, 월평균비용 147천원, 만5-6세 연령층 아동은 1주 이용일수 4.81일, 1일 이용시간 5.69시간, 월평균비용 179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 없이 1주일에 약5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1일 5-6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비용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아동연령별 시설이용 현황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이용일과 시간, 비용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취업모의 경우에는 1주일에 5.04일을 이용하며, 1일 7.18시간, 월 평균 이용비용은 20.1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1주일에 4.57일, 1일 4.74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으로는 14.7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사용시간과 비용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설이용 현황

3) 비용

가) 총양육비 지출

조사대상자들이 지출하는 한달 평균 양육비를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한달 평균 529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의 61.3%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비용은 252천원으로 나타났다. 도우미 이용비는 전체의 1.2%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48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학원비는 20.9%가 이용하면서 145천원, 그 외 교육관련 비용은 72.9%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76천원, 간식비의 경우에도 92.8%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93천원,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는 39.9%가 해당대상이며 이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104천원, 의료비의 경우 90.5%가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46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즉 부담률을 통해서 보면 각 가정에서 아동돌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 간식비(92.8%), 의료비(90.5%), 교육관련 비용(72.9%), 보육시설 이용비(61.3%), 학원비(2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4〉 양육비 지출실태

(단위: 가구수, 천원)

항목	사례수	부담률(%)*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육시설 이용비	237	61.3	15	910	258.16	148.35
도우미 이용비	13	1.2	50	1,200	483.08	326.00
학원비	84	20.9	10	690	144.89	111.12
교육관련 비용	277	72.9	1	450	76.34	67.46
간식비	378	92.8	5	800	93.24	78.57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	213	39.9	3	500	104.36	81.65
의료비	370	90.5	1	300	46.27	40.88
기타 ¹⁾	141	7.4	5	1,000	117.50	163.89
한 달 총 양육비용	401		23	2,500	529.35	35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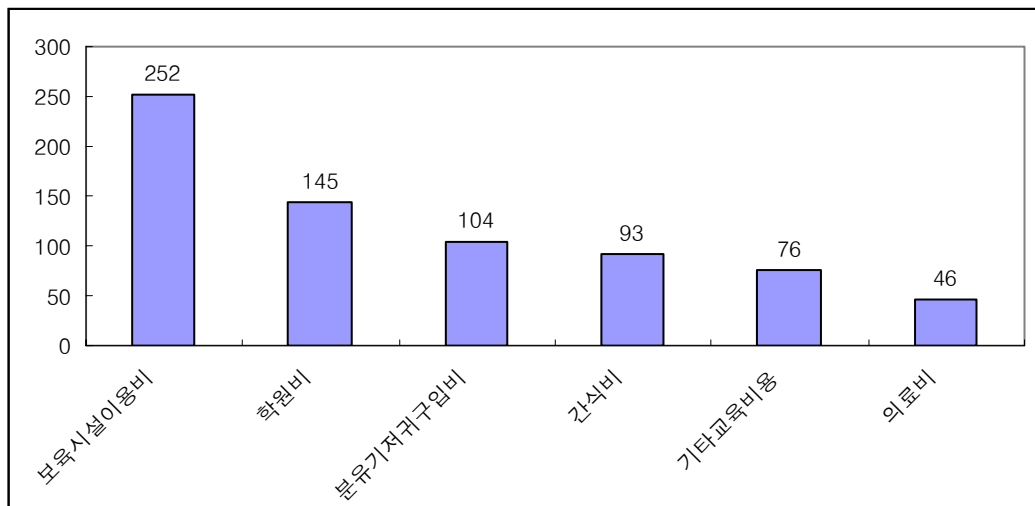
* 부담률이란 관련 항목에 대한 지출여부에 대한 응답율을 의미함

나) 양육비의 구성내용

전체 응답가구의 양육비 구성내용을 도우미 이용율을 제외하고 살펴보면¹⁴⁾ 간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필수비용은 가장 많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관련 비용,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비용을 제외하고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관련 비용과 보육시설 이용비에 가장 큰 양육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양육비 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양육비용은 보육시설 이용비 252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원비 145천원,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 104천원, 간식비 93천원, 그 외 교육관련 비용 76천원, 의료비 4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미취학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비용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도우미 이용비용은 액수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체 응답비용 중 1.2%에 불과하여 도우미 이용비용을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그림 3-5〉 양육비 지출구성비(단위:천원)

다) 가구소득별 양육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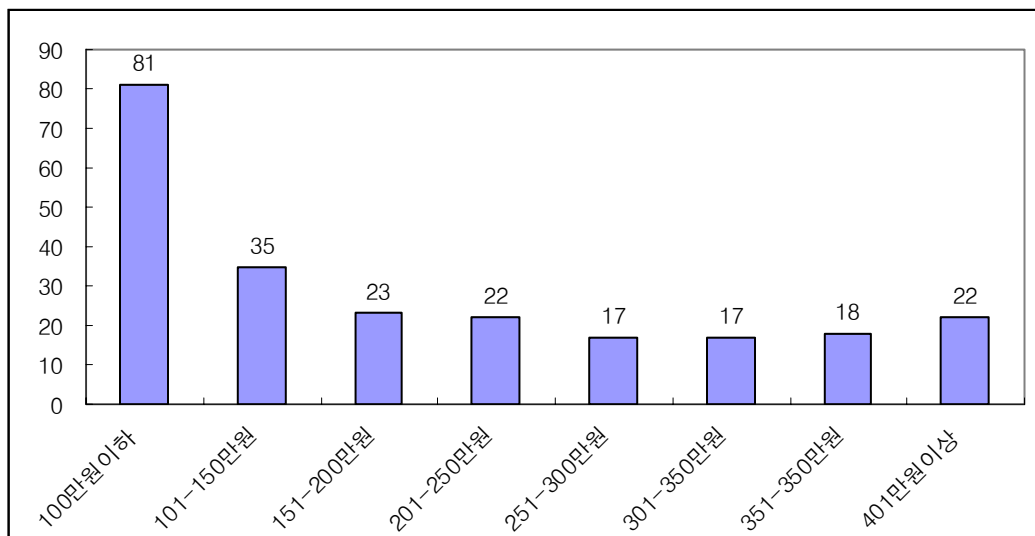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양육비를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 300만원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한달 평균 40만원대의 양육비를 지출하는 반면, 3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부터는 54만원, 68만원 등으로 양육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특히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96만원의 양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에 따른 양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영역은 교육관련 비용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거의 2.5배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39만원을 교육비용을 지출하는데 비해 351-400만원, 401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각각 99만원, 91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이용비에서도 소득계층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평균 25만원의 절반수준만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결과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계층 101-150만원, 151-200만원 계층에서도 평균 교육비용보다 적은 교육시설 이용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이들 역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각 가구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의 총소득비에 대한 양육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계산은 각 소득구간의 중간값을 월

소득으로 보고 소득계층별 양육비 부담을 살펴보았다.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가구소득중 양육비 부담이 81%로 나타나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1만원-200만원, 201만원-250만원, 250-300만원 계층에서는 양육비 부담률이 각각 35%, 23%, 22%로 나타나고 있으며, 401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22%로 나타난다. 특히 100만원이하, 15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양육비의 부담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간계층에서는 다소 부담률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고소득층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6〉 소득계층별 가구소득대비 양육비 비율

다. 아동 돌봄노동 시간

1) 아동돌봄의 구체적 내용

아동돌봄의 구체적인 행동 및 내용들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의 의식주 생활을 돌보는 것이지만, 아동돌봄은 이러한 물리적 생활 외에도 아동의 정서 및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위한 애정활동도 필요하고, 의료 및 간호활동, 그리고 교육관련 활동 등이 포함된다.

아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행동들은 무엇이며, 이 행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세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동돌봄과 관련된 노동시간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내에서 아동돌봄만을 위해서 별도로 수행하는 행동도 있지만(책읽어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가족구성원을 위한 행동과 아동을 위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아동돌봄 노동시간만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로,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식사를 준비하는 행동이라든지, 세탁을 하는 행동, 청소를 하는 행동 등에는 아동의 다른 가족원을 위한 시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엄격히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돌봄과 관련된 행동의 측정에는 아동의 다른 가족원에 대한 노동시간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측정결과가 다소 과다측정(overestimate)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노동시간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동돌봄과 관련된 시간을 망라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3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돌봄에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데 소비한 주요행동들을 망라하여 여기에 소비되는 모든 시간들을 포괄하여 정의한다. 특히 아동을 돌보는데 소비한 주요 행동들에(primary activities) 소비되는 시간 뿐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부행동(subsidiary activities)에 소비되는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식사준비를 한 다거나, “세탁기를 돌리면서” 아이와 놀아준다는 등의 두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부행동은 아동돌봄의 전체 시간 중에서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간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Zick & Bryant, 1996) 돌봄노동시간 측정에서 절대로 누락시켜서는 안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돌봄코드를 개발하였는데, 돌봄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동양육과 관련된 행동영역을 크게 위생관련, 식사관련, 가사활동 관련, 정서관련, 배설관련, 외출관련, 의료·간호관련, 교육관련, 기타 등의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나열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돌봄노동 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¹⁵⁾. 또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돌봄코드의 구성내용 외에도 돌봄 노동자 자신이 돌봄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동까지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2) 1일 평균 돌봄시간

아동을 돌보는데 사용되는 1일 평균 돌봄시간을 어머니의 돌봄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전체 돌봄노동시간은 11시간 36분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들은 하루의 반을 돌봄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수면시간 6-8시간을 제외한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돌봄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5) 자세한 돌봄코드의 내용은 3장 3절 실태조사 참조.

전체 돌봄노동시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식사활동(3시간 30분), 정서활동(2시간 19분), 가사활동(1시간 49분), 외출활동(1시간 20분) 등이었다. 특히 식사활동에는 물론 가족 전체를 위한 식사활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을 엄밀히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족전체를 위한 식사활동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돌봄에서는 정서적인 돌봄의 시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아이와 얘기하면서 놀아주기, 노는 것 지켜봐주기, 아이가 TV 등을 볼 때 옆에서 지켜봐주기, 기타 안아주기, 쓰다듬어 주기 등의 애정관련 행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노는 것 지켜보기”와 같은 행동은 아동돌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노동일 수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함께 놀아주기”와 같은 적극적인 돌봄 외에도 아동이 위험을 당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는 것 지켜봐주기”와 같은 수동적인 돌봄 노동 역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1일 돌봄시간을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일에는 11시간 3분으로, 주말에는 12시간 44분으로 주말 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주말노동시간이 증가한 부분은 식사준비, 취침활동, 외출활동의 영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평일과 다른 주말의 특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주말에 보다 특별한 식단을 준비한다거나, 주말에 식구가 모여 있거나 손님 방문 등으로 취침시간이 길어진다면, 외식 및 방문 등을 위한 외출활동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표 3-15〉 어머니의 1일 평균 돌봄시간

구분	전체	평일	주말
위생활동	48분	48분	48분
식사활동	3시간 30분	3시간 19분	3시간 54분
가사활동	1시간 49분	1시간 50분	1시간 48분
정서활동	2시간 19분	2시간 8분	2시간 41분
취침활동	57분	55분	1시간 00분
배설활동	19분	18분	21분
외출활동	1시간 20분	1시간 10분	1시간 41분
의료간호활동	11분	11분	10분
교육활동	22분	24분	20분
전체 시간	11시간 36분	11시간 3분	12시간 44분

3) 아버지의 돌봄시간

한편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어머니의 11시간 36분에 비해서 1시간 17분으로 나타나,

양육참여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평일에는 45분에 불과한 반면 주말에는 2시간 20분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대부분 주말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하는 돌봄노동은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정서활동에서만 확연히 나타난다.

〈표 3-16〉 성별 돌봄 시간

	어머니			아버지		
	전체	평일	주말	전체	평일	주말
위생활동	48분	48분	48분	5분	4분	8분
식사활동	3시간 30분	3시간 19분	3시간 54분	8분	4분	14분
가사활동	1시간 49분	1시간 50분	1시간 48분	5분	2분	9분
정서활동	2시간 19분	2시간 8분	2시간 41분	41분	25분	1시간 13분
취침활동	57분	55분	1시간 00분	4분	3분	6분
배설활동	19분	18분	21분	1분	1분	2분
외출활동	1시간 20분	1시간 10분	1시간 41분	12분	5분	24분
의료간호활동	11분	11분	10분	1분	1분	1분
교육활동	22분	24분	20분	1분	1분	3분
전체 시간	11시간 36분	11시간 3분	12시간 44분	1시간 17분	45분	2시간 20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돌봄참여가 저조하고, 돌봄시간 역시 부족한 이유는 아버지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중심적인 생활문화, 장시간 근로문화 등의 노동시장 측면의 영향력이 크다. 직장에서의 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한 현실에서 가족내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버지들의 돌봄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돌봄시간을 배려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조정, 노동문화의 변화, 일가족 양립지원의 사회 지향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4) 주요변수별 돌봄시간 비교

마지막으로 아동연령, 어머니 연령, 아동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돌봄자의 존재여부, 가구소득, 시설이용 여부 등에 따른 돌봄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동연령에서는 아동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에 비해 40대의 경우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동수는 1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보다 2명 이상의 가구에서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다($t=-5.975^{***}$). 즉 아동수가 많으면 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돌봄시간에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t=-17.762^{***}$). 취업모의 경우 이중노동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의 최소화 혹은 노동시간의 압축적 사용전략 등으로 인하여 비취업모에 비해 훨씬 짧은 노동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취업모의 시간이 13시간 20분인데 비해 취업모 역시 8시간 40분으로 나타나 이들의 돌봄시간의 절대량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돌봄자의 존재 역시 돌봄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86^{***}$).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는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보다 돌봄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경제수준별로도 돌봄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23^*$). 본조사의 응답가구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계층을 150만원 이하, 151~350만원 이하, 350만원 이상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 소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중간수준의 소득계층(151~350만원 이하)이 낮은 소득계층과 높은 소득계층에 비해 돌봄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및 보육관련 시설의 이용여부에서도 돌봄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47^{***}$).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계층보다 돌봄시간이 다소 짧게 나타났지만, 시설이용 여부가 돌봄 절대시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아서 여전히 가족내 돌봄시간의 일정부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¹⁶⁾.

〈표 3-17〉 주요변수별 1일 평균 돌봄시간 비교

변수		n	돌봄시간	t/F
아동 나이	0~2세 이하	146	11시간 43분	.268
	3~4세 이하	103	11시간 40분	
	5~6세 이하	152	11시간 28분	
어머니 나이	20대	84	11시간 49분	.411
	30대	302	11시간 32분	
	40대	15	12시간 3분	
아동 수	1명	237	10시간 50분	-5.975 ^{***}
	2명	164	12시간 43분	
취업 여부	취업모	148	8시간 40분	-17.762 ^{***}
	비취업모	253	13시간 20분	
부돌봄자 존재 여부	있음	81	10시간 13분	-4.086 ^{***}
	없음	320	11시간 57분	
가족 소득	150만원 이하	140	11시간 24분	3.023 [*]
	151만원~350만원 이하	155	12시간 6분	
	350만원 이상	106	11시간 11분	
시설이용	이용	271	11시간 11분	-4.047 ^{***}
	이용하지 않음	130	12시간 29분	
전체		401	11시간 36분	

* $p<.05$ *** $p<.001$

16) * = $p<.05$, *** = $p<.001$

라. 돌봄의 심리정서적 부담정도

1) 심리정서적 부담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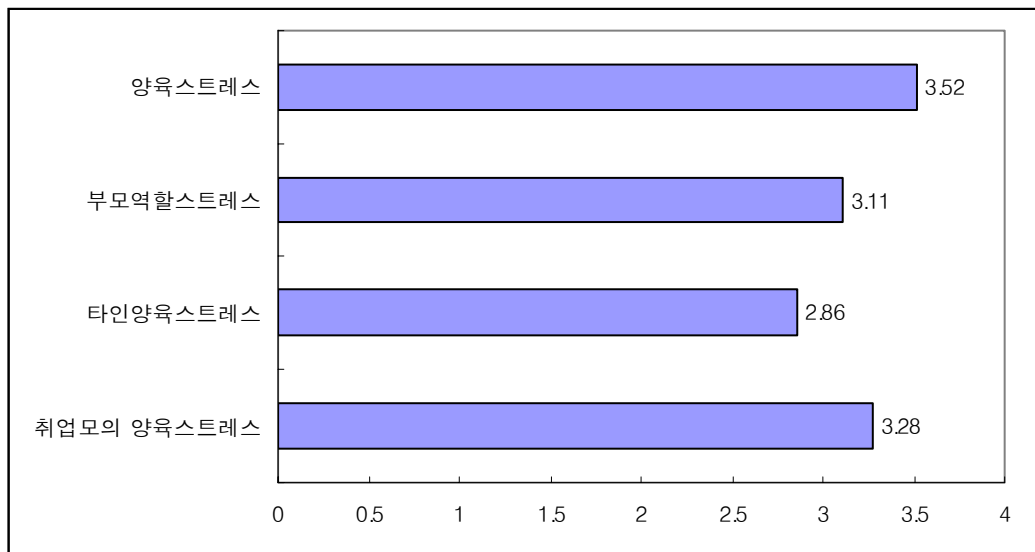
아동돌봄자로서 여성들은 돌봄자로서의 역할긴장과 갈등,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아이를 키우는 일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힘듦이 있고, 육아로 인하여 다른 일들(집안일, 어머니 자신의 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며, 육아로 인한 수면부족, 생활방식 및 시간사용의 변화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긴장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할긴장을 낳기도 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결과하게 된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다. 부모역할을 적절히,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역할 긴장, 육아정보 및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정보부족,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부모로서의 모임참가 등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혹은 시설이나 부모외 타인양육(non-parental care)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부모로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이를 위탁한 시설이나 대상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있다.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의 성장에 대한 불안과 주변의 관심 및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의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위기 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빚어지는 갈등 및 스트레스, 그리고 이중노동부담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조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어머니들이 아동을 돌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심리정서적 부담을 살펴보았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5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3.28), 부모역할 스트레스(3.11), 타인양육 스트레스(2.86)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돌봄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하위영역별 스트레스

2) 주요변수별 심리정서적 부담정도

가) 양육 스트레스

4가지 하위척도 중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변수별 특성에 따른 이들의 심리정서적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연령, 어머니연령, 아동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돌봄자의 존재여부, 가구소득, 시설이용 여부 등에 따른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가져다주는 주요 변인은 아동수, 아동연령, 모의 취업여부를 알 수 있다.

아동수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수가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4.50^{***}$). 또한 아동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연령이 어린 경우(만2세이하, 만4세이하)가 만6세 이하의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89^{**}$)¹⁷⁾.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t=-2.46^{*}$)¹⁸⁾. 이는 흔히 지적되는 “종일어머니”의 양육전담 형식이 어머니에게나 아동에게나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주지는 않는다는 논리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컨대 조혜정(1991)은 핵가족 안에 갇힌 주부가 전담하는 육아현실이 핵가족화와 사회적 고립성으로 인하여 노동의 고통, 아이에 대한 거부감 등이 나타날 수

17) *= $p<.05$, ***= $p<.001$

18) **= $p<.01$

있으며, 어머니 역시 아이로부터 휴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3-18〉 양육 스트레스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값 (사후검증)
아동수	1명	237	3.40	.65	-4.50***
	2명 이상	164	3.70	.68	
취업여부	취업모	148	3.41	.72	-2.46*
	비취업모	253	3.58	.64	
아동연령	2세 이하	146	3.58	.61	5.89** (1,3)(2,3)
	4세 이하	103	3.64	.65	
	6세 이하	152	3.37	.73	

* p<.05 ** p<.01 *** p<.001

나) 부모역할 스트레스

아동연령, 어머니연령, 아동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돌봄자의 존재여부, 가구소득, 시설이용 여부 등에 따른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아동수, 소득수준, 시설이용 여부 세 변인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확인되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아동수에 따라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났다($t=-4.10^{***}$). 즉 아동수가 많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아동이 많을수록 양육 과정에 요구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역할긴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별로도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소득이 많은 계층에 비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F=4.112^{**}$). 소득수준을 응답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15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 150-350만원을 중간 소득층, 350만원 이상을 상층 소득층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 상-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지의 여부 또한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2.981^{**}$)¹⁹⁾. 이는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아이의 성장과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 *= p<.05, **= p<.01, ***= p<.001

〈표 3-19〉 부모역할 스트레스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값 (사후검증)
아동수	1명	237	3.00	.61	-4.10***
	2명 이상	163	3.27	.69	
소득수준	상	140	3.18	.67	4.112** (1.3)
	중	189	3.13	.64	
	하	72	2.92	.57	
시설이용여부	이용	270	3.18	.633	2.981**
	이용하지 않음	130	2.97	.673	

P<.01 *P<.001

마. 정책지원 욕구

마지막으로 가족내 아동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교육과 관련된 지원, 취업부모를 위한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제공, 예방접종 등의 의료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 정책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각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은 “보육비 지원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지원으로 꼽고 있었다. 두 번째 지원욕구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그리고 3순위로 “자녀교육 및 보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나타나 아동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욕구로 나타냈다.

〈표 3-20〉 정책지원 욕구¹⁾

1순위	2순위	3순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자녀교육 및 보육비 소득 공제 확대

¹⁾ 각 순위별 빈도수에 가중치(×3, ×2, ×1)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임

보다 구체적으로 각 순위별로 요구한 정책지원의 내용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일관적으로 아동돌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확대, 그리고 자녀교육 및 보육비 소득공제 확대, 영아기 무료 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가정에서 아동돌봄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게 경험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이용욕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이 나온 것은 그만큼 아동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출이 개별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외국과는 달리 유자녀가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²⁰⁾.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30.2%)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 사항이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4.8%에 불과한 현실에서(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매우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보육시설은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민간시설 위주의 확충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제2절. 아동 돌봄지원 관련 외국 정책사례

1. 정책동향

아동돌봄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전통적으로 개별 가족내에서 수행되어 온 아동양육을 사회화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아동양육의 사회화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첫째, 공식적인 시설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양육을 보육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취업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이인소득자 사회(dual-earner society)로의 이전과정에서 보육서비스는 이러한 변화과정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전제요소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취업 증가와 더불어 보육정책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3세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육서비스 제공책임을 의무화 하고 있다.

둘째, 가족내 아동돌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노동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때 현금지원은 양육수당, 혹은 육아휴직수당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핀란드, 덴마크), 취업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 혹은 포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프랑스).

셋째, 가족내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양육수당과는 달리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일정기간 휴가제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부모휴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일정기

20)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동수당이다. 세계적으로 아동수당은 국가가 유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다.

간의 휴가를 제공하며, 이때 휴가기간의 임금보전을 위한 휴가급여 지급과 고용보장이 병행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넷째, 개별가정에서 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법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민간보육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2세이하 아동양육의 경우에 민간보육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별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하든지, 등록된 보육사로 구성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돌봄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주요 경향성은 보육서비스의 확대제공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경향성은 민간보육서비스의 활성화 경향이다. 핀란드나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보육책임을 서비스 제공의 책임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변화시키면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보육수당제도는 한편으로는 개별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보육 제공의 국가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국가별 변화와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제도의 의미 역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댓가지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으로 통하여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재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성별분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노동권리와 연결하여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후에서는 주요국가의 아동돌봄 관련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연구 대상국가는 개별가족의 아동돌봄을 상당정도 사회화 시키고 있는 국가의 예로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국가는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발달시키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및 목적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개입은 프랑스의 오랜 출산장려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하에서 발달되어 왔으며 이는 스웨덴의 완전고용과 평등주의의 복지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의 제공 및 발달에 있어서도 두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는 차별성이 있다.

2. 주요국가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출산장려주의 정책에 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가족정책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왔다. 특히 조기아동기는 프랑스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개입의 합법적인 개입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가족의 아동돌봄 역시 가족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개별가족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 및 보육수당제도와 부모휴가 및 보육서비스 등이 발달해 왔다. 특히 아동돌봄의 사회화 영역으로서 보육서비스는 조기교육의 일환으로서 일찍부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별가족 내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내 아동돌봄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하게 되었다. 아동돌봄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고 가족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수당(APE)을 지불함으로써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 아동수당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아동수당제도가 발달해 왔으며, 2002년 현재 GDP의 3%를 구성할 정도로(Sleeboos, 2003)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기본전제는 아동양육에 드는 직, 간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여 개별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Letablier, 2003).

아동수당은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며, 아동이 16세(의무교육 기한)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기본원칙은 보편적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모든 거주민으로 하고, 아동의 거주조건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또한 합법적인 관계내에서 출생한 아동 뿐 아니라 비합법적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등을 모두 포괄하며, 아동수당 급여는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프랑스의 아동수당은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2001년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2자녀의 경우 703 FRF, 3자녀 1,604 FRF, 4자녀 2,504 FRF, 5자녀 3,404 FRF, 6자녀 4,305 FRF, 이후 자녀 1인당 901 FRF 씩 추가된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11세 이상은 198 FRF, 16세 이상은 351 FRF의 추가급여가 지급된다(CERC, 2004).

2) 부모휴가

프랑스의 부모휴가정책은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며, 이는 프랑스의 오랜 전통인 “출산 장려주의”와 “친가족주의”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셋째 자녀 이후부터 관대하게 제공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개별가족의 아동 돌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구정책으로서의 정책성과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모성휴가제도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유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부모휴가제도는 무급으로 제공된다²¹⁾. 부모휴가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은 1977년이지만, 부모휴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5년 양육수당을 통해서이다.

프랑스의 모성휴가의 특징은 역시 자녀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인데, 두 번째 자녀까지는 일반적인 휴가기간이 제공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휴가기간이 총 26주로 늘어난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22주,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46주가 제공된다.

〈표 3-21〉 프랑스의 모성휴가

자녀수(명)	모성휴가		전체(주)
	출산전(주)	출산후(주)	
1~2	6	10	16*
3	8	18	26
쌍둥이	12	22	34
세쌍둥이	24	22	46

* 이상 임신의 경우 출산전 2주의 추가휴가가 제공된다.
자료: SSA, 1999; MISSOC, 2004

프랑스 부모휴가제도는 저출산시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다시 개정되어 2005년부터는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아예 취업을 중단하고 12개월간 월 750 EUR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모성휴가의 경우도 세 번째 아이부터는 휴가기간이 40주로 증가된다.

3) 양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APE)

양육수당(육아휴직수당)이란 부모중 한사람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특히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개별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 휴직 중인 부모에게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에 따라

21) 대신에 부모휴가를 통하여 부모중 한사람이 취업을 중단할 경우 양육수당(APE)이 제공되어 일부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다. 본연구 3. 양육수당 참조.

서는 육아휴직수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프랑스에서는 부모휴가기간에는 급여는 없지만, 대신 양육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부모휴가 기간 중 노동의 중단상태에 따라서 급여액은 완전노동중단, 50% 이하 노동, 50~80% 노동 등의 형태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표 3-22〉 APE 급여액(2001)

분류	노동중단상태	급여액(월, FRF)
전액 APE	완전 노동중단	3,131
부분 APE	법정노동시간의 50% 이하 노동	2,071
	법정노동시간의 50~80% 노동	1,566

자료: MISSOC, 2001

프랑스의 양육수당은 1985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양육수당의 의미가 다소 왜곡되고 있다. 양육수당의 원래 의도는 취업 중인 부모의 부모휴가기간 동안 양육노동에 대한 댓가, 혹은 상실임금에 대한 부분적 보전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당면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 속에서 취업부모들로 하여금 가족으로 돌아가 양육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양육수당제도의 주수급자가 99%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가족내 성별분업을 온존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양육수당은 자격요건을 계속 완화, 확대함으로써(표3-52 참조) 부모의(주로 모) 가정내 양육을 유도함과 동시에 실업모 및 직업훈련 중인 모, 구직자까지도 가정에 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양육수당제도는 여성취업과 성별분업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Fagnani, 2003; Letablier, 2001).

〈표 3-23〉 양육수당(APE)의 개정과정

연도	자격요건
1985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 2세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
1994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완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확대
2004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 6세미만으로 완화

자료: 홍승아, 2005

4) 보육서비스 및 보육수당

가) 보육서비스

국가의 강력한 출산장려주의, 인구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에 기반하여 프랑스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조기교육의 형태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2세이하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공공보육시설(Crèches)이나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개별보육의 형태로 보살펴지고 있으며, 3~6세미만 아동의 거의 대부분이 유치원(Ecole Maternelles)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아동중심적 가족정책에서 지원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부모들의 아동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재원의, 공식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책임양육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나) 보육수당

한편 최근에는 공공시설의 보육서비스 뿐 아니라 개별 가족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비용분담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선택”,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이용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가정에서 보육사(personal caregiver)를 개별적으로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부문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우선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 AGED)이 있다. 이 수당제도는 1987년 도입되었는데, 부모가 모두 취업한 개별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된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충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 AFEAMA)가 있는데, 이 제도는 등록된 보육교사(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교사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이러한 보육수당제도는 부족한 공보육과 당면한 실업문제의 해법으로 발전된 것이지만, 아동돌봄 서비스를 사회화시키는 또 다른 형태로 평가된다. 앞서 공보육서비스가 공공재원의, 공식화된 서비스를 특징으로 제공되는데 비해, 보육수당제도는 공보육서비스 제공의 책임 대신에 개별가족의 보육부담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육수당제도는 최근의 실업율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객관적 배경을 형성하여, 보육사의 고용창출, 공보육 서비스 부족 및 제공 부담의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홍승아, 2005).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

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아동돌봄 정책은 현금지원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가족지원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금지원 정책으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있으며,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취업부모가 취업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별가족 내에서 민간보육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육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수당제도가 있다.

나. 스웨덴

스웨덴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대표적 복지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 공보육, 노인케어, 건강케어, 무료교육 등이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기반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족지원정책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가족지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개별가족의 아동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재분배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생활조건을 균등하게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개별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광범위한 공보육 프로그램, 유급 부모휴가,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프로그램, 주거수당, 그 외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 임신부에 대한 무료 산전검진,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건강진료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아동돌봄 관련정책은 가족내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가족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사회화시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 서비스적 지원, 시간적 지원이 공공정책을 통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여러 가지 가족지원정책 중에서 아동돌봄과 관련된 지원정책으로는 아동수당, 보육서비스의 제공, 부모휴가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현금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엄격히 보면 양육에 대한 지불의 의미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동빈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를 지향하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16세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족의 아동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된다. 2005.10월 아동수당제도는 개정되어 2006년부터는 급여액의 증가와, 아동당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대가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질적 증액을 시행하였다. 아동당 월 1,050SEK 급여액에 추가 아동 1인당 100SEK를 추가제공하고 있다.

〈표 3-24〉 스웨덴 아동수당 급여액

아동수	월급여액	대가족 추가지급	전체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5	5,250	2,364	7,614

자료: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 보육서비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가족내 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사회화시킨 형태로, 공공재원의 지원(public funding)으로 공식화된 서비스(formal service)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일찍부터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따라서 개별 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발달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스웨덴의 공보육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런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저렴한, 양질의,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공보육은 스웨덴 복지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 사회에서 30년 이상 보육문제는 국가의 우선적 정책과제이었으며, 관련법 개정 등에서도 의회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역시 70년대 초의 정책구상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 목적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Swedish Institute, 2004).

보육서비스의 종류는 전체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전 아동과 취학아동으로 분류하여 제공된다²²⁾.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치원(pre-school),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개방 유치원(open pre-school) 등의 형태가 제공된다.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레저센터(leisure-time centres),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개방 레저센터(open leisure-time activities) 등이 있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가족내 아동돌봄을 사회화시킨 형태로, 서비스의 질이 매우 균질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

22) 법적으로 부모가 일하거나 학생인 경우, 1~12세 아동은 보육의 권리를 갖는다(Starting Strong).

히 모든 지역에서 분권주의 하에서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새로운 추진력으로 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일련의 개혁과정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첫째,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을 종전의 취업 및 학업부모를 대상으로 한데 비해 대상층을 확대하여 실업, 부모휴가 중인 부모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1일 3시간의 의무 제공요건을 확보하여 보육접근권을 넓혔다. 둘째, 공보육의 강화와 부모의 이용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통하여 모든 아동들이 이용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무료사용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개별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고, 국가의 책임하에 아동양육이 가능토록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2002년 1월에는 보육비 상한제도(Maximum Fee)를 도입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유치원 이용의 경우 이용료를 가족수입의 1~3% 이내에 부담토록 하였으며, 자녀수와 자녀서열에 따라 이 부담완화율도 달라진다²³⁾.

2003년에는 4,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제도를 도입하여 1년에 최소 525시간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4,5세 연령층에 대해서는 보편적 보육권리가 일정정도 확보된 셈이다²⁴⁾.

이러한 정책하에서 0~1세 아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 돌봐지고 있지만(이들은 집에서 부모휴가를 이용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5~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1~6세 아동의 64%가 전일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6~9세 아동의 91%는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6~9세 아동의 65%가 레저타임 센터나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가족내 아동돌봄의 상당부분이 사회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스웨덴의 공보육 발달은 가족형태의 변화, 젠더역할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족내 돌봄기능이 사회적 영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소규모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내 젠더역할은 크게 완화되어 성평등의 기반을 제공한 역할을 하였다.

3) 부모휴가제도

스웨덴의 부모들의 일반적인 양육형태는 0~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아동을

23) 2002년의 경우 첫아이에 대해서는 1,140SEK,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760SEK,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380SEK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Facts about Sweden).

24)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보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지만, 아동들은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돌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5~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즉 초기 양육기에는 부모의 직접 양육(parental care)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양육기를 지나면 사회적 양육(non-parental care)을 지향한다.

사회적 양육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초기 양육기 부모의 직접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휴가제도를 통하여 부모들이 취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부모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74년 종전의 모성휴가 대신에 “평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목표로 하여 남녀의 평등한 부모역할 수행과 책임을 위하여 부모휴가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스웨덴의 부모휴가정책은 1974년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가장 포괄적이며 관대한 휴가정책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긴 휴가기간(480일)과 높은 급여대체율(종전임금의 80%)의 특성으로 부모휴가제도는 제도적 관대성을 표명함과 동시에, 부할당제도 및 부성휴가제도 등을 통하여 남성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480일의 휴가기간 중 여성할당기간과 남성할당기간을 각각 60일씩 규정하여, 각 성의 의무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비양도성 개별권리로 규정하여 반드시 해당 성만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시행의 결과 스웨덴은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제3절.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내 아동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및 정책내용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의 제고를 통한 공보육서비스의 강화이다.

조사대상자의 94.5%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살고 있으며, 이들의 약 80%가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양육으로 돌보아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부모의 양육, 즉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가족내에서 어머니들이 수행하고 있는 아동돌봄의 노동시간은 1일 11시간 36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핵가족 시대에 개별가족내 아동돌봄은 어머니 개인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사용되는 노동이라는 점과, 동시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돌봄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현재 보육서비스의 제공율은 매우 높은 반면 보육율은 22.3%(200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양적으로 확충된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정책 지원 욕구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을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4.2%)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욕구(30.2%)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4.8%에 불과한 현실에서(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매우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보육시설은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민간시설 위주의 확충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둘째, 개별가족의 아동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개별가정의 양육비 부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지출하는 한달 평균 양육비는 529천원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에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이 약81%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생활비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7> 참조).

특히 돌봄자인 어머니들이 원하는 정책지원 욕구에서도 “보육비 지원확대”가 가장 높은 욕구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가정에서 아동돌봄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게 경험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과는 달리 유자녀가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²⁵⁾.

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양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가족의 아동돌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들의 돌봄참여를 위하여 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돌봄 시간조사에서 어머니들의 과중한 노동시간에 비하여 아버지들의 돌봄시간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평일에는 45분에 불과한 반면 주말에는 2시간 20분으로 증가하였지만, 역시 어머니의 전담양육 형태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

25)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동수당이다. 세계적으로 아동수당은 국가가 유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돌봄참여가 저조하고, 돌봄시간 역시 부족한 이유는 아버지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중심적인 생활문화, 장시간 근로문화 등의 노동시장 측면의 영향력이 크다. 직장에서의 시간이 지나치게 과도한 현실에서 가족내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버지들의 돌봄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돌봄시간을 배려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조정, 노동문화의 변화, 일가족 양립지원의 사회 지향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취업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돌봄시간은 비취업여성에 비하여 짧게 나타나는 반면,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일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에서는 더 많은 사용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취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의 경제적 자원으로 해결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취업여성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우선입소시킨다거나, 취업여성의 아동보육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그 외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내각부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국가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프랑스의 경우에는 “굳이 말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즉 소극적인 긍정적인 응답(47.5%)과,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인 부정적인 응답(22.6%)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굳이 말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즉 소극적인 긍정적인 응답(38.7%)과,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인 부정적인 응답(36.7%)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부정 응답(40.0%)과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인 부정적인 응답(39.8%)의 순으로 나타나, 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아이키우기 힘든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5〉 출산과 관련한 국민의식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프랑스	20.5	47.5	22.6	7.9	1.5
일본	9.0	38.7	36.7	13.6	2.1
한국	3.6	15.0	39.8	40.0	1.6

자료: 일본내각부. <소자화사회에 관한 국제의식조사>

제 4 장. 노인 돌봄과 정책방향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위원)

2005년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1%이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이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와 돌봄 기간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노인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특히 여성이 주로 떠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노인 돌봄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족은 매우 심각한 노인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은 가족내 노인 돌봄자의 부족으로 이어져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한 현시점에서 가족의 노인 돌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돌봄 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실태조사 개관

가. 조사설계

조사 대상 가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400가구이다. 조사는 질문지와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는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 후 조사내용을 응답 받는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일지는 작성방법을 알려 준 후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간일지 작성 시일은 가구당 총 3일로 주중 2일, 주말은 1일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구의 돌봄자이다.

돌봄자는 첫째, 돌봄대상 노인과 함께 동거 하는 가족이나 친척(노인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무급으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다. 둘째, 노인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매일 일정시간을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 역시 무급이어야 한다.

돌봄대상노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ADL과 IADL 문항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항목이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나 중풍 이외에 다양한 질병에 의한 의존성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였다. 노인의 질병 상태는 허약과 경증 중증이 고르게 표집 되도록 하였다. 질병의 종류는 치매와 치매이외로 크게 나누어 표집하였다.

부돌봄자는 주돌봄자가 판단하기에 ‘자신 다음으로 노인을 많이 돌보는 사람’이며, 주돌봄자와 마찬가지로 노인과 동거할 필요는 없으나 비동거인 경우에는 ‘주돌봄자의 취업, 질병 등등의 사유로 매일 일정 시간 이상 노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하였다. 주돌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부돌봄자가 없을 수도 있다.

나. 조사 도구 및 내용

조사 도구는 돌봄 노동 시간 총량 파악을 위한 시간일지와 돌봄 스트레스, 가구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돌봄 노동 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 도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일지(Time Diary)

시간일지는 하루 24시간의 돌봄 노동 시간을 매 10분 단위로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3일로 하되 주말 1일, 평일 2일로 하여 주말은 반드시 포함하였으며 이는 주말과 평일의 돌봄 노동의 내용과 시간 총량의 차이를 고려 한 것이다. 기록 방식은 돌봄 노동을 행하는 경우만 일지에 기록하되 돌봄 노동에 대한 행동 분류를 세분화된 코드를 제시하여 조사 대상자가 참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하루 24시간 기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행동 시간 누락을 줄이기 위해 돌봄 행동이 아닌 일반 활동도 대분류로 제시하여 24시간의 활동 전체를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돌봄자의 돌봄 행동 시간을 기입하여 부돌봄자의 돌봄시간도 함께 측정하였다.

2) 돌봄 노동 코드(Care Work Code)

본 연구에서 돌봄 노동 코드는 크게 10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소분류 행동을 제시하였다. 10개의 대분류 항목은 개인위생, 이동, 식사, 배설, 가사활동,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그 외 감시관련, 기타 등이다. 가사활동의 경우 노인 돌봄을 위한 가사 활동과 다른 가족원을 위한 가사 활동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노인 돌봄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사 활동을 알아보고자 코드에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노인을 위한 활동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활동으로 따로 코딩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조사대상자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는 노인 돌봄자의 시간일지 기록을 통해 돌봄 노동 코드 개발의 탐색적 연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돌봄 코드 분류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돌봄자들이 돌봄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모두 돌봄 노동의 범주로 넣는 것으로 하여 돌봄의 내용을 발굴하는데도 의의를 두었다. 이에 선행 연구에 의해 개발된 돌봄코드 이외에 조사대상자가 돌봄 행동으로 간주하고 수행하는 행동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사 완료 후 자료 입력시 코드로 추가된 항목들이 있는데 610번 노인 배웅과 마중, 806번 미디어 이용 함께 보기/책/성경책 읽어드리기, 807번 돌보기, 관심 표현 시중들기, 확인하기 등이 추가 되었다.

〈표 4-1〉 노인 돌봄 코드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2.1. 개인 위생	101 몸단장하기 102 옷 입히기 103 세수시키기 104 양치질하기 105 머리감기기 106 목욕시키기 107 기타 위생관련	2.6. 외출	601 가까운 거리 산책 다녀오기 602 병원 다녀오기 603 배회노인 데려오기 604 외출 준비시키기 605 종교활동 함께하기 606 외부가족행사 참여 도와주기 607 여가 및 문화활동 도와주기 608 기타 외출 609 이동 610 노인 배웅 및 마중
2.2. 이동	201 돌아 눕히기 202 일어나 앉히기 203 옮겨 태우기 204 방밖으로 나오기 205 마당으로 나오기 206 기타 이동 207 잠과 관련해서 부축	2.7. 치료 및 재활	701 약먹이기 702 욕창 처치하기 703 집/근처 운동 해주기 704 센터/병원/단체 운동 도와주기 705 주사 놓는 것 돕기 및 관리 706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 연락 707 방문가호사 의사와의 노인건강상담 708 건강관리 정보 지식 듣기 또는 읽기 709 상처 치료하기 또는 돕기 710 한약 탕제 끓이기 또는 데우기 711 기타 치료 및 재활
2.3. 식사	301 식사도와주기 302 간식 섭취도와주기 303 음료수 먹이기 304 기타 식사	2.8. 정서적 활동	801 말벗해주기 802 함께 놀아주기 803 전화 걸고 받기 804 언어전달 돕기 805 기타 정서적 활동 806 미디어이용 함께 보기/책/성경책 읽어드리기 807 돌보기, 관심표현, 시중들기, 확인하기
2.4. 배설	401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402 대변관리 403 소변관리 404 대소변치우기 405 기타 배설	2.9. 그 외	901 배회 감시 902 폭력행동 감시 903 기타 감시 904 지켜보기
2.5. 가사 활동	501 일반 식사준비 502 노인 식사준비 503 노인 빨래, 세탁 504 일반 빨래, 세탁 505 노인 장보기 506 노인/일반구입 물건 정리하기 507 노인 방청소하기 508 노인침상정리정돈 509 기타 가사 활동 510 일반 청소하기 511 일반 장보기 512 노인 외 가족 관련 돌보기	2.10. 기타	110 노인 방문 손님 대접하기 111 돌봄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버리기 112 공공기관 심부름하기 113 수발 보조 기구 정리하기 114 기타 수발관련 정보 수집 및 기록하기

3) 돌봄 스트레스 척도

돌봄 스트레스 척도는 Kosberg, Jordan I. 외(1986, 1990)의 Cost of Care Index(CCI)를 사용하였다. 5개 영역(개인적 사회적 제약, 신체적 정서적 건강,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 돌봄대상 노인 관련(Care Recipient as provocateur, 경제적 비용)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노인의 기능장애 평가 판정 척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6개 항목과 수단적 일상생활작수행능력(IADL)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ADL의 세부 항목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이며 IADL은 대소변조절하기,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 약복용하기, 물건사기이다. 기능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혼자서 한다”의 3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5)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 노인의 특성

돌봄제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관련 사항, 가구소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돌봄대상 노인의 성, 연령을 비롯하여 상병기간, 기능정도와 현재의 돌봄제공자가 노인을 돌본 기간도 조사하였다. 그밖에 노인과 돌봄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돌봄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돌봄 동기의 자발성 여부, 돌봄 노인과 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6) 돌봄 지원 네트워크 및 시설과 서비스 이용과 경제적 비용

노인 돌봄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로는 가족이나 친척의 시간 및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노인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돌봄 비용과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7) 돌봄 지원 욕구

돌봄 지원 욕구는 사회적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돌봄 지원의 큰 방향은 비용, 시간,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영역별로 외국의 사례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돌봄자의 특성

노인 돌봄자의 83.3%가 여자이며, 평균연령은 55.25세이다. 40대가 25.0%로 가장 많고, 60대가 21.5%이고, 70세 이상은 20.8%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는 13.5%로 나타났다. 또한 85%가 기혼이고, 이들의 건강상태는 45.8%가 동일한 연령에 비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1%에 불과하다. 취업 관련을 보면, 81.5%의 조사대상자가 미취업 상태이며 18.5%만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돌봄자의 개인적 특성

		사례수(명)	빈 도(%)
성 별	남 자	67	16.8
	여 자	333	83.3
	소 계	400	100.0
연령	29세이하	9	2.3
	30세-39세	54	13.5
	40세-49세	100	25.0
	50세-59세	68	17.0
	60세-69세	86	21.5
	70세이상	83	20.8
	소 계	400	100.0
혼인 상태	미 혼	26	6.5
	기 혼	340	85.0
	이 혼	12	3.0
	사 별	16	4.0
	별 거	5	1.3
	기 타	1	0.3
	소 계	400	100.0
교육 수준	초등이하	108	27.1
	중 등	53	13.3
	고 등	172	43.0
	대학이상	66	16.5
	소 계	399	100.0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40	10.0
	나쁜 편이다	143	35.8
	보 통 이 다	125	31.3
	좋은 편이다	89	22.3
	매 우 좋 다	3	0.8
	소 계	400	100.0
취업 여부	취 업	74	18.5
	미취업	326	81.5
	소 계	400	100.0

※ 돌봄제공자의 평균 연령 55.25세(SD=14.685)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돌봄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148명, 37.0%이고 며느리가 135명, 33.8%, 자녀가 100명 25%로 배우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며느리이다. 노인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부인이 남편을 돌보는 경우가 107명으로 남편이 부인을 돌보는 경우(41명) 보다 더 많다. 노인의 자녀가 주돌봄자인 경우 아들인 경우는 22명이며 딸이 돌보는 경우는 78명으로 자녀 가운데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이 남편을 돌보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경우, 딸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를 고려하면 가족내에서 여성이 주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기타를 보면 주돌봄자 본인의 할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시할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4건 있었다. 즉 조부모와 시조부모, 외조부모를 합하면 12건으로 기타 가족에서 직계인 조부모를 돌보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이외의 가족 중에 노인을 돌보더라도 대부분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돌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족 문화에서 경제적 부양과 돌봄, 양육 등이 수직적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4-3〉 돌봄자와 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주돌봄자와 노인관계		남자	여자	합계
노인의 배우자	주돌봄자의 남편	-	107	107(26.7)
	주돌봄자의 아내	41	-	41(10.3)
	소 계	41(61.2)	107(32.1)	148(37.0)
노인의 며느리	주돌봄자의 시아버지	-	27(8.1)	27(6.8)
	주돌봄자의 시어머니	-	108(32.4)	108(27.0)
	소 계	-	135(40.5)	135(33.8)
노인의 자녀	주돌봄자의 아버지	5(7.5)	7(2.1)	12(3.0)
	주돌봄자의 어머니	17(25.4)	71(21.2)	88(22.0)
	소 계	22(32.8)	78(23.4)	100(25.0)
기타	주돌봄자의 고모	0(0)	1(3)	1(3)
	주돌봄자의 형/오빠	1(1.5)	0(0)	1(3)
	주돌봄자의 첫째형/오빠	1(1.5)	0(0)	1(3)
	주돌봄자의 첫째남동생	1(1.5)	0(0)	1(3)
	주돌봄자의 할아버지	1(1.5)	0(0)	1(3)
	주돌봄자의 할머니	0(0)	6(1.8)	6(1.5)
	주돌봄자의 시할머니	0(0)	4(1.2)	4(1.0)
	주돌봄자의 시외할머니	0(0)	1(3)	1(3)
	주돌봄자의 외할머니	0(0)	1(3)	1(3)
	소 계	4(6.0)	13(3.9)	17(4.3)
계		67(100.0)	335(100.0)	4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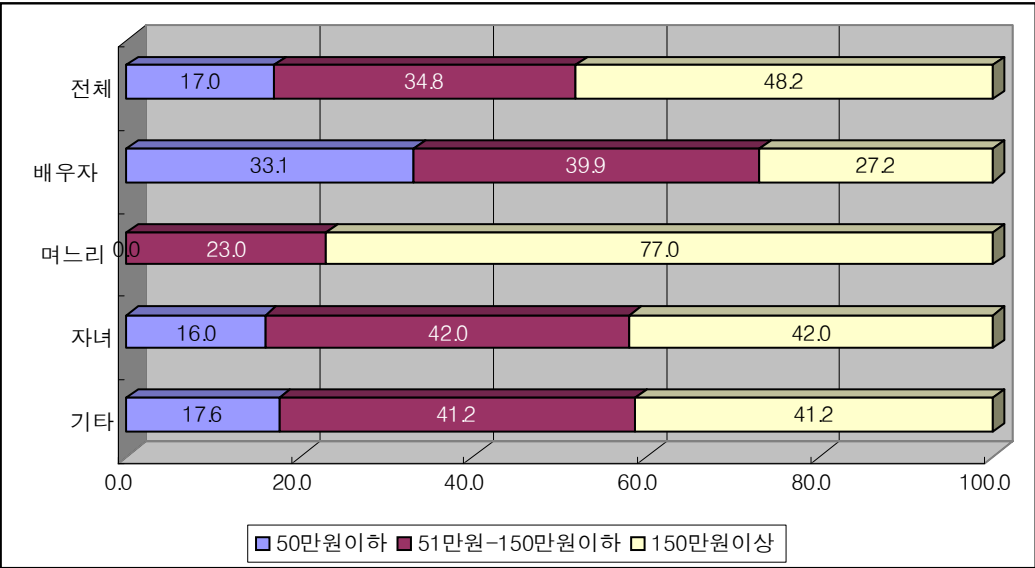
한편, 돌봄대상 노인의 가족관계별 돌봄 사유를 보면, ‘부부이므로 돌본다’는 경우가 25.5%로서 배우자 돌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남(또는 만며느리)이어서’라고 반응을 보인 경우가 23.5%,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가 없어서’ 16.3%로 나타나, 배우자 돌봄과 장남 또는 만며느리가 돌봄 사유인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가족내 가부장적 문화가 돌봄 노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자녀가 돌보는 경우 돌보게 된 사유를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자녀가 없어서 본인이 돌보게 되었다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장남이어서였다. 그리고 자녀 가운데 여성인 경우에 딸만 있는데 장녀여서(10명), 맏딸 또는 외동이어서(7명)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혼인 경우가 15명으로 이중 딸이 11명, 아들이 4명으로 미혼의 딸이 더 많았다.

〈표 4-4〉 돌봄대상 노인의 가족관계별 돌봄 사유 비교

(단위: 명, %)

	가족관계별						
	배우자	며느리	자녀			기타	전체
			남	녀	소계		
장남(또는만며느리)이어서	-	80(59.3)	13(59.1)	1(1.3)	14(14.0)	-	94(23.5)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자녀가 없어서	28(18.9)	18(13.3)	1(4.5)	17(21.8)	18(18.0)	1(5.9)	65(16.3)
형제중에 미혼인 사람이나 혼자여서	-	1(0.7)	4(18.2)	11(14.1)	15(15.0)	-	16(4.0)
딸만 있는데 장녀여서	-	-	0(0.0)	10(12.8)	10(10.0)	-	10(2.5)
부부이므로	102(68.9)	-	-	-	-	-	102(25.5)
본인을 가장 마음에 들어해서	-	5(3.7)	1(4.5)	6(7.7)	7(7.0)	1(5.9)	13(3.3)
돌볼 사람이 본인 밖에 없어서	3(2.0)	3(2.2)	0(0.0)	5(6.4)	5(5.0)	3(17.6)	14(3.5)
돌아가면서 돌봄	-	2(1.5)	-	-	-	-	2(0.5)
자녀가 없어서	-	-	-	-	-	2(11.8)	2(0.5)
취업하지 않은 며느리 또는 맞벌이 아니어서	1(0.7)	12(8.9)	0(0.0)	6(7.7)	6(6.0)	-	19(4.8)
형제간관계(다른 형제의 비협조, 장남의 사망으로, 친정 오빠벌거 등)	2(1.4)	5(3.7)	2(9.1)	8(10.3)	10(10.0)	1(5.9)	18(4.5)
계속 함께 살아와서	-	3(2.2)	0(0.0)	3(3.8)	3(3.0)	-	6(1.5)
장손이어서, 자녀가 나이가 많아서	-	-			-	2(11.8)	2(0.5)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4(2.7)	-			-	-	4(1.0)
거주지문제(가깝거나멀거나)	4(2.7)	3(2.2)			-	2(11.8)	9(2.3)
맏딸 또는 외동이어서	-	-	0(0.0)	7(9.0)	7(7.0)	-	7(1.8)
기타	4(2.7)	3(2.2)	1(4.5)	4(5.1)	5(5.0)	5(29.4)	17(4.3)
계	148(100.0)	135(100.0)	22(100.0)	78(100.0)	100(100.0)	17(100.0)	400(100.0)

돌봄자의 가구소득은 15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을 구분하였는데 150만원이하인 경우가 51.8%로 저소득층이 약간 더 많았다.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별로 보면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가족소득은 50만원이하가 가장 많고 다음이 51만원에서 100만원이하로 두 경우를 합하면 61.5%로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돌봄자의 가구 소득

2) 돌봄대상 노인의 특성

돌봄대상 노인의 평균연령은 77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75세이상-80세 미만으로 24.8%였으며 70세이상-75세미만도 22.8%였다.

〈표 4-5〉 돌봄대상 노인의 성과 연령

		사례수(명)	빈 도(%)
성 별	남 자	67	16.8
	여 자	333	83.3
연 령 (Mean=77.41, SD=8.373)	65세미만	18	4.5
	65세이상-70세미만	56	14.0
	70세이상-75세미만	91	22.8
	75세이상-80세미만	99	24.8
	80세이상	136	34.0
계		400	100.0

또한 돌봄대상 노인의 질병 상태를 보면 중증인 경우가 69.3%로 가장 많으며 다음 경증은 26.0%이며 허약상태는 4.8%이다. 질병 종류는 치매가 24.3%이고 중풍이 24.5%, 뇌혈관질환이 16.5%였다. 그 외에는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암 등의 기타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 매우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온 경우들로 전체의 34.5%이다.

〈표 4-6〉 돌봄대상 노인의 질병 상태 및 종류

구분		사례수(명)	빈 도(%)
질병상태	허 약	19	4.8
	경 증	104	26.0
	중 증	277	69.3
	소 계	400	100.0
질병종류	치매	97	24.3
	중풍	98	24.5
	뇌혈관질환	66	16.5
	기타	138	34.5
	모름/무응답	1	0.3
	소 계	400	100.0

나. 돌봄 상황

1) 가족 내에서의 부돌봄자

가족이나 친척 중에 주돌봄자를 도와주는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가 67%로 있는 경우(33%)보다 많았다. 주돌봄자와의 관계를 보면 남자배우자가 40.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시댁과 친정의 형제자매, 세 번째는 딸이었다.

〈표 4-7〉 부돌봄자 유무 및 주돌봄자와의 관계

		사례수(명)	빈 도(%)
부돌봄자	없다	268	67.0
	있다	132	33.0
주돌봄자와의 관계	남자 배우자	53	40.2
	여자 배우자	10	7.6
	아들	7	5.3
	딸	19	14.4
	며느리	8	6.1
	부모(시댁·친정)	11	8.3
	형제/자매(시댁·친정)	20	15.2
	기 타	4	3.0
	소 계	132	100.0

2) 돌봄 선택의 자발성 정도

노인을 돌보게 된 것은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인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88%로서 자발적인 돌봄선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돌봄자 변수별로 살펴보면, 돌봄자가 여자인 경우 과반수 이상이 ‘전적으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남자인 경우는 2/3정도가 ‘전적으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성이 더 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과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는 대부분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며느리인 경우는 전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돌봄자의 성, 노인과의 관계, 취업에 따른 자발성 정도의 평균점수를 분산분석한 결과 돌봄자의 성과 노인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발성의 정도가 낮는데 여성일수록, 며느리일수록 자발성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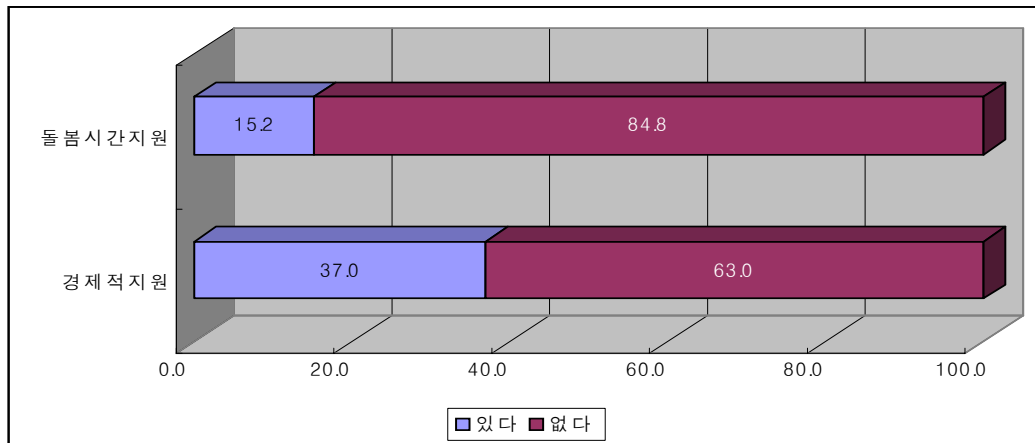
〈표 4-8〉 돌봄자의 주요 변수별 돌봄 선택의 자발성 정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전 체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자	42(10.5)	20(5.0)	2(0.5)	1(0.3)	65(16.3)	1.42(.635)	5.472*
	여 자	172(43.0)	118(29.5)	29(7.3)	16(4.0)	335(83.8)	1.67(.827)	
노인 과의 관계	배우자	118(79.7)	26(17.6)	2(1.4)	2(1.4)	148(100.0)	1.24(.542)	26.075*** (배우자-자녀; 배우자-며느리)
	며느리	41(30.4)	61(45.2)	23(17.0)	10(7.4)	135(100.0)	2.01(.881)	
	자녀	46(46.0)	47(47.0)	3(3.0)	4(4.0)	100(100.0)	1.65(.730)	
	기타	9(52.9)	4(23.5)	3(17.6)	1(5.9)	17(100.0)	1.76(.970)	
취업 여부	취 업	36(9.0)	28(7.0)	8(2.0)	2(0.5)	74(18.5)	1.68(.778)	.326
	미취업	178(44.5)	110(27.5)	23(5.8)	15(3.8)	326(81.5)	1.62(.810)	
계		214(53.5)	138(34.5)	31(7.8)	17(4.3)	400(100.0)	1.63(.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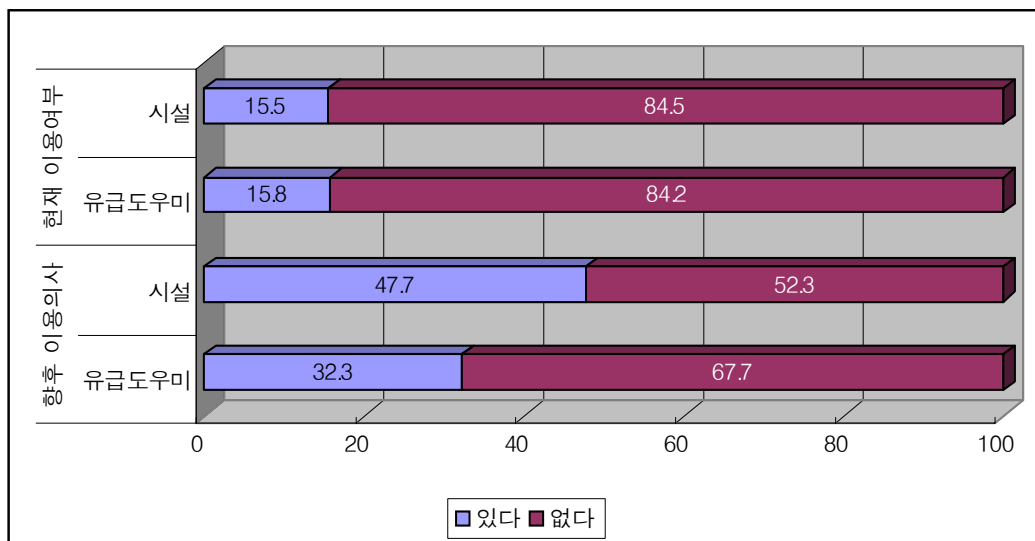
3) 지원 네트워크 및 시설과 서비스 이용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 가운데 부돌봄자를 제외하고 노인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5.2%에 불과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많아서 3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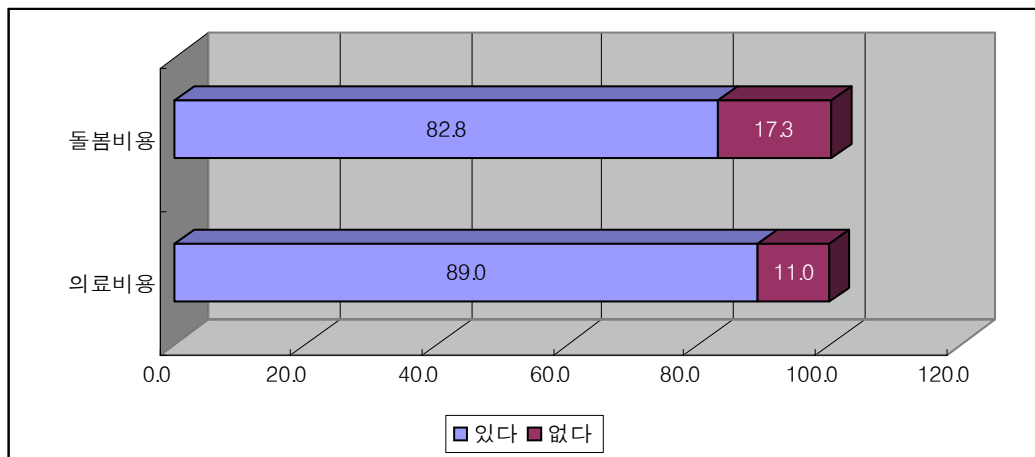
〈그림 4-2〉 돌봄 시간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여부

노인 돌봄 관련 시설과 유급 도우미 이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면 시설은 15.5%, 유급 도우미는 15.8%가 이용한 적이 있었다. 향후 이용 의사는 시설이 조금더 많아서 47.7%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유급 도우미는 32.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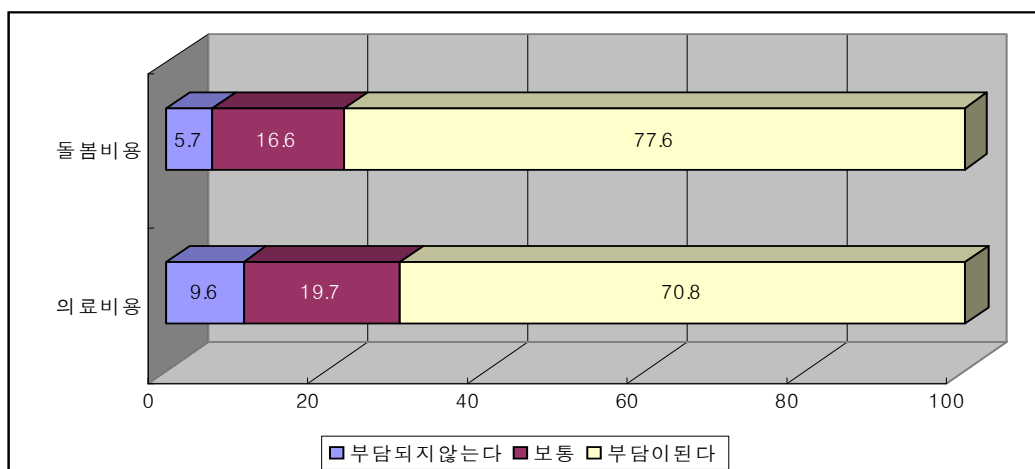
〈그림 4-3〉 돌봄 관련 시설 및 유급도우미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의사

돌봄 관련 비용은 노인을 돌봄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비용으로 환자식 비용, 기저귀 및 위생침구 비용, 침대 및 휠체어 등 의료용구 비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편리하도록 주거공간을 개조하는 비용 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질문 결과 82.8%가 ‘돌봄 비용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6개월간 노인 돌봄 관련 의료비용(약값 포함)을 지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9%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4-4〉 돌봄 비용과 의료 비용 지출 여부

노인 돌봄 관련 비용 지출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 관련 비용이 가정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가를 질문하여 부담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77.6%가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비용 지출의 경제적 부담을 질문할 결과, 70.8%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여 돌봄 비용과 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돌봄 비용과 의료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4) 생활만족도

돌봄자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대해 알아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52%가 ‘만족하지 않는다’이며 보통이다가 38.3%, ‘만족하는 편이다’가 9.8%로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4-9〉 돌봄제공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사례수(명)	빈도(%)	비 고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1점)	52	13.0	Mean= 2.45 (SD= .83905)
만족 하지 않는 편이다 (2점)	156	39.0	
보통 이다 (3점)	153	38.3	
만족 하는 편이다 (4점)	39	9.8	
계	400	100.0	

다. 돌봄 노동 시간 총량

1) 돌봄시간 총량

돌봄이 필요한 노인 1명당 돌봄 노동 시간 총량은 전체 평균 15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노인을 돌보는데 소요된 총 돌봄시간으로 본 조사에서는 주돌봄자와 부돌봄자의 돌봄 노동 시간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돌봄 행동 코드별로 살펴보면 대분류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은 가사활동으로 4시간 58분이다. 가사활동은 시간일지 작성에서 노인을 위한 활동과 일반적인 활동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조사 대상자가 돌봄시간 일지에 노인을 위한 활동으로 밝히고 기록한 경우에는 데이터 코딩 시 구분하여 입력하였으나 따로 구분하여 시간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전체 가사 활동 시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가사 활동 시간이 많이 나온 것은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대상 노인이 있는 경우 식사준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이불 빨래, 노인 방 청소 등 추가적인 가사활동이 발생하므로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은 정서적 활동으로 2시간 34분이었다. 세 번째는 식사 항목으로 하루에 2시간 22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세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1회 식사관련 돌봄시간은 약 48분 정도이다. 네 번째는 외출 관련 행동으로 1시간 15분, 다음은 치료 및 재활로 1시간 7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배설 관련 돌봄으로 1시간 1분이었다.

다음으로 주중과 주말 돌봄시간을 비교하면 주중은 총 14시간 51분이며 주말은 15시간 42분으로 주말이 평일에 비해 약 51분 정도 더 돌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코드 대분류 항목별로 주중과 주말을 비교하면 소요시간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항목별로 거의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출이 주말에 16분 정도 더 많으며 정서적 활동이 14분 더 많은데 총시간 차이는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주중과 주말의 돌봄 노동 시간 총량에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항목별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면 노인 돌봄은 동일한 노동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한 돌봄제공자의 경우 주중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돌봄 노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돌봄 노동은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일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일회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성격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는 노동으로 빨래나 청소처럼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노동 제공자는 돌봄으로 인한 몸의 구속이나 개인의 시간 제약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표 4-10〉 돌봄대상 노인 1인당 돌봄 시간 총량

노인 돌봄코드	전체 ¹⁾	주중 ²⁾	주말 ³⁾
개인위생	50분	49분	52분
이동	36분	34분	37분
식사	2시간23분	2시간20분	2시간27분
배설	1시간1분	1시간0분	1시간3분
가사활동	4시간58분	4시간59분	4시간57분
외출	1시간15분	1시간9분	1시간25분
치료 및 재활	1시간6분	1시간7분	1시간7분
정서적 활동	2시간34분	2시간29분	2시간43분
그 외	19분	18분	22분
기타	8분	6분	9분
총계	15시간10분	14시간51분	15시간42분

2) 주돌봄자의 돌봄시간

주돌봄자의 1일 돌봄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4-11>과 같다. 우선 전체 평균 1일 돌봄시간은 12시간 54분으로 거의 13시간이다. 주중과 주말은 주말이 주중에 비해 24분 정도 더 많아서 13시간 11분으로 나타났다. 돌봄시간 총량을 보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침시간 8시간과 개인 유지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돌봄 노동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 코드 대분류 가운데 가장 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가사 활동이다. 그러나 가사 활동의 경우 간접적으로 노인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긴 하나 직접적인 노인 돌봄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총 돌봄시간을 구해보았다. 가사 활동을 제외하면 8시간 21분이 돌봄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루 24시간의 1/3을 약간 상회한다.²⁶⁾ 일반적으로 하루 생활시간이 수면, 개인유지, 직업 관련 활동이 3등분되

어 구성된다고 할 때 주돌봄자의 하루 생활에서 8시간 정도가 돌봄시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돌봄이 정규 근로시간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는 활동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중과 주말은 비교하여 보면 크게 돌봄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돌봄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중과 주말의 돌봄 노동시간이 거의 비슷한 것은 돌봄 노동이 주중과 주말에 나누어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 매일 매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성격의 노동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노인이라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므로 정서적 활동도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식사도 매일 하루 세 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주당 돌봄 노동시간은 1일 평균 노동시간에 7일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가사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주당 돌봄 시간은 90시간 18분이며 가사활동을 제외하면 50시간 27분이다. 가사활동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돌봄 노동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사활동 또한 주돌봄자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돌봄자의 주당 총 노동 시간은 상당히 장시간이며 이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1〉 주돌봄자의 1일 돌봄시간

노인 돌봄코드	전체	주중	주말
개인위생	50분	49분	52분
이동	24분	23분	24분
식사	2시간 6분	2시간 4분	2시간 9분
배설	44분	44분	45분
가사활동	4시간 33분	4시간 34분	4시간 32분
외출	1시간 1분	59분	1시간 4분
치료 및 재활	55분	56분	55분
정서적 활동	2시간 2분	1시간 59분	2시간 9분
그 외 감시 관련	13분	13분	13분
기타	6분	6분	8분
총계	12시간 54분	12시간 47분	13시간 11분
가사활동 제외 총계	8시간 21분	8시간 13분	8시간 39분

26) 가사활동의 세부 내용 가운데 노인 식사 준비와 노인 빨래 등 노인 관련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시간 일지를 작성한 응답자가 있기 때문에 가사활동 전체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3) 부돌봄자의 돌봄시간

부돌봄자의 1일 돌봄시간은 평균 2시간 13분이다. 주중에는 2시간 4분이며 주말에는 2시간 32분으로 주말이 28분정도 더 길다. 돌봄 코드별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 하는 것은 정서적 활동으로 주돌봄자가 가사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과 비교된다. 다음은 가사활동(25분), 식사와 배설(각각 17분), 외출(14분), 이동(12분)의 순서로 돌봄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에는 정서적 활동-가사활동-외출의 순으로 부돌봄자의 경우 주말에 노인의 외출을 돕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부돌봄자의 1일 돌봄시간

	전체	주중	주말
이동	12분	11분	13분
식사	17분	16분	18분
배설	17분	16분	18분
가사활동	25분	25분	25분
외출	14분	10분	21분
치료 및 재활	11분	11분	12분
정서적 활동	32분	30분	34분
그 외 감시 관련	6분	5분	9분
기타	1분	0분	1분
총계*	2시간 13분	2시간 4분	2시간 32분

* 돌봄 세부내용별 평균값은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와 맞지 않을수 있음

4) 주요 변수별 돌봄시간 비교

가) 돌봄자 특성별 돌봄시간

(1) 성별 돌봄시간

돌봄자 성별로 돌봄시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성은 12시간 13분, 여성은 13시간 03분이며 F값은 4.287(sig=.039)로 1일 돌봄시간 총량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코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로 1일 돌봄시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은 식사관련 돌봄, 가사활동, 정서적 활동 등이다. 식사관련과 가사활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정서적 활동은 남성이 2시간 40분, 여성이 1시간 55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5분정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돌봄자라 하더라도 여성은 식사나 가사활동 등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돌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남성은 노인과 함께 TV를 본다든가 놀아주기 등 정서적 활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돌봄 내용에도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13〉 돌봄자 성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성	N	시간	F
돌봄시간합계	남성	65	12시간13분	4.287*
	여성	335	13시간03분	
	전체	400	12시간55분	
개인위생	남성	65	41분	5.374*
	여성	335	52분	
	전체	400	50분	
식사	남성	65	1시간47분	10.736**
	여성	335	2시간09분	
	전체	400	2시간06분	
가사활동	남성	65	3시간26분	23.618***
	여성	335	4시간46분	
	전체	400	4시간33분	
정서적활동	남성	65	2시간40분	14.083***
	여성	335	1시간55분	
	전체	400	2시간02분	

* p<0.5; ** p<0.1; *** p<0.001

성별 돌봄시간을 가족관계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표 4-14〉와 같이 남성은 가족관계에 따라 돌봄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돌봄시간은 13시간 22분이고 자녀는 10시간 30분이며, 기타가족관계는 10시간 23분으로 주로 배우자인 경우 돌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F=6.050, sig=.004). 반면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13시간 15분)와 며느리(12시간 52분), 자녀(13시간 03분), 기타가족관계(13시간 05분) 모두 돌봄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14〉 돌봄자의 성 및 가족관계별 돌봄시간

성별	가족관계	N	시간	F(Sig)
남성	배우자	39	13시간22분	6.050**
	자녀	22	10시간30분	
	기타	4	10시간23분	
	전체	65	12시간13분	
여성	배우자	109	13시간15분	.361
	며느리	135	12시간52분	
	자녀	78	13시간03분	
	기타	13	13시간05분	
	전체	335	13시간03분	

** p<0.1

(2) 취업여부별 돌봄시간

돌봄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돌봄시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1일 돌봄시간 합계를 보면 취업자는 9시간 44분, 비취업자는 13시간 38분으로 차이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36.461$, $\text{sig}=.000$). 비록 미취업자보다는 적지만 취업자의 돌봄시간도 하루 9시간44분으로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것은 취업자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돌봄 코드별로 살펴보면 개인위생, 이동, 외출, 식사, 배설, 가사활동,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기타에서 모두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돌봄시간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항목에서 취업자의 돌봄시간이 비취업자보다 짧았다.

〈표 4-15〉 돌봄자 취업여부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취업여부	N	시간	F(Sig)
총계	취업	74	9시간44분	136.461***
	비취업	326	13시간38분	
	전체	400	12시간55분	
개인위생	취업	74	41분	5.965*
	비취업	326	52분	
	전체	400	50분	
이동	취업	74	14분	5.498*
	비취업	326	26분	
	전체	400	24분	
식사	취업	74	1시간49분	9.930**
	비취업	326	2시간09분	
	전체	400	2시간06분	
배설	취업	74	28분	6.471*
	비취업	326	48분	
	전체	400	44분	
가사활동	취업	74	3시간36분	19.241***
	비취업	326	4시간46분	
	전체	400	4시간33분	
외출	취업	74	49분	2.540
	비취업	326	1시간03분	
	전체	400	1시간01분	
치료및 재활	취업	74	29분	15.561***
	비취업	326	1시간02분	
	전체	400	55분	
정서적활동	취업	74	1시간23분	17.820***
	비취업	326	2시간11분	
	전체	400	2시간02분	
기타	취업	74	3분	5.413*
	비취업	326	8분	
	전체	400	7분	

* $p<0.5$; ** $p<0.1$; *** $p<0.001$

나) 돌봄자와 돌봄대상 노인의 관계별 돌봄시간

돌봄자와 돌봄대상 노인의 관계는 크게 나누어 배우자, 자녀, 며느리, 그 외 기타 가족 관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일 돌봄시간 총량을 보면 관계에 따른 시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배우자의 시간이 13시간 17분으로 가장 길고 며느리가 12시간 52분, 자녀가 12시간 29분의 순서로 나타났다.

돌봄 코드별로 나누어 보면 노인과의 관계별로 돌봄시간 차이가 있는 항목은 가사활동과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이다. 가사활동은 며느리인 경우가 가장 시간이 길었으며 배우자가 가장 짧았다. 며느리인 경우 돌봄대상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와 비동거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본인 가족의 가사일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활동시간이 긴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및 재활관련 돌봄, 외출관련 돌봄, 정서적 활동 관련 돌봄은 모두 배우자가 가장 길었다. 며느리인 경우 단순한 돌봄은 하지만 노인과 의 정서적 교류나 말벗, 같이 놀아 주기 등의 돌봄은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6〉 돌봄자와 돌봄대상 노인의 관계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관계	N	시간	F(Sig)
1일돌봄시간합계	배우자	148	13시간17분	1.573
	며느리	135	12시간52분	
	자녀	100	12시간29분	
	기타	17	12시간27분	
	전체	400	12시간55분	
가사활동	배우자	148	3시간46분	21.620***
	며느리	135	5시간36분	
	자녀	100	4시간16분	
	기타	17	4시간43분	
	전체	400	4시간33분	
외출	배우자	148	1시간11분	2.917*
	며느리	135	50분	
	자녀	100	1시간03분	
	기타	17	39분	
	전체	400	1시간01분	
치료및 재활	배우자	148	1시간17분	9.192***
	며느리	135	41분	
	자녀	100	48분	
	기타	17	32분	
	전체	400	55분	
정서적활동	배우자	148	2시간37분	16.921***
	며느리	135	1시간27분	
	자녀	100	1시간53분	
	기타	17	2시간30분	
	전체	400	2시간02분	

* p<0.5; *** p<0.001

다) 돌봄대상 노인 특성별 돌봄시간

노인의 성별로 돌봄시간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1일 돌봄시간 합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돌봄대상 노인 성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노인의 성별	N	시간	F(Sig)
1일돌봄시간합계	남자	153	12시간51분	.096
	여자	247	12시간57분	
	전체	400	12시간55분	

노인의 연령에 따라 돌봄시간을 알아보면 가장 긴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로 13시간 55분이었다. 다음은 70세 이상 75세미만, 3번째는 75세 이상 80세 미만, 4번째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었으며 가장 돌봄시간이 짧은 경우는 85세 이상이였다. 이를 보면 노인의 연령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85세 이상인 경우는 노인이 아예 중증으로 누워있게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돌봄시간이 줄어들기도 한다.

〈표 4-18〉돌봄대상 노인 연령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노인의 연령	N	시간	F(Sig)
총계	65세미만	18	13시간55분	2.468*
	65세이상 70세미만	56	12시간51분	
	70세이상 75세미만	75	13시간24분	
	75세이상 80세미만	94	13시간14분	
	80세이상 85세미만	71	12시간47분	
	85세이상	86	12시간4분	
	전체	400	12시간55분	
외출	65세미만	18	1시간21분	3.517**
	65세이상 70세미만	56	1시간21분	
	70세이상 75세미만	75	1시간6분	
	75세이상 80세미만	94	1시간6분	
	80세이상 85세미만	71	54분	
	85세이상	86	38분	
	전체	400	1시간1분	
치료및 재활	65세미만	18	1시간57분	6.631***
	65세이상 70세미만	56	1시간11분	
	70세이상 75세미만	75	57분	
	75세이상 80세미만	94	60분	
	80세이상 85세미만	71	48분	
	85세이상	86	33분	
	전체	400	55분	

* p<0.5 ; **p<0.1 ; ***p<0.001

돌봄대상 노인의 질병은 치매인 경우와 치매가 아닌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1일 돌봄시간 총량은 치매와 치매이외의 질병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돌봄 영역별로 보면 차이가 나는 항목이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그 외 감시관련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의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해정서적 활동 관련 돌봄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치매노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닌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또 외출관련 돌봄도 치매가 아닌 노인은 신체적 거동 불편으로 인해 외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매노인보다 더 길다. 그리고 치료 및 재활관련 돌봄 또한 치매노인보다는 거동불편노인이 더 많이 하는 활동이다.

치매 노인 돌봄시간이 다른 노인에 비해 더 긴 영역은 그 외 감시 관련 돌봄이다. 치매노인의 감시관련 돌봄은 하루 32분으로 나타나 치매이외의 노인 7분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치매노인 감시 관련 돌봄시간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치매노인 면접사례를 보면 하루 24시간 노인을 지켜보아야 하는 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장혜경 외, 2005 참고). 이처럼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치매로 인한 성격장애로 폭력이나 불안 등 각종 기행을 하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일상적으로 노인을 주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시간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라고 하면 노인의 위생관리, 치료 등등 직접적인 활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감시나 지켜보기 등의 활동은 돌봄행동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9〉 돌봄대상 노인 질병종류별 돌봄시간

돌봄 항목		N	시간	F(Sig)
총계	치매	97	12시간46분	.309
	치매이외	303	12시간57분	
	전체	400	12시간55분	
개인위생	치매	97	58분	6.195*
	치매이외	303	48분	
	전체	400	50분	
외출	치매	97	45분	6.457*
	치매이외	303	1시간6분	
	전체	400	1시간1분	
치료및 재활	치매	97	41분	6.744*
	치매이외	303	1시간	
	전체	400	55분	
정서적활동	치매	97	1시간42분	6.921**
	치매이외	303	2시간9분	
	전체	400	2시간2분	
그외감시관련	치매	97	32분	33.356***
	치매이외	303	7분	
	전체	400	13분	

* p<0.5 ; ** p<0.1 ; *** p<0.001

노인의 질병 상태는 허약과 경증, 중증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1일 돌봄시간에 있어 중증일수록 돌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노인은 13시간 5분이며 경증은 12시간 45분, 허약 노인은 11시간 18분 이었다.

돌봄 영역별로는 차이가 나는 항목은 개인위생, 이동, 배설, 가사활동,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등이었다. 모두 노인의 질병이 중증일수록 영역별 돌봄시간도 길었는데 외출과 정서적 활동은 그 반대이다. 중증과 허약 노인의 돌봄시간 차이가 큰 항목은 배설이다. 허약노인의 배설 관련 돌봄시간은 6분인데 중증노인은 56분으로 거의 10배에 달하였다.

〈표 4-20〉 돌봄대상 노인 질병상태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N	시간	F(Sig)
총계	허약	19	11시간18분	3.393*
	경증	104	12시간45분	
	중증	277	13시간5분	
	전체	400	12시간55분	
개인위생	허약	19	18분	11.706***
	경증	104	45분	
	중증	277	54분	
	전체	400	50분	
이동	허약	19	6분	12.232***
	경증	104	11분	
	중증	277	30분	
	전체	400	24분	
배설	허약	19	6분	18.920***
	경증	104	20분	
	중증	277	56분	
	전체	400	44분	
가사활동	허약	19	4시간0분	3.878*
	경증	104	5시간1분	
	중증	277	4시간25분	
	전체	400	4시간33분	
외출	허약	19	1시간31분	6.135**
	경증	104	1시간16분	
	중증	277	53분	
	전체	400	1시간1분	
치료 및 재활	허약	19	32분	6.348**
	경증	104	40분	
	중증	277	1시간3분	
	전체	400	55분	
정서적 활동	허약	19	2시간51분	4.811**
	경증	104	2시간14분	
	중증	277	1시간55분	
	전체	400	2시간2분	

* p<0.5 ; **p<0.1 ; ***p<0.001

라) 돌봄 지원 유무별 돌봄시간

돌봄지원에 따른 돌봄시간 차이는 부돌봄자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에 주돌봄자의 돌봄시간은 12시간 17분이고 없는 경우는 13시간 13분이었다. 이는 부돌봄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56분정도 대략 1시간 정도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부돌봄자 유무별 돌봄시간

돌봄항목		N	시간	F(Sig)
총계	있다	132	12시간17분	8.868**
	없다	268	13시간13분	
	전체	400	12시간55분	
치료및 재활	있다	132	43분	6.748*
	없다	268	1시간01분	
	전체	400	55분	

* p<0.5

라. 돌봄 스트레스 정도

1) 돌봄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

돌봄 스트레스 척도는 총 5개 영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은 개인적 사회적 제약, 신체정서적 건강,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 돌봄대상 노인과의 관계, 경제적 비용이다. 각 영역별로 4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다.

다음 <표 4-22>는 돌봄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다. 우선 각 영역별로 평균값을 비교하면 개인적 사회적 제약에 대한 점수가 14.96으로 가장 높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신체 정서적 건강 문제로 14.68점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로 13.67점이며 네 번째는 돌봄대상 노인과의 관계로 점수는 11.03점이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아 긍정적이었다. 돌봄자들은 돌봄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가치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 돌봄 역할에 대한 부정적 가치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2〉 돌봄 스트레스 영역별 평균점수

영역	문항수(척도)	점수범위	N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사회적 제약	4개(5점척도)	5점-20점	400	14.96(3.03)
신체 정서적 건강	4개(5점척도)	5점-20점	400	14.68(3.09)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	4개(5점척도)	5점-20점	400	8.07(3.44)
돌봄대상 노인과의관계	4개(5점척도)	5점-20점	400	11.03(3.27)
경제적비용	4개(5점척도)	5점-20점	400	13.67(3.86)
합 계	20개(5점척도)	20점-100점	400	62.39(11.64)

2) 주요변수별 돌봄 스트레스 정도

돌봄자의 성과 연령, 취업여부에 따라 돌봄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로 돌봄 스트레스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별, 취업여부 별로 돌봄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거의 비슷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돌봄자와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며느리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돌봄자와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sig)
배우자	148	63.46(11.25)	3.788*
며느리	135	62.10(11.25)	
자녀	100	62.70(12.04)	
기타	17	53.59(12.76)	
전체	400	62.39(11.64)	

* $p < .05$

돌봄대상 노인의 특성은 우선 연령, 질병종류, 질병상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돌봄대상 노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돌봄자의 돌봄 스트레스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질병종류별로 보면 노인의 병이 치매인 경우 치매가 아닌 경우보다 돌봄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더 높아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에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질병상태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면 질병이 중증일수록 돌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돌봄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노인의 질병이 중증인 경우 64.06

점, 경증은 59.43점, 허약은 54.26점으로 중증노인 돌봄제공자의 돌봄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4-24〉 돌봄대상 노인의 질병종류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Sig)
질병 종류	치매	97	64.73(11.76)	5.231*
	치매이외	303	61.64(11.51)	
	전체	400	62.39(11.64)	
질병상태	허약	19	54.26(12.24)	11.417***
	경증	104	59.43(11.30)	
	중증	277	64.06(11.30)	
	전체	400	62.39(11.64)	

* p<.05, ** p<.01 ***p<.001

부돌봄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돌봄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돌봄자 유무에 따라 돌봄시간 총량이 차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각 영역별로도 마찬가지로 부돌봄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3. 외국의 정책 동향 및 지원 정책 사례

가. 정책 동향

서구 국가들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케어를 사회적으로 조직할 필요성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재원부족, 기존 서비스체계의 부적절성, 가족케어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시기부터 가족 중심적인 케어의 강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의 목표로 제시되었다(Evers, 1991, 장혜경 외, 2005: 59에서 재인용). 인구노령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케어제공자의 투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국은 서비스에서 책임, 경쟁, 선택을 강조하고 특정한 소득집단이나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타겟방식으로 정책경향이 이동하고 있다. 장혜경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의 노인 돌봄 관련 지원 정책 경향에 대해 탈시설화, 의료와 사회적 케어의 탈경계화, 서비스에서 현금 급여의 증대의 3가지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최근 노인 돌봄 정책은 최근 노인이 가능한한 오랫동안 본인이 살던 집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탈시설화는 노인의 선택권과 독립성,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수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양로원과 같은 전통적

인 방식의 서비스가 줄어들고 보다 케어중심적인 요양원(nursing home), 홈헬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노인 서비스로는 “지지적 돌봄(Supportive Care)”, 즉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선택 개념이 결합된,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직업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케어를 기획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전달과 공급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는 이러한 정책을 배경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의료(Hospital care)와 사회적 케어(Social care)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치료중심적 서비스(예를 들어, 병원케어)에서 케어중심적인 서비스(너싱홈과 홈헬프)로 공적 재원이 이동하는 경향이지만, 점차 치료/케어의 구분자체가 사라지고, 공급과 조직 구조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분리가 줄어들고 공식적 케어와 비공식적 케어의 분리도 줄어들고 있다(Kroeger, 2001; 장혜경 외, 2005: 60에서 재인용).

한편 가족내 노인 돌봄노동과 관련한 변화는 노인 돌봄에 대한 현금 급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금급여는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직접 전달보다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배후에는 행정비용의 축소,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동학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Lewis and Daly, 1999:17; 장혜경 외, 2005: 6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3가지 경향에 덧붙여 외국의 정책 경향에서 크게 부각되는 점으로 노인돌봄정책 대상으로서 돌봄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지적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외국의 노인 돌봄 정책의 경향들은 노인 돌봄을 직접 행하는 주체로서 돌봄자의 역할이 없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탈시설화에 따른 재가서비스의 부각도 가족내 돌봄자의 돌봄 역할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의료와 케어의 탈경계화는 너싱홈이나 재가서비스로의 전환과 맞물리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금 급여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이를 보면 가족 돌봄자의 역할이 전제된 상태에서 커뮤니티 중심 케어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봄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에서 가족의 돌봄 수당이 인정되고 있으며 영국은 돌봄자 친화적인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즉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정책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동향을 참조하여 최근 커뮤니티 중심 케어로의 전환과 함께 돌봄자를 위한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로서 영국을 돌봄자 지원 정책의 구체적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나. 지원정책 사례: 영국의 돌봄자 친화정책

1) 영국의 노인 돌봄자 정책의 흐름

영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와 케어제공체계의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그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 특히 85세 이상의 초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케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 있다. 반면 케어 공급측면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및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케어 제공자수는 감소하여 노인 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 <표 4-25>는 1990년대 이후 영국 케어 정책에 있어 주요한 법안 및 정책보고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 한 것이며 영국의 돌봄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흐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4-25> 영국 돌봄 관련 법 및 정책 자료

1989년	Caring For People: Community Care in the Next Decade and Beyond(Department of Health)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5년	Carers (Recognition & Support) Act 1995
1996년	Community Care(Direct Payment) Act
1999년	With Respect to Old Age: Long-Term Care-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Report by the 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
1999년	National Strategy For Carers(Caring About Carers)
2000년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2000년	Care Standards Act
2003년	Community Care (Delayed Discharges etc) Act
2004년	Carers(Equal Opportunities) Act 2004

비공식적 돌봄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89년 대처 정부의 정책 백서인 “Caring For People”로서 이는 정부가 비공식적 돌봄자에 대한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문서이다. “비공식적 돌봄자들이 그들의 가치 있는 기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옳은 일이며 동시에 건전한 투자”(DH, 1989:2.3: 이가옥 · 우국희, 2005:190에서 재인용)라고 하면서 케어를 제공받는 사람과 함께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후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을 꾀한 NHSCCA(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가 1990년에 발표되었고 1995년에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²⁷⁾”가 제정되어 비공식적 돌봄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1996년에는 “지역사회보호 및 직접 지불에 관한 법(Community Care(Direct Payment) Act)”이 제정되어 사회서비스국이 18세부터 65세사이의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 대신에 서비스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용득, 2006).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영역의 서비스 공급이외에 민간영역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With Respect to Old Age: Long-Term Care-Rights and Responsibilities(1999년)는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재정(funding), 서비스 영역(service provision), 돌봄자를 위한 지원(Support for Carers), 정보요구(Information Requirement), 기타(Other Issues)의 5가지 범주에서 노인 장기요양 제도의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The 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 1999). 이와 더불어 돌봄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것이 1999년의 “National Strategy For Carers(Caring About Carers)”이다. 영국 정부는 이 문서를 통해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케어 정책에 있어서 돌봄자를 중심에 둘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서비스 중 하나는 “휴식 서비스(Break Services)” 제공이었다.

이 전략문서에 근거하여 그 다음해인 2000년에 돌봄자를 위한 두 번째 법이 제정되었다.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2000)²⁸⁾”는 1995년의 법과 비교하여 돌봄자의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돌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는 별개로 돌봄자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는 돌봄자가 돌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어야 하며 또한 돌봄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되고 있다.

2003년에는 “Community Care(Delayed Discharges etc) Act”²⁹⁾가 제정되어 일부 서비스가 무료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돌봄자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최대 6주까지 이용 가능한 중간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장비서비스가 있다(Carers UK, 2003.6 : 이가옥 · 우국희, 2005:192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돌봄자를 위한 정책은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27) 법안은 Web Link www.legislation.hmso.gov.uk/acts/acts1995/Ukpga_19950012en1.htm

28) 법안은 Web Link www.legislation.hmso.gov.uk/acts/acts2000/20000016.htm,
<http://www.opsi.gov.uk/acts/acts2000/20000016.htm> 참조.

29) <http://www.carersuk.org/Policyandpractice/PolicyResources/Policybriefings> 참조.

시행된 “Carers(Equal Opportunities) Act”³⁰⁾이다. 이 법은 돌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의 돌봄자의 권리에 관한 법안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정부는 돌봄자의 여가, 직업, 교육, 학습과 관련된 욕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정부는 돌봄자를 사정할 때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는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며 여가 활동을 원하는지 등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는 돌봄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돌봄자들은 돌봄 책임과 다른 역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들의 권리와 지위는 이전의 법에서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이가옥 · 우국희, 2005:194).

이처럼 지속적으로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온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과 함께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도 함께 추진되었다. 2000년에는 제정된 Care Standard Act는 사회적 케어와 의료케어에 대해 최초로 국가가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³¹⁾.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이후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2)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개요

1990년 NHSCCA 이후 장기요양은 지방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사정과 요양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정부에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나누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³²⁾ 우선 지방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각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우선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보건과 사회보호 사정(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을 통해 필요한 보호 비용을 산정한 후 재정평가(financial assessment)를 통해 보호 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 뒤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 사정(health and social services assessment)”을 통해 지방의회는 욕구를 파악한 뒤 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30) 법안은 Web Link www.legislation.hms.gov.uk/acts/acts2004/20040015.htm 참조.
<http://www.opsi.gov.uk/acts/en2004/2004en15.htm>

3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200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3-2004:Improving Care Standards

DH, 2003, Domiciliary Care: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http://doh.gov.uk/ncsc>)

32) 이하 내용은 김보영, 2005, “영국의 시설보호(Care Home):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제출 내부자료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이 실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청소, 장보기 등 주거 보호 서비스, 장애보조장비 지원이나 주택개조서비스, 주간보호소 이용이나 일시보호자 파견,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 시설 보호 등이 있다. 재정평가는 수입평가(저축에 대한 이자,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각종 복지급여 모든 수입에서 용돈을 제외한 금액)와 재산 평가³³⁾가 함께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의한 시설규제,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한 시설 및 대상자 선정 관리 감독,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한 간호지원 등이다. 국가최소기준은 보건부에 의해 만들어지며 보건 및 안전, 시설에 대한 접근,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접근, 가구 및 내부시설에 대한 질, 개별적 보호 등의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명기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번역자료 참조). 모든 보호시설은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며 시설의 모든 평가수치를 포함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³⁴⁾ 각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도 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평가에 의해 서비스 질에 대한 등급이 부여 되며 시설에 대한 불만 사항 역시 사회보호조사위원회에서 접수 처리 된다. NHS는 의료 관련 서비스로 시설보호 중 간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간호지원 필요 여부는 각 지방 보건당국에서 실사한다.

지방정부 서비스의 재정은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교부금은 개별사업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기보다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 FSS)에 의해 각 부분별 적정지출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세 수입과 적정지출수준과의 차액을 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사회적 서비스 비용 역시 지출배분공식에 의해 개별 복지서비스 부분 내에서 필요비용을 산출하여 총 지방교부금 수준에 반영하게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필요 예산과 지방세 수입간의 차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지출배분공식(FSS)은 지방정부의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치안, 소방, 도로유지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재무 등 7개 항목의 지출에 대한 적정지출수준을

33) 재산평가는 저축, 투자와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재산평가액에 따라 본인 부담정도가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다. 20,500파운드 이상(약 4천만원)은 보호비용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주당 약 82파운드 정도가 된다. 12,500파운드(약 2500만원)초과 20,500파운드미만은 250파운드당 매주 1파운드만 본인 부담이며 12,5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무료이다. 주택의 경우 아래의 해당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재산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무능력한 친척이나 가족, 16세미만이거나 법적지원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대상자의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전남편, 전부인 또는 전동거인, 대상자의 보호자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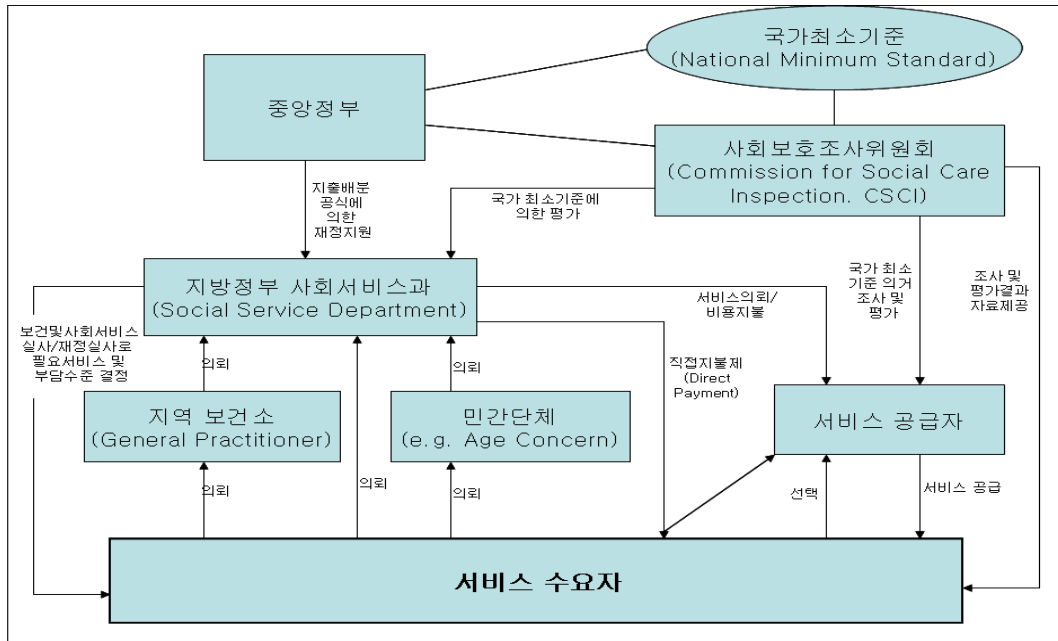
34) 2005년도 평가 결과는 CSCI, 2005,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 2004-05: 216-229, Appendix I: Percentage of Services For Adults and Older People Meeting or Exceeding Individual National Minimum Standards에서 확인 가능함.

산출하는 수학적 공식으로 거주 인구수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고용비, 보호대상자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이 공식은 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교부금 산출 근거로만 사용되고 있어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장치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우선 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총액 범위 안에서 영역별로 조정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김보영, 2005).

서비스 공급 측면을 보면 지방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지방정부와 계약 하에 민간부문에 의해서 제공된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위탁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대부분은 비영리사업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공공부문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은 감소해왔다. 재가서비스에 대한 민간 제공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부문보다 늦게 진척되었다(최은영 외, 2005:146-7).

아래 <그림 4-6>은 영국의 사회서비스 전달 흐름을 도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이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과에서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사를 거쳐 서비스 및 부담수준을 결정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서비스를 의뢰하면 수요자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때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 방식에 의해 수요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 보건소와 민간단체는 공식적인 사회서비스 의뢰 경로는 아니지만 영국 주민들 대부분이 GP와 민간단체가 더 익숙하여 먼저 찾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 특히 Age Concern과 같은 단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GP에 대해 사회서비스 의뢰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하여 의뢰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³⁵⁾.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관은 “사회보호조사위원회”이며 역시 중앙 정부 소속이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5) 해외전문가 인터뷰 자료 참조- Hilary Arksey(영국 요크대학 SPRU, 책임연구원) 박사.



〈그림 4-6〉 영국의 노인케어 관련 사회서비스 전달 흐름도³⁶⁾

3) 노인 돌봄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돌봄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재정적 지원,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일이나 직장 관련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이 있다³⁷⁾.

가) 재정적 지원³⁸⁾

노인 돌봄자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케어러수당(Carer's Allowance)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돌봄수당(Attendance Allowance)을 받는다.

(1) 케어러수당³⁹⁾

케어러 수당은 현재 주당 46.95파운드정도에 해당된다. 자격기준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주당 35시간 이상을 누군가를 돌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또 돌보는 사람이 장애급여자격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당 84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36) 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영이 작성한 흐름도를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37) www.carersuk.org/information 참조. Financial Help/ Help with caring/caring and work/Carers and Learning 로 크게 나누어져있음.

38) 그 외 소득지원/연금크레딧(Income Support/Pension Credit), National Insurance Credits/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 Working Tax Credit, Council Tax Benefit 등이 있는데 돌봄자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성격을 아님.

39) www.carersuk.org/information/Financialhelp/CarersAllowance 참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급여를 신청할 때 영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케어러 프리미엄(Carer Premium)이라고 하여 그밖에 소득지원, 소득기반의 구직수당, 주거급여, 지방세급여 등에 해당된다면 1주당 최대 26.35파운드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2) 돌봄수당(Attendance Allowance)⁴⁰⁾

65세 이상이며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급여(Disability Living Allowance)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급여는 소득이나 저축 등 자산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추가로 연금급여, 주거급여, 지방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케어러수당이 지급된다.

나)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Help with Caring) - 일시 휴가를 중심으로

돌봄자와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내용을 대체로 가정에서의 도움들(Help at Home), 주간보호(Day Care), 휴식서비스(Break Services), 보조기구와 설비(Aids and Equipment), 주택개조(Adapting your Home), 케어러서비스(Carer's Services) 등이 있다⁴¹⁾.

가정에서의 도움은 옷입기, 세수 등을 포함한 개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와 식사준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주간보호는 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낮 동안 케어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간보호는 돌봄자의 휴식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보조기구와 설비는 예를 들어, 양손잡이용 머그컵, 핸드레일 등 일상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와 편의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개조 또한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맞게 주택을 개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며 간접적으로 이들을 돌보는 케어러의 돌봄 노동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케어러서비스는 돌봄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것이다. 앞서 정책 흐름 부분에서 설명한 바대로 최근에 정책적 대상으로 부각된 영역이며 현금급여인 케어러 수당이외에 일시휴식, 일, 교육 등 돌봄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금 급여는 재정적 지원이며, 교

40) www.carersuk.org/information/Financialhelp/AttendanceAllowance 참조.

41) www.carersuk.org/information/Helpwithcaring/Whathelpisavailable 참조.

육과 일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은 일이나 직장 관련 및 교육관련 지원 범주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일시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일시 휴가(Break 또는 Respite)⁴²⁾

National Strategy for Carers, 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s for Mental Health and for Older People를 포함한 수많은 정책 발의는, 돌봄자 지원과 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책적 목표 외부에서 세워진 “Caring about carers”는 돌봄자가 돌봄노동으로부터 휴가를 가지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Real Break은 돌봄자를 위한 전망에 있어서 올바른 실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휴가(Break)는 집 또는 다른 세팅에서 제공된다. 가정에서의 케어(Care at Home)는 주간이나 야간의 앉아 있기 서비스(day and night sitting services)나 도우미나 간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있다. 가정 밖에서 받는 것은 주간 센터(Day Centres), 주말휴가계획(weekend respite schemes), 시골지역의 이동센터(mobile centres in rural areas), 시설이나 너싱홈에서의 휴가 또는 단기휴가, 병원이나 특별단기보호소의 휴가 등이 가능하다⁴³⁾. 몇몇 경우에는 돌돌봄자와 돌봄대상자가 함께 휴가를 떠나거나 야간에 쉴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공급자에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국, 자원단체, 민간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으로 일시휴식 지원서비스는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한데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의 전망에 따라서 2001년 10월부터 지방당국에 바우처(voucher schemes) 개발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 목적은 지방당국이 돌봄자, 돌봄대상자,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시휴가(short-term breaks)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우처는 최대의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시간이나 금전적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 지불(direct payment)과 직접 서비스(direct services)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바우처는 다른 많은 사회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시범 사업은 서비스의 제약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시휴가(respite care)

42) 일시휴가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래 글을 요약 발췌한 것임.

Hilary, Arksey 외, 2004, 『Review of Respite Services and Short-Term Breaks for Carers for People with Dementia』, Report for the 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NHS Services Delivery and Organisation R & D(NCCSDO)

43) 일시휴가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보면 In-Home Respite, Host-Family Respite, Institutional/overnight Respite, Residential Care, Day Care, Holiday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결국 영국에서 일시휴가는 돌봄자의 돌봄 노동 시간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는 돌봄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의 공식적 지원 방안 중 하나이다. 또한 그들의 돌봄 수고에 결정적인 것으로 돌봄자들이 인정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일시휴가(respite와 short-term breaks)는 낮은 이용률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지의 폭이 적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몇몇 돌봄자는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어울리지 않는 형식적인 일시휴가서비스(respite services)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돌봄이 필요한 사람 수의 증가, 일시휴가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 이러한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정책적 강조, 돌봄자를 위해 돌봄으로부터의 유익한 휴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시휴가 서비스와 더불어 최근, 데이케어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케어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위기에 대한 응급적인 반응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데이케어는 집을 떠나 주간센터에서 보내는 것, 주간병원이나 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지방당국과 자원 단체가 데이케어의 주된 공급자이다(Hilary, Arksey 외, 2004:16-17).

다) 일과 직장 및 교육 관련 지원

Carer Equal Opportunity Acts에 의하면 돌봄자들도 일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돌봄자의 일과 직장에 대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때로는 매우 간단한 일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노인의 상황을 점검하기 쉽도록 전화를 가까이에 두거나 업무 중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차를 가장 근거리 주차하도록 배려해주는 것 등이다. 이는 돌봄자들이 직장을 지속해서 다니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들이다.

대부분의 돌봄자들은 직장 돌봄을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 관련하여 돌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탄력근무(flexible working), 휴직 leave arrangement), 긴급 상황 시 쉴 수 있는 권리(A right to time off for emergence)등이 있다. 탄력 근무는 탄력출퇴근, 단축근무, 연간근무시간제, 잡 셰어링 또는 파트타임근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단기간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밖에 일정기간의 휴직도 가능하며 돌보는 사람의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등 긴급 상황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지원은 돌봄자가 각종 교육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상자의 자산평가에 따라 일정액의 교육비도 지원되며 교육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봄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각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수 있다⁴⁴⁾.

4. 가족 내 노인 돌봄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제언

노인 돌봄 실태 조사 결과와 외국의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가족 내 노인 돌봄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족 내 노인 돌봄 지원 정책은 장혜경 외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넘어서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여성을 포함한 돌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 방안으로 1) 경제적 지원 2) 휴가 등 고용관련 지원 3) 서비스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으로 노인 돌봄자에 대한 케어수당이 있으며 간접적인 지원으로 노인 돌봄자에 대해 연금 크레딧 부여, 시설 및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돌보미 바우처 등 서비스이용권 제공 등을 들고 있다. 다음 휴가 등 고용관련 지원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돌봄자의 돌봄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일시 휴가제도 제안하고 있다. 다음 서비스지원은 주로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내용으로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세부내용
경제적 지원	케어수당 연금크레딧 소득공제 서비스이용권(돌보미바우처)
시간 지원	가족간호휴가 부분가족돌봄휴가 일시휴가(Rspite)
서비스 지원	요양시설 확충 시설유형다양화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서비스 및 이용시간 다양화 노인돌봄가족 쉼터 등 가족지원시설

정책 제안에 대해 더 보완하고 싶은 내용은 일시휴가(Respice)이다. 영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면 일시휴가는 돌봄자의 돌봄 역할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인 제도

44) PRTC(Princess Royal Trust For Carers)
ACE National(www.acecarers.org.uk)
NIACE(www.niace.org.uk)
Learning and Skills Council(<http://www.lsc.gov.uk>)

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돌봄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돌봄자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노인 돌봄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그러나 케어러 수당은 일을 그만두는데 대한 소득 보장의 의미가 강한 제도이며 수당으로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돌봄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케어러 수당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노인돌봄에 필요한 시간 전체에 해당되는 만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는 불충분하며 가족인 경우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돌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돌봄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시휴가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시 휴가는 주간보호, 재가 케어(홈헬퍼, 방문간호 등), 시설단기입소, 돌봄대체 인력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으로 다만 정책의 초점이 노인이 아니라 돌봄자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 외에 시설 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의 주된 경향은 탈시설화로 앞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이미 노인 돌봄 지원 시설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재가 케어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노인 요양시설과 서비스 제공 시설 등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스웨덴의 해외전문가인터뷰에 의하면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주당 120시간 이상의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재가 케어가 시설 케어에 비해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가 케어 평가 연구들에 의하면 재가 케어가 시설케어보다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높지 않고 오히려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apitman, 1986; Greene, Loverly & Ondrich, 1993; Weissert & Hedrick, 1994; Weissert, Lesnick, Musliner, & Foley, 1997; 최은영 외, 2005:170에서 재인용) 이는 노인 케어에 있어서 시설케어와 재가 케어는 대체보다는 보완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돌봄자들이 다양한 돌봄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재가 케어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다음으로 공적 노인 요양보장 제도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질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적 영역을 비롯하여 민간 영역의 서비스 공급자가 양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에 대한 기준이외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서비스 기준을 매우 촘촘한 그물처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돌봄자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마련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서비스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중앙 정부는 서비스의 지역차이와 공급자별 차이를 줄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돌봄자들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간병인 등 홈헬퍼를 이용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노인 요양보장제도와 돌봄자 지원 정책에 있어 케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표준화 및 엄격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공식 케어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가족원 중 주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것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역사회적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 및 평가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돌봄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에는 서비스 수요에 대해 사정 평가하고 민간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연계하여 돌봄자 및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